



10

1989

문학예술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1989. 10호

(루게 504)



◆◆◆◆◆◆◆◆◆◆ 차 례 ◆◆◆◆◆◆◆◆◆◆

위대한 품	4
뒤에선 사람	5
나의 추억은... ..	14
내 고향 《황금산》이여	18
요람	19
우리 당이 제일 좋아	19
소원	20
소백수 맑은 물	20
백두산밀영에서	21
기둥	22
하늘중천 밝은 달은 하나이건만	23
망국노의 설음을 진실하게 형상한 가사	23
《총돌격》의 구호를 불 때마다	26
나의 마음	27
철창가의 민들레	28
생명수를 안고	37
깊어가는 한밤중에	37
한 리당비서의 수기	38

민주주의기발아래 뭉쳐나가는 청년들의	
생활과 투쟁에 대한 생동한 형상.....	41
여기에 화목한 가정이 있다.....	47
불타라, 청춘이여!.....	51
발과소리 올려간 뒤	52
철산봉의 위치	52
철산봉에 올라	53
문지를 앓으며	54
광부와 쇠돌	54
판문점 기행	55
아름다운 인간들의 화원을 가꾸어가는	
당일군의 참신한 형상	56
처녀와 잉어	70
구룡폭포	72
참대순	73

위대한 품

권강일

누구를 보아도
기쁨 넘친 얼굴
어디를 가도
개인 하늘처럼 밝은 마음

집집에 거리거리에 일터마다에
한점 그늘 없이 차넘치는
삶의 이 환희는
당이어, 그대의 넓은 품이
사랑과 믿음으로 안아피운것

사람마다 살아온 인생행로는 다르고
가슴마다 남모르는 사연 천백가지여도
그 모든 운명을 말아안은 어머니
한결같은 그 사랑
한없이 넓은 그 품의 기슭은 어디나

얼마이라
이 땅우에 두번 다시 태어나
목이 메여 그 품에
얼굴을 묻은 사람들은

누구도 보증할길 없는 곡절 많은 한생을
그대만은 믿어 고귀한 생명을 안겨주고
영광의 자리에 서지 못한
한 전사의 마음까지 헤아려
수령님 곁에 가까이 기념사진을 찍어주는

아, 그 사랑으로 가슴을 더웁혀주고
그 믿음으로 활기를 솟음쳐주며
한사람 한사람
피와 숨결을 나누어준

그 고마움을 무슨 말로 다 노래하라

어디를 가나 마주오는
사랑의 전설
크나큰 믿음과 함께
당원증을 가슴에 품은
보람찬 삶의 목메이는 이야기

아, 그 사랑앞에서는
가꾸어 꽃피우지 못할 인생이 없었고
지나간 모든 일의 그 한끝에서
새라새로이 첫 걸음을 떼지 않았던가

지나간 길에 범칙처럼 굳었던
편협의 골짜기-그 웅벽을 깨치고
믿음을 주어 믿음을 얻고
사랑을 주어 천만을 안는
밝은 해빛 빛발쳐주는 당이어

무슨 말로 노래하라
산천도 밝아지고
사람들도 환해진
삶이 만발하는 이 땅
통일단결의 이 화원을 펼쳐놓은 위대한 당이어!

믿노라
그대가 우리를 믿고 사랑하기에
아끼노라 그대의 심장으로
우리의 혈맥이 뛰기에
아, 그대를 위해 살며 일하리라
영원히 당과 운명을 같이하리라

뒤에선 사람

1

청명한 가을의 어느날이었다. 다양한 해빛이 함뿍 쏟아지는 4.25축구선수단은 큰 경사가 난 것처럼 흥성거렸다.

4층에 있는 나 어린 체육소조원들은 명길현지도원과 함께 산중기지로 이동훈련을 가게 된다. 때는 오후백과가 무르익는 가을이라 산에는 머루다래가 주렁지고 울긋불긋 단풍진 산천의 경계는 천하절승을 이루었을것이다. 부모들과 선생들의 끝없는 잔소리와 학교의 비좁은 울타리안에서 다람쥐 채바퀴굴리듯하는 단조로운 생활에 권태증을 느꼈던 소조원들은 벌써부터 마음이 똥똥 떠 있었다.

얼마전 규모가 꽤 큰 국제경기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축구선수들이 있는 2 층도 명절기분에 휩싸여 있다. 그들은 담당지도원 한승길과 함께 휴양권을 받은것이다.

명길현이와 나란히 서서 숙소의 이채로운 풍경을 묵묵히 건너다보고있는 박룡태부단장만은 주위분위기에 기분을 맞추지 못하고 어딘가 심각한 표정이다. 지금은 선수단의 기술사업을 책임지고있지만 명길현이와는 함께 축구를 시작했고 함께 늙어가는 막역지우였다. 그는 방금전 국제경기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돌아온 지도원, 선수들을 표창할데 대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말씀을 집행하기 위한 모임에 참가했었다. 박룡태는 명길현의 막역지우로서 보다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높이신 뜻을 받들고 나라의 축구발전을 위해 함께 몸을 잠근 체육인으로서 그 빛나는 수훈자명단에서 벗의 이름을 볼수 없는것이 섭섭했다. 하지만 박룡태로서도 어찌할수 없는 일이었다. 명길현이 아무리 풍부한 경기경험과 능력을 소유하고있다 해도 국제경기에서 성과를 올린것은 그가 아니라 제자의 한사람인 한승길이었다. 명길현이도 축구지도원의 말년생활을 가장 빛나게 장식할수 있는 이번 기회를 놓친것을 아쉬워할것이다.

《이보라구, 길현동무.》

먼저 자리를 잡고 앉은 박룡태는 명길현이 창가에서 물러서기를 기다렸다가 정색해서 입을 열었다. 해마다 머리술이 성글어가는 벗을 볼 때마다 그가 꼭 마지막기회를 놓치고 빛없이 인생의

림재성

말년을 마무리하게 될것 같은 조바심이 든 박룡태는 자기의 심정을 솔직하게 말하기로 결심했다.

《선수단 담당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지 않겠나?》

박룡태는 어찌나 심각해서 말하는지 얼굴이 기름해보이기까지 했다.

《또 그 소린가?》

《자네는 아직 힘이 있어. 선수단을 맡으면 틀림없이 좋은 성과를 올릴수 있을걸세.》

명길현은 약간 미간을 찌프렸다.

《거기야 나 아니라도 한승길동무가 있지 않나. 그는 이번에 원정경기에 나가 잘 싸우지 않았소...》

《왜 그 성과를 자네가 올릴 생각을 못했나. 경험이 부족하나 능력이 모자라나... 어찌 벌써부터 늙은이행세를 하려는가?》

박룡태는 격한 목소리로 명길현의 말을 중동무이 했다. 그러나 명길현은 조금도 자세를 허물어프리지 않았다.

《성과를 누가 거두었는가, 누구에게 영예가 차례졌는가는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닐세. 나라의 축구발전에 내가 조금이라도 기여했고 그래서 국제경기에서 성과를 올렸다면 난 그 이상 더 바랄게 없네.》

활짝 열어놓은 창문으로 해서 불어오는 소슬바람에 명길현의 은백색 귀머리가 가볍게 흔들린다.

움직이지 않는 시선으로 주의깊게 그의 모습을 지켜보는 박룡태는 가슴속이 텅 비는듯한 허전한 느낌이 들었다. 한때 명길현은 우리 나라 축구계에서 단연 두각을 나타낸 사람이었다. 국경너머의 수많은 국제경기에 참가하러 떠나가는 그를 많은 동료들과 제자들이 환송했다.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는 또 얼마나 열광적으로 맞이했던가. 그러나 세월은 참으로 무심한것이였다. 어느덧 명길현의 머리에도 서리가 내리기 시작했다. 박룡태를 보다 서글프게 한것은 세계축구계에까지 이름이 널리 알려졌던 명길현이 오늘은 성과를 올린 제자들이나 환송하고 아직 밥투정을 할 어린것들의 뒤시중을 들어주는것으로 만족해하는 그의 정신적 로쇠였다. 인생의 황혼기란 어차피 그렇게밖에 될수 없는것인가 하는 허무한 생각이 들며 친구가 더없이 측은해졌다. 그러나 그는

마음을 다잡았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될 친구임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그였기 때문이다.

《길현동무.》

박룡태는 목이 타는듯해서 대구 목을 내들렸다.

《실력으로 보나 지도원경력으로 보아 자네는 응당 수훈자명단의 첫자리에 올라야 되지 않겠나.

그러나 섭섭은 하지만 우리는 자네를 생각하면서도 어쩔수 없었네. 자네는 어찌 자기를 진심으로 격정해주는 벗들의 심정을 그리도 생각하지 못하는가.》

《면목이 없네.》

명길현은 가슴이 뭉클했다. 가식없는 박룡태의 선량하고 열에 뜬 얼굴을 마주보노라니 자기를 진심으로 녀려해주는 벗의 심정이 헤아려졌다. 자기도 바로 그것-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더 큰 기쁨과 만족을 드리기 위해 고심분투는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것이 안타까웠다.

잠시 말없는속에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응접탁을 사이에 두고 한사람은 무엇인가 골똘히 생각에 잠기는 표정이었고 다른 한사람은 멍청히 그를 바라보았다. 이때 인기척을 느낄새없이 출입문이 열리더니 열두어살 됴직한 학생이 들어왔다. 약간 겁에 질린듯한 눈으로 두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던 그 소년은 곧추 명길현이쪽으로 걸어왔는데 보아하니 축구소조원인듯했다.

소년이 무어라고 몇마디 하자 명길현의 눈섭언저리에서 가벼운 경련이 일어났다. 박룡태가 다시 선수단을 말는게 어땠는가고 명길현에게 권고했을 때에도 그의 낯색은 저렇게 어둡지 않았다.

《난 좀 나가봐야겠네.》

명길현이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다.

《무슨 일이 생겼나?》

《남철이라는 소년이 있는데 집에 심상치 않은 일이 생긴것 같네.》

박룡태도 함께 따라 일어났다. 새 훈련기지로 떠나기에 앞서 소조원에게 뜻하지 않은 일이 생겼다니 명길현을 더 이상 붙잡고있을 형편이 못되었다. 더우기 남철이의 사정을 박룡태도 잘 아는터여서 근심이 될뿐이었다. 벗이 심사숙고해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한마디 강조했다.

《4.25 축구선수단을 조직할 때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자네에게 얼마나 큰 기대를 가지시였댔나. 또 얼마나 크나큰 사랑을 받아안았나. 그걸 자네가 벌써 잊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네. 다만 그 은혜, 그 기대에 보답할 기회를 놓치는 것 같아 안타까울뿐이네.》

이때까지 막대기처럼 꺾꽂하던 명길현의 허리가 활동처럼 휘어지고 검은 눈섭은 수심에 잠겨 움츠러들었다. 그는 무언가 말을 할듯하다가 충고를 주어 고맙다는 한마디를, 그것도 꺼져들어가는 소리로 겨우 하고 사무실에서 나갔다.

2

박룡태는 창자에 그린듯이 서서 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청청하던 하늘에 비구름이 몰려들고 바람이 불었다. 굵은 비방울이 누렇게 황이 들기 시작하는 가로수며 아스팔트길우에, 우비없이 급하게 걸어가는 행인들의 머리와 어깨우에 후둑후둑 떨어지군했다. 그 많은 사람들속에서도 명길현의 모습은 똑똑히 보였다.

하늘한끝에서 천둥소리가 꾸르릉거렸다.

질어가는 가을의 이채로운 정서를 보태주는 다양한 색채속에서 상념을 꼬드겨주는 먼 우뢰소리를 들으며 태맞은 사람처럼 어깨를 푹 떨구고 휘적휘적 걸어가는 명길현을 보노라니 10 여년전의 일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그때 국가종합팀을 이끌고 유럽의 어느 한 나라에서 진행된 국제경기에 출전한 명길현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돌아왔다. 경기총화에서는 많은 기술적 문제들과 함께 가장 정직하고 성실해야 할 스포츠에 개인의 소충명과 공명심을 앞세운 점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논의되었다. 그는 개인을 과신한 나머지 동지들의 의견을 귀담아듣지 않음으로써 선수들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시키지 못한 심각한 교훈을 찾았던것이다. 그 심각한 교훈이 동기가 되었던지 새로운 국제경기를 준비할데 대한 협회의 권고를 사양한 명길현은 나이도 있는데다 말년을 자식들 없이 적적하게 보내는 로부모들을 위하여 고향에 내려가 후대교육에 한생을 바치겠노라 제기했다. 누구나 사정을 들어보고 그를 나무라지 못했다.

명길현이 고향에 내려간지 두해가 지난 어느날, 당중앙위원회에서 명길현을 급히 부르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그를 부른 까닭은 알수 없었다. 고향에 내려가 소원대로 교편을 잡은 다음 지방도시의 체육소조에 얼마간 관여했던 명길현은 내놓고 자랑할만한 일도 못했지만 남의 눈에 거슬리는 일은 더욱 하지 않았다. 한가지 박룡태의 마음에 짙이는건 축구선수들의 훈련방법과 관련된 몇가지 문제를 적어 체육지도위원회에 올려보낸 명길현의 편지였다. 그는 편지에 우리 선수들의 체질적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압이 낮은

고산지대에서 훈련하는게 좋을것이라고 썼다. 해발고가 높은 산간지대와 보다 생활조건이 좋은 평지대에서 선발한 선수들의 건강상태와 훈련부담정형을 자료적으로 대비분석한 그의 편지는 내용이 생동했고 정력적이고도 실감있게 씌여졌다.

그러나 동료전문가들은 축구선수들의 훈련방법에서 하나의 혁명을 전제로 하는 그의 편지에 별로 흥미를 느끼지 못했다. 박룡태가 보기에 도 해발고가 낮은 지대에서 수천만년을 살아오는 과정에 생태학적 완성을 이룩한 조선사람의 체질을 차요시한 명길현의 편지는 연구해볼 가치는 있겠으나 당장 실천에 옮기기는 어려웠다. 당시 체육지도위원회의 어느 한 기술부서에서 사업하던 박룡태는 초조해서 하회를 기다릴 벗이 실망하지 않도록 회답편지를 보내주었다.

...교과서에 있는 지식을 학생들에게 배워주는 것만도 험하지 않은데 나라의 축구발전을 위해 것처럼 큰 수고를 한데 대해 모두가 경탄한다. 하지만 자네의 제기는 경기운영상 제기되는 전술이 아니라 하나의 공리를 뒤집어엎고 새 공리를 창조하는 과학혁명을 전제로 하고있네. 그런것만큼 충분한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 되겠는데 자네의 편지를 연구기관에 보였더니 바로 그것이 부족하다는군. 그러니 너무 조급히 생각 말고 본신 사업에 전념해주기 바란다...

박룡태는 벗의 건투를 빌기에 앞서 현존 훈련방식을 지나치게 허무적으로 대하면 생각이 깊지 못한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을수 있다는것을 은근히 암시했다.

편지를 띄운지 며칠만에 인차 회답이 왔다. 명길현은 벗들의 오해가 억울해서가 아니라 현실을 외면하는것이 피로와 다시 편지를 쓰노라고 했다. 박룡태는 혹시 그 편지가 말썽을 일으킨게 아닐가 하고 은근히 마음을 썼다. 그러나 평양에 도착한 명길현이와 함께 한 일군의 안내로 모란봉경기장에 이른 박룡태는 자기 눈을 의심할 정도로 놀랐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경기장을 돌아보고계셨던것이다.

《나는 며칠전 텔레비존으로 이 경기장을 보면서 많은것을 생각했습니다.》

민첩한 걸음걸이로 걸어나가시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수행원들을 둘러보시며 말씀하시였다. 며칠전 텔레비존을 통해 이 경기장을 보셨다면 축구경기를 보셨을것이다. 그렇다면 박룡태가 짐작했던 명길현의 편지건은 아닐것이다. 그러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생각은 단순한 축구경기 하나에만 머물러계시지 않았다.

《동무들도 잘 알고있는 일이지만 이 모란봉경기장으로 말하면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에 개신하시여 인민들과 첫 인사를 나누신 뜻깊은 사적지입니다. 나는 이 경기장을 볼 때마다 그날에 있는 장군님의 개신연설과 평양시민들의 열광적인 환호성이 그대로 귀전에 울리는듯해서 가슴이 뻘뻘합니다.》

목소리가 쇠소리나고 행동이 민첩하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말씀에는 료량하기 어려운 무게와 승엄한 뜻이 깃들어있었다. 열광적인 감정으로 순간순간 손에 땀을 쥐고 축구경기를 관람하는 그 짧은 순간에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에 대해 생각하시는 그이가 우러러보여 박룡태는 저도 모르게 몸가짐을 가다듬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계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력사의 사적이 깃든 이 경기장이 정전직후에 꾸려놓은 초라한 모습 그대로입니다. 여기에는 웅당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업적을 후손만대에 길이 전할 대기념비가 일떠서야 합니다.》

그이께서는 소리치며 설레이는 모란봉의 청청한 솔밭을 한품에 안을듯이 두팔을 짝악 벌리시었다가는 모란봉앞 광장을 힘있게 가리키시기도 했다.

《경기장을 만년대계의 기념비로 되게 하기 위해서는 현대적인 건축학적 요구를 충족시키면서 또한 체육인들의 체육활동과 생활조건을 충분히 갖추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동무들을 불렀는데 함께 의논해봅시다.》

그이께서는 새로운 면모로 일떠서게 될 미래의 현대식 경기장의 형태와 규모뿐아니라 정리하고 다듬어야 할 주변풍경도 하나하나 설명하시였다. 이미 오래전부터 마음속으로 구상을 무르익혀왔다는게 알려지는 모란봉 기슭의 미래상은 그이의 정 력적이고도 담담한 설명으로 하여 온갖 생각으로 마음이 뒤숭숭했던 박룡태의 눈앞에도 선명한 표상을 그리며 떠오르는것이였다.

미구하여 태어날 사적이 깃든 경기장의 새로운 웅장하고 화려한 모습을 눈앞에 그려보던 그는 한 순간 굳어졌다. 《다음은 축구를 발전시키는 문제인데...》 하고 두번째 손가락을 꼽으시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수행원들속에 끼워있는 박룡태에게 명길현이 오지 않았느냐고 물으시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여기 왔습니다.》

명길현은 누군가 등뒤에서 떠미는듯한 가벼운 충격을 느끼며 한발 앞으로 나서서 그이께 인사를 올렸다.

《반갑소.》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께서는 환하게 웃으시며 명길현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시었다. 그이께서는 언제나처럼 부드럽고 다정한 음성으로 생활의 구석 구석을 헤아려보시고 언제 평양에 도착했는가고 물으시었다. 명길현이 어제 도착했노라고 말씀을

렸다. 고개를 끄덕이시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문득 유쾌한 표정을 지으시더니 명길현이 체험담을 써서 체육지도위원회에 올려보낸 편지를 읽어보았노라고 말씀하시었다. 모두 깜짝 놀랐다. 혁명에 대단한 리득을 줄만한 편지도 아니고 전문가들로부터 공감도 받지 못한 한 체육전문가의 편지를 그이께서 읽으시다니, 더욱 놀라운것은 편지속에 반영되어있지 않는 필자의 생활세부까지 세세히 알고계시는 그것이였다. 명길현에게는 뜻깊은 일이였으나 남들에게는 범상하게 보이는 그 생활세부-해탈고가 높은 산상에서 체육소조원들을 단련시킨 필자의 수고는 박룡태도 모른다. 후에 안일이지만 나라의 축구발전을 위해 체육지도위원회사업을 료해하시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고향에 내려가 체육소조사업을 지도하고있는 명길현으로부터 올라온 편지를 아시게 되었고 그 편지내용을 료해하시는 과정에 그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시었던것이다.

《기압이 낮은 고산지대에서 훈련을 강화하는것이 우리 선수들의 육체적 준비를 완성하는데 결정적으로 유리한가 아니면 선수들의 신체발육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가 하는것은 더 문의해봐야 할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편지를 중시하게 된것은 누가 알아주건말건 나라의 축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꾸준히 애써온 명길현동무의 숨은 노력과 몸부림입니다. 편지에서는 그의 숨결이 느껴집니다.》

좌우에 갈라져있는 체육지도위원회일군들로부터 한쪽에 약간 떨어져있는 명길현쪽으로 고개를 돌리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한결 부드럽고 온화한 음성으로 한마디한마디 짚어 말씀하시었다.

《내가 늘 말하는것이이지만 체육의 발전도 이부분 일군들의 사상관점에 많이 달려있습니다.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들과 지도원들이 어떤 각오를 가지고 경기에 참가하는가에 따라 승패가 많이 좌우되는것만큼 체육에서도 사상전을 앞세워야 합니다.》

그이께서는 완강한 투지와 높은 속도의 배양이 또한 체육발전의 관건적 요소라고말씀하시었다.

《나는 체육부문에 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축구를 본보기로 내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체육에서 상징종목인 축구가 발전해야 다른 체육종목도 추켜세울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선 새 축구선수단을 하나 잘 조직해가지고 본때있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선수단의 이름도 전투적으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반일인민유격대를 무으신 4월 25일을 상징해서 4.25 축구선수단이라고 명명하자는겁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주먹을 쳐드시며 힘주어 말씀하시더니 명길현에게 선수단이름이 어떤가고 의향을 물으시었다. 명길현이 통속적이면서도 뜻이 깊은 그 이름이 마음에 든다고 말씀올렸다. 그러자 그이께서는 명길현쪽에 몸을 기울이시며 은근한 목소리로 말씀하시었다.

《길현동무, 어떻게 생각하오. 새로 조직하는 선수단에서 일해보지 않겠소?》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밝게 미소를 지으시었다. 그 신임, 그 기대가 너무나 크고 뜻밖이었던지 명길현은 멍해있다가 갑자기 꿈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정신을 차리고 허리를 굽히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고맙습니다.》

박룡태는 목이 메여하는 명길현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꼭 쥐었다놓았다. 고향에서 보낸 편지를 깊은 생각없이 대했던 자기의 경솔하고 무책임한 처사를 그것으로 사과하는것이였다. 그는 새 선수단의 기술부단장으로 되어 또다시 함께 일하게 되였다.

그때로부터 10 년이라는 세월이 쏜살같이 흘렀다. 하루가 열흘 맞잡이인 1970년대와 80년대의 모든 사람들이 그러하지만 청춘시절에 더 활짝 꽃을 피워야 할 체육인들에게 있어서 이 세월은 단순한 수자나 해수로만 평가할수 없는것이다. 명길현이도 시대의 거세찬 숨결을 몸으로 느끼며 살아 왔기에 시간의 귀중함을 누구보다도 절감하는듯싶었다. 것처럼 바라던 축구선수단을 지도하게 된 그는 자기의 재능과 정력을 깡그리 쏟아부었다. 물론 성과도 있었다. 박룡태는 명길현의 그 열정에 탄복했고 빛나는 성공을 의심치 않았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기본선수단을 내놓고 보다 젊은 후비선수들을 말짚다고 제기하지 않는가...

박룡태는 누군가 기척도 없이 방안으로 뛰어드는바람에 생각에서 깨어났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이번 국제경기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지도원들과 선수단책임일군들을 부르십니다.》

력기선수출신으로서 언제봐야 말이 적고 침착한 단장이 오늘따라 커보이는 눈을 둥글게 뜨고

약간 더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 그렇습니까.》

박룡태는 대변에 흥분상태에 빠져들어갔다. 마침내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몸가까이 뵈옵게 되는 영광의 그 순간이 차례졌구나 생각하니 벌써부터 심장이 급하게 뛰었다. 그런데 웬일인지 단장이 난감한 기색을 보이며 《그런데 저...》 하고 우물쭈물했다.

《무슨 일이 있습니까?》

《명길현동무를 함께 데리고 오라는 말씀이 계셨다는군요.》

단장의 얼굴표정이 굳어지는것을 본 박룡태는 가슴이 철렁했다. 혹시 그이께서 한승길이와 함께 명길현이도 이번 국제경기에 응당 참가했으리라고 생각하시는게 아닐가. 만약 그렇다면 참으로 난처한 일이었다. 박룡태는 벗들의 권고를 뿌리치고 기본선수단을 내놓아 쉽게 차례질수 없는 영예를 놓친것도 그렇거니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섭섭하게 만든 명길현이가 야속했다.

명길현이 지금 어디로 갔다는것을 아는 사람은 박룡태밖에 없었다. 그는 하는수없이 일행에서 떨어져 명길현을 찾으려 축구선수단숙소를 나섰다.

3

박룡태는 남철이라는 소조원뿐아니라 그의 어머니까지도 얼마간 알고있었다.

언제인가 한번은 명길현으로부터 축구소조의 한 소조원네 집을 함께 방문하자는 청을 받았었다. 육체적 준비는 좀 부족하지만 운동신경이 남달리 발달한 소년으로서 장래가 촉망되는데 어째서인지 그의 어머니가 애를 먹인다는것이다. 처음에는 3 대외독자에게 시킬것이 없어 하필 체육을 시키겠느냐고 내놓고 체육을 하찮게 보더니 요새는 아들의 체질적 약점을 내대고 소조활동을 못하게 한다는것이다. 듣고보니 담당지도원에게만 말겨들 형편이 못되었다. 박룡태는 단단히 베프며 명길현을 따라나섰었다.

무척 아련해보이는 40 대 녀인이 두사람을 맞이 했다.

남철소년이 훈련만 잘 받으면 틀림없이 훌륭한 선수로 될수 있으니 어머니가 잘 도와주어야 되겠다는 말을 듣자 녀인의 표정은 쌀쌀하게 굳어졌다.

《자식이야 그를 낳아서 기른 에미이상 잘 아는 사람이 있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 남철이가 이때까지 받은 육체적 부담때문에 앞으로 공

부하는데 지장이 있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녀인의 얼굴은 수심으로 하여 삼시에 흐려졌다.

박룡태는 녀인의 심정이 이해되면서도 서운한 생각이 들었다. 우려하는 녀인의 호소속에는 담당지도원에 대한 불신과 원망이 깔려있어 옆에서 보기에다 딱했다. 그러나 명길현은 조금도 내색하지 않고 진지한 태도를 보이려고 애썼다.

《그점에 대해서는 안심하셔도 됩니다. 선수단에는 유능한 전문의료일꾼들이 있어 선수들이 정상적으로 검진을 받고있답니다.》

《의사선생을 저도 만나봤어요. 아주 실무적인 분이더군요. 그 선생도 아마 우리 남철이가 밤마다 앓음소리하는걸 한번 들어봤더라면 생각이 달라질거예요.》

녀인은 고개를 반쯤 옆으로 돌리고 손님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웃고름으로 눈귀를 찌어냈다.

《아주머니, 훈련이 어찌 쉽겠습니까. 하지만 훌륭한 선수가 되자면 그 힘든 고비를 넘겨야 합니다.》

명길현은 앓음새조차 편안치 못했다. 그는 녀인이 남철이라는 축구소조원(그의 표현을 빌면 장래가 촉망되는 선수후비이다)을 채가지고 어데론가 도망치기라도 할가봐 겁나하듯 조바심이 들어 안절부절했으며 그래서 더욱 진지하게 설복을 했다. 그러나 이미 마음속으로 결심이 된듯싶은 녀인으로부터 공감을 받기는 어려웠다.

《거듭 부탁드립니다만 우리 남철이가 학교공부만 전념하도록 해주세요. 요새는 방안에서까지 축구공을 가지고 장난질인데 그러다가는 학교공부는 꼴찌를 하겠어요.》

명길현은 눈을 내리깔며 한숨을 쉬었다. 녀인이 남철의 건강을 우려한것은 하나의 가식이였고 체육소조활동을 하면 학교공부에 지장을 주는듯이 생각하는 물리해, 그것이 그의 본심이었던것이다.

녀인은 명길현이 말이 없자 자기의 설유가 효과를 거둔줄 알고 좀더 부드러운 표정으로 타협조로 말했다.

《보아하니 지도원동지의 년세도 적지 않으신것 같은데...가들이 제몫을 하게 된다면 그때에는 이미 할아버지가 되시겠는데...》

《아마 그때에 가서는 나라는 사람을 이 세상에서 찾아보기 어려울지도 모르지요.》

《그런데 무엇때문에 덕도 보지 못할 일에 그렇게 정열을 소모하시나요.》

명길현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회다못해 푸르스름한 얼굴빛이며 입귀에 실주름이 가늘게 펴리는것으로 보아 그가 몸

시 흥분하고있다는게 느껴졌다. 박룡태는 그 집에서 어떻게 뛰쳐나왔는지 기억되지 않았다. 그는 녀인이 명길현이가 아니라 자기의 얼굴에 침이라도 뺨은듯한 심한 모욕을 느꼈던것이다. 그런 인정머리 없는 녀인을 또 찾아가다니... 박룡태는 승용차의 첩판지붕을 가볍게 때리는 비소리를 들으면서 또다시 벼의 말년생활을 조용히 돌이켜보았다.

선수생활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지도원생활까지 명길현에게는 성공만이 아닌 쓰거운 실패도 없지 않았다. 하지만 그 어느 경우에도 그의 생활은 위선과 가식이 없는 성실성으로 충만되어있었다. 그러나 명길현은 인간적으로는 성실하다고 볼수 있으나 그 성실성을 밑거름으로 해서 얻은 결실은 없지 않는가?

박룡태는 명길현이도 계속 꽃을 피우고있는줄로 생각하시면서 쟁쟁한 한승길과 함께 불러주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하해같은 은정을 생각하니 가슴을 쥐어뜯고싶도록 안타까웠다.

새파란 섬팡이 눈부시게 번쩍하더니 뒤이어 우뢰소리에 온 천지가 떠나갈듯이 진동했다. 커다란 비방울이 후둑후둑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가로수들이 무엇인가 예고하듯 신비스러운 소음을 울리며 술렁거렸다. 하늘 한끝에서 우뢰소리가 점점 가까와 오고 그보다 더 가까운 하늘에서는 자주 섬팡이 번쩍거렸다. 썩아-하고 소낙비가 쏟아져내렸다.

박룡태는 엇비슷이 쏟아져내리는 대줄기같은 비발을 뚫고 주욱 뻗어나가는 전조등에 깨끗한 목책과 덕우에서 시들어가는 포도넝쿨, 화초밭의 소담한 국화가 한순간 드러나는것을 보고 승용차를 세웠다. 차에서 뛰어내렸다. 야멸찬 한 녀인에게서 자신이 당한것 같은 수치를 느끼면서 뛰쳐나왔던 그 낮익은 프락으로 명길현이 비척비척 걸어나오는것을 보았던것이다. 주인녀자에게서 이번에도 환멸을 느꼈는지 명길현의 낯색은 말이 아니었다. 그러나 박룡태는 전후사연을 묻고 따져볼 경황이 전혀 없었다.

《갑시다.》

박룡태는 제잡담 잡아끌었다.

《어데로 말입니까?》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동무를 부르시오.》

《저를 말인가요?》

명길현은 우뚝 떴어섰다. 그는 흥분할 때는 언제나 그러하듯이 왼쪽 눈섭을 찡그러붙이고 나직한 목소리로 재차 물었다.

《저를 부르신단 말입니까?》

《그렇소. 이번 국제경기에서 우승하고 돌아온

지도원들과 함께 일헌동무를 부르시였소.》

명길현은 너무나 뜻밖의 소식앞에서 전기에 치웠을 때처럼 얼떨떨해지고말았다. 그러나 질책하듯한 벼의 눈초리에서 바로 몇시간전에 그와 나눈 의미심장한 이야기들이 되살아났음인지 머리를 푹 떨구고말았다.

4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집무실이 아니라 영사막이 있는 그리 크지 않은 구경칸에서 박룡태일행을 기다리고계시었는데 거기에는 벌써 여러 일꾼들이 와있었다. 박룡태는 많은 사람들에게 에워싸여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와 이야기를 나누고있는 혈색좋은 한승길을 띠어보자 명길현을 앞에 내세울것인가 말것인가 잠시 망설였다. 명길현의 빛없는 말년생활을 료해하고 섭섭해하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생각하면 차라리 사람들의 그림자에 가리워 조용히 있는게 좋을수도 있었다. 그런데 그이께서 먼저 명길현을 알아보시고 한승길과 함께 랑쪽에 갈라앉히시였다.

박룡태는 가까운 뒤줄에 자리를 잡았다.

명길현의 건강상태며 가족들의 안부를 일일이 물어보시던 그이께서는 한승길쪽을 돌아보시며 이번 동남아시아에서 진행된 국제경기에 대한 자신의 소감을 말씀하시였다. 선수들의 기술, 육체적 준비상태며 팀의 전술운영상 특성에 대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해박한 관찰과 분석은 전문가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평화시기에 국력시위에서 체육이 차지하는 몫과 스포츠의 상징적 종목으로서의 축구의 중요성에 대한 그이의 심오한 정식화는 일꾼들로 하여금 생각을 깊이하게 했다.

박룡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활기를 띠고 이야기를 계속하실수록 손에 땀이 나는것을 느꼈다. 그이께서 한승길이뿐아니라 옆에 갈라앉힌 명길현을 상대로 이야기를 계속하셨던것이다.

짐작대로 오랜 경험을 가진 명길현이 이번에 국제경기에 참가했으리라고 믿으시는게 문명했다.

박룡태는 믿음과 사랑으로 충만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다정다감한 눈빛과 정찬 음성을 심장으로 느끼면서 멀리할래야 멀리할수 없는 벼-명길현에 대해 조용히 생각해보았다.

명길현은 선수생활도 오래했고 지도원생활은 그 보다 더 오래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그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의의있고 보람있던 시절은 지난 10년간일것이다. 그 10년동안은 삶의 보람도 생활의 희열도 미래에 대한 꿈도 있었다. 그

러나 너무나도 평범하고 조용한 그의 말년생활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해야 옳겠는가. 박용태도 처음에는 명길현이 후비팀을 맡겠다고 할 때에는 이해하는 점도 있었다. 손발이 굳어지기전에 훈련을 잘 주어 야 좋은 선수를 키울수 있다는것은 일반상식이였다. 그러나 그가 후비팀도 내놓고 나어진 소조를 맡겠다고 하자 생각이 달라졌다. 전망을 단언하지 못하는게 체육선수이다. 하물며 지적 수준이 어린 나어진 소년들의 전도는 그 누구도 확신하지 못한 다. 체육분야에 이런 특이한 사정으로 해서 선수선발을 위한 준비단계에 있는 소조원들은 은퇴전야의 나이 많은 지도원이나 새로 임명된 지도원들이 담당하는것이다. 그 사업을 한때에는 국가종합팀까지 이끌면서 국내외에 널리 이름을 날렸던 명길현이 담당하겠다고 나선것이다. 박용태는 후비육성을 중시하는 벼의 참뜻을 이해하면서도 그의 재능이 아깝고 동료들이 걱정도 해서 생각을 돌려줄것을 여러차례 권고했으나 듣지 않았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이번 국제경기에도 참가하지 못했고 그것으로 해서 응당 받아안을수 있는 영광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는가. 이제 명길현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그 엄청난 실책으로 인하여 생긴 자기 생활의 공백을 무엇으로 설명해올리겠는가. 얼굴색이 컴컴해지는것을 보니 명길현이 자신도 지나온 일들을 후회하는듯싶었으나 이미 때는 늦었다. 박용태는 명길현을 진심으로 도와주지 못한것을 자책하면서 조마조마해있는데 문득 그이께서 영화를 시작하라고 말씀하시였다. 조명등이 꺼지고 화면에 결승경기의 한 장면이 펼쳐졌다. 이미 신문지상과 지도원들의 소개담을 통해 박용태의 표상에는 어느정도 있는것이기는 하지만 화면을 통해 보니 일진일퇴의 공방전은 참으로 훌륭했다. 방어수들의 공격지원, 공격수들의 문전돌입은 나무랄데 없었다. 그중에도 좌측날개가 문선가까이 물고가다가 가운데로 넘겨찬 공을 공격수가 비호같이 달려들며 머리받기하는 장면은 높은 기교와 우아한 룰동이 신비할 정도로 조화를 이루고있었다. 머리받기한 공이 그물에 철썩 걸리는 순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박수갈채를 보내시였다.

《이렇게 훌륭한 장면을 혼자 볼수가 없어서 동무들을 불렀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영화가 끝나고 실내에 불이 켜지자 좌중을 둘러보시며 말씀하시였다.

(아, 그래서 부르셨구나!)

박용태의 얼굴에는 또다시 긴장한 빛이 떠올랐

다.

그 훌륭한 순간을 바로 명길현이가 마련해줄것을 바랬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이시고보니 더욱 송구스러워 머리도 쳐들수 없었다.

《나는 축구경기를 구경할 때마다 자기나름으로 공상을 해보곤합니다. 그 공상이 어떤것인고 하니 방금전에 본것처럼 공격구역에서 전술적 우세로 상대방의 방어진을 혼란시킨 다음 복식돌입으로 최종결속을 짓는것입니다. 이것은 전체 선수들의 높은 사상적 각오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사상전과 함께 투지전, 속도전, 기술전에 의해서만 실현될수 있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환하게 웃으시였다. 그이께서 오래전에 주신 가르치심을 다시금 주의깊게 새겨듣고있던 모든 일꾼들이 고개들을 버쩍 추켜들었다.

《사상전, 투지전, 속도전, 기술전...》

오늘의 빛나는 성과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이 현명한 가르치심에 의하여 이루어진것이다. 체육을 한계단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몸부림치던 그들에게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이미 심오한 사색이 집약된 승리의 열쇠를 안겨주셨던것이다.

《이번에 수고한 동무들을 표창할데 대해 말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박용태에게 물으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말씀대로 공로있는 동무들의 수훈내신서를 제출했습니다. 여기 명단이 있습니다.》

《어디 봅시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박용태가 올리는 문건을 재빨리 훑어보시였다. 낯익은 이름이 나오면 입속으로 그 이름을 조용히 외워보기도 하시고 때로는 밝게 웃으시며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시였다. 그러나 명단을 읽어나가시는 그이의 얼굴표정은 차츰 긴장으로 굳어지시였다.

실내는 물을 뿌린듯한 정적이 계속되는데 그이께서 넘기시는 종이장소리가 유별히 크게 들려왔다. 박용태는 그이께서 걱정애 잠기시는게 아닌가 해서 마음이 썩어져 은근히 조바심이 났다.

이윽해서 문건에서 눈길을 떼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누군가를 더듬어찾으시는듯한 차분한 눈길로 좌중을 둘러보시였다. 처음에는 체육지도 위원회와 4.25 축구선수단의 책임일꾼들로부터 이번 경기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지도원에 이르기까지 낮이 익기도 하고 설기도 한 일꾼들을 차례 차례 더듬어가시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명길현에게서 눈길을 멈추시었다. 바로 머리우에서 곧추 내려비치는 실내등에 명길현의 은백색 귀머리가 유난히 희게 보였다.

《명길현동무의 나이 올해 몇입니까?》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정다운 음성으로 물으시었다.

《하는 일도 없이 선여덟이나 먹었습니다.》

《선여덟이라... 그 나이에 선수들을 키우기가 조련치 않았겠는데...》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늙어가는 일군들을 대할 때마다 그러하시듯이 귀머리가 희속희속한 명길현을 보시니 불현듯 런던의 정이 끓어올랐던 것이다.

《세월이 흐르니 어차피 나이를 먹는것인데 어찌겠습니까. 중요한건 마음이 늙지 않는것입니다.》

《저는 늙지 않습니다.》

《그래야지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로년기에 있을수 있는 질병에 각별히 주의하라시며 문밖까지 명길현을 배래워주시었다.

방안에는 박룡태를 비롯한 체육지도위원회와 선수단의 몇몇 책임일군들만 남았다. 명길현이며 한승길들을 배래워주고 돌아오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그때까지 손에 쥐고계시는 수훈자명단을 또한번 세세히 훑어보시다가 혼자말 씁처럼 조용히 외우시었다.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명길현동무는 사십대의 쟁쟁한 시절이었는데 참 세월도 빠르군.》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빨리도 흘러간 10년간을 더듬어보시듯 두눈을 가늘게 뜨시었다. 벽찬 현실을 예민한 감각으로 투시하실 때 혹은 휘황한 미래를 심원한 사색속에서 무르익히실 때 그이의 표정은 그렇듯 온화하고 부드러웠던 것이다. 그러나 세세히 주시해보면 그이의 온화한 표정 한구석에는 딱히 짝이 이름할수 없는 무거운 그늘이 깔려있는듯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심려하시는게 아닌가?)

명길현의 일로 하여 내내 걱정하면서 마음이 조마조마해가지고 하회를 기다리던 박룡태는 가슴이 철렁했다. 하긴 1970년대와 1980년대를 줄곧 거세찬 기류속에서 줄달음쳐온것으로 하여 누구나가 다 지난날을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자랑스럽게 돌이켜보는 현시점에서 볼 때 빛없는 말년을 보내는 명길현의 구태의연한 생활에 그이께서 어찌 실망하지 않으시겠는가.

《하는 일도 없이 나이만 먹었습니다.》

명길현의 짓눌린듯한 목소리가 가슴에 파고들수록 박룡태는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그는 기회를 보고있다가 사죄하는 명길현의 심정으로 벗의 최근 생활을 세세히 말씀올렸다. 나이도 있는데다 선수생활을 할 때 다친 무릎관절이 애를 먹여 본인의 요구대로 축구소조원들을 말김으로써 성과를 거둘 기회가 없었다는것을 죄송스럽게 말씀올렸다. 그는 말씀올리면서도 명길현이 나아린 소조원들을 담당하고있음을 그이께서 이미 알고 계시는게 아닐가 하는데 생각이 미친것은 잠시뒤였다.

《길현동무가 한일이 없다...? 그래서 수훈자명단에 넣지 않았겠소?》

《명길현동무는 이번 국제경기에 출전하지 못했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도저히 믿을수 없으신듯 놀라운 눈길로 박룡태와 좌우의 일군들을 더듬으시었다. 무엇인가 가볍지 않은것이 그이의 마음속에 깊숙이 가라앉은게 분명했다.

방안에는 또다시 숙연한 침묵이 흘렀다. 숨가쁜 정적속에서 난생처음 그렇듯 옥죄여드는 긴장을 체험하며 박룡태가 고개를 쳐들었을 때 그이의 서늘한 시선에는 아쉬움과 깊은 우려의 빛이 서리어 있었다.

《나는 이런 일에 맞다들릴 때마다 우리 일군들이 앞에 선 사람만 보고 뒤에 서서 말없이 앞선 사람을 떠밀어주고있는 숨은 진실한 노력가를 보지 않는게 안타깝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생각에 잠기신채 방안을 왔다갔다 하시었다.

《우리는 방금 화면을 통해 공상으로 그려오던 훌륭한 경기장면을 보았습니다. 우리 선수들은 육체적 준비에서나 기술적 면에서 나무랄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들이 단번에 이루어진것은 아닙니다. 가슴아픈 실패와 피타는 노력을 거듭하는 과정에 오늘과 같은 알찬 결실을 볼수 있었을것입니다.》

그이께서는 가슴이 답답하신틀 숨을 고누었다가 계속하시었다.

《그래서 나는 명길현동무가 선수후비를 자진해서 맡아가지고 온갖 정성을 다 기울인다는 소식을 오래전에 듣고 이 동무가 결심을 단단히 했구나 생각하고 여간만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명길현동무야말로 오늘을 위해 일생을 하루와 같이 성실하게 바쳐왔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번 국제경기에 참가한 많은 성원들이 명길현동무가 금싸래기처럼 애지중지 키워온 선수들입니다. 동무들이 수훈자 명단의 첫 자리에 올린 한승길동무자

신이 길현동무에게서 축구를 배운 동무가 아니요.》

수첩우로 달리던 박룡태의 손이 얼어붙은듯이 굳어졌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말씀을 계속하시였다.

《명길현동무야말로 오늘의 성과를 위해 누가 보건말건 알아주건 알아주지 않건 수격수격 땀을 바쳐온 숨은 공로자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명길현...숨은 공로자...)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말씀을 심장속에 아로 새기듯 한자한자 적어나가던 박룡태는 가슴속이 찢눌하게 식어지면서 손이 움직여지지 않았다. 사람을 평가하는데서나 사업을 조직하고 집행하는데서 실수를 모르고 빈틈이 없다고 자부해오던 자기의 생활에 실은 엄청난 공백이, 그것도 용납하기 어려운 정신적 빈곤이 있었음을 비로소 느꼈다. 그는 마치 무아몽중에서 헤매이다가 문득 현실로 돌아온듯한 착각을 느끼며 혼신의 힘을 모아 정신을 가다듬고 그이의 절절한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내 늘 말하는것이지만 일군들은 앞자리에 나선 사람보다 뒤에 선 사람, 남의 눈에는 띄우지 않아도 진심으로 당을 받드는 사람, 나라와 인민을 위하여 성실하게 일하는 숨은 공로자를 찾아내어 내세워주어야 하는거요. 그게 씨먹은 진짜 배기 일군 이거든.》

박룡태는 만년필을 천재 깊은 회오와 자책에 잠겨 말없이 묵묵히 서있었다.

(뒤에 선 사람!)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그 뜻 깊은 말씀을 조용히 외워보느라니 불현듯 명길현의 순박하면서도 다기찬 모습이 우렷이 떠올랐다.

아름다운 수식사들로 공로자들을 평가해온 보고서들과 그 많은 속보판에도 이름 한번 올라보지 못한 그는 회의장은 물론 문화회관의 떠들썩한 동료들속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하지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사시장철 훈련장을 떠나보지 못한 명길현이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간곡한 말씀을 새겨듣고보니 그야말로 말없이 당을 받들어 온 성실한 사람-숨은 공로자였다.

명길현이 고향에서 올려보낸 편지건으로부터 그와 얹힌 가지가지 생활들을 꼼꼼히 돌이켜보는 박룡태는 얼굴이 화끈거려 머리를 쳐들수 없었다. 해발 2 천을 헤아리는 산상로천장에서 쓴 명길현의 편지를 한낱 구차한 자기 변명으로, 기본선수단으로부터 축구소조를 맡겠다는 제의를 리상이 낮은것으로 잘못 생각했던 박룡태였다. 하

기에 그는 벗의 말년생활을 그렇듯 쓸쓸한것으로 보았으며 쉽게 차례질수 없는 영예를 놓쳐버렸다고 못내 아쉬워했다. 오로지 인간의 운명에 대해 그렇듯 높은 책임감을 가지고 사람과 애정을 기울이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만이 사람들의 그늘에 가리워 잘 보이지 않는, 뒤에 서서 수격수격 위훈을 세워나가는 명길현이같은 충신을 알아주고 내세워주시는것이다.

박룡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인간에 대한 높은 책임감과 뜨거운 사랑을 매 순간 느끼면서도 그것을 생활실천에서 자기의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한것이 안타까웠다.

《부단장동무,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아직도 안색을 푸시지 못한채 자책에 잠겨있는 박룡태에게 물으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가르치심을 듣고보니 저희들 생각이 짧았다는게 느껴집니다.》

박룡태는 체육인답게 시원시원하게 대답올렸다. 그제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도 안색을 푸시였다.

《느꼈다면 좋습니다. 일하는 사람에게 왜 실수가 없겠습니까. 문제는 그 실수를 제때에 깨닫고 바로잡는게 중요합니다.》

《곧 바로잡겠습니다.》

박룡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용서를 비는 심정으로 지난날 하찮게 생각했던 일들, 무시하고 지어 타매했던 일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돌이켜보았다.

그 이튿날, 명길현이네 축구소조원들과 한승길이네 기본팀선수들이 같은 열차편으로 평양을 떠났다. 박룡태를 비롯한 축구선수단 간부들과 가족들이 떠나는 열차를 열광적으로 배웅했다. 다만 한 녀인만은 배웅하는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정거장울타리밖에서 손수건으로 눈굽을 훔치고있었다. 남철소년의 어머니였다. 박룡태는 아직도 우리 시대인간들이 어떤 자세를 갖추어야 성공의 상상봉에 오를수 있는가를 알지 못하는 그 녀인이 안타까웠다. 그러나 그 녀인도 언제인가는 이 정거장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들을 맞이할 때가 있으며 그때에 가서는 미처 리해하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과 많은 일들을 리해하게 되리라고 생각했다.

뚜-기관차는 비구름이 말끔히 가셔진 높고 푸른 하늘에 우렁찬 메아리를 일으키며 저 멀리 사라졌다.

나의 추억은...

박명빈

인간을 사랑하라

훈훈한 바람에 꽃이 피고
찬서리에 잎이 지는
그런 자연의 생명이 아니더라
인류의 사상과 정치
경제와 문화를 창조한 인간은-

인류 백만년에
지구우에 그 어떤 참사인들 없으랴만
사람이 생긴 그때로부터 오늘까지
광활한 세계 지구라는 행성우에
운명의 역사를 엮어온 인간

옛 신화에 나오는 노아의 홍수가
인간의 작은 두발의 걸음을
잠시라도 멈춰세울수 있었는가
고대 제국의 폭군 한니발의 살륙의 불길이
인간을 숯덩이로 날릴수 있었는가

수천년 관념과 숙명의
피어린 사슬에 결박당하였어도
인류의 자랑인
피라미트와 스프링그스를 후세에 남기며
인간은 누구나 살아 한생
자기 삶의 자국을 새겨왔나니

이런 인간을
만물의 주인
운명의 주인
역사의 주체로 내세우신분은
만민의 태양 **김일성**동지!
향도의 태양 **김정일**동지!

인간이 있어 세계가 빛나
인간의 활동이 있어 무궁한 미래가 있기에
이 인간을 안으시고
우리 수령님 헤쳐오신 길

우리 지도자동지 바치시는 로고
아 그 무슨 말로 다 노래할수 있으랴

해빛밝은 산원의 요람속에
갓 태어난 아기에게도
고고성 울리며 태어나는 그 시각부터
그의 작은 두주먹엔
우리 수령님과 친애하는 그이께서 안겨주신
자신의 운명이 쥐여져있고

비록 머리우에
흰서리 내린 늙은이에게도
가슴속엔
우리 수령님과 친애하는 그이께서 안겨주신
장생불로의 뜨거운 심장 고동치고있거니

인간 사랑의 태양
위대한 **김일성**동지!
인간 사랑의 해빛을 대를 이어 펼치시는
위대한 **김정일**동지!
그이의 숨결로 사는 인간
그이의 뜻으로 생각하는 인간

그이의 걸음따라 전진하는
인간의 대오
대하처럼 도도히 굽이치는 20 세기는
영생불멸의 자주시대

오, 이 세기의 날과 날에
시간과 시간에
분과 초 매 순간순간마다에
높이높이 울리여라

우리 수령님의 자애넘치신 음성
우리 지도자동지의 필생의 좌우명
인간을 사랑하라!

인간을 사랑하라!

그 목소리 봄우뢰 마냥
푸른 대지위에 생명의 금비를 주고
그 좌우명 철의 신념되어
장엄한 새 력사의 선언과도 같이
인류의 머리위에
창창한 하늘을 열어주나니

오-

인간을 사랑하라
세상에 노래가 있어
이보다 더 아름다운 노래 어데 있으랴
세상에 천만가지 말이 있어
이보다 더 빛나는 말 또 어데 있으랴

위대한 우리 수령님
한평생 부르시는 인간 사랑의 송가
온 지구를 뒤흔드는 시대
위대한 우리 지도자동지
대를 이어 높이 추켜드신
주체사상의 꺼지지 않는 불길이
온 세계에 노을을 펼치는 시대

이 력사의 시대에
나는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는
영예롭고 보람찬 초소에 섰나니
나의 이 행운을 그 무엇에 비기랴
우리 수령님과 우리 지도자동지

한생을 다바쳐 사랑하시는 인간에게
내 심장을 뽑아주어도
마음의 직성은 풀릴수 없으리

수령님 사랑하시고
친애하는 그이께서 아끼시는
인간을 위해
나의 전부를 다 바쳐갈
불타는 마음 굳어지는 신념안고
오, 나는
가장 깨끗하고 숭엄한 마음으로
삼가 나의 진정을 아뢰이노라

만민의 태양이신 어버이수령님이시여!
향도의 태양이신 **김정일**동지이시여!
인간사랑의 위대한 노래
저도 목청껏 따라부르렵니다
우리 수령님 한생을 지녀오신 이 노래
우리 지도자동지 대를 이어 부르시는 이 노래를

우리 수령님께서
피바다 불바다를 다 헤치시여
구원해주시고 안아주신 우리 인민을-
우리 지도자동지께서
위대한 인간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시고 빛내여주시는 우리 인민을-
저의 목숨처럼 아끼겠습니다
저의 한생을 다바쳐 사랑하겠습니다

수령님은 친어버이

우리에겐 계시여라
낳아키워준
부모의 그 사랑에 더하여
긴긴 세월
보살펴 키워주시는
친어버이...

내 아버지
내 어머니
가난에 쪼들리어
학교문앞에 나를 세울수 없었어도
어버이수령님 친어버이 되시여

우리를 배움길에 세워주셨나니

나 모르게
내 갈길 앞서 마련해놓으시고
자라면 자라는대로
희망의 나래를 흔혀주시며
과학의 넓은 하늘위에
활개쳐 날으게 해주신 어버이!

어떻게
낳아키운 내 어머니 내 아버지만이
우리에게 부모로 될수 있으랴

아버지 어머니 살뜰한 손길
늘 못닿던 그런곳에 계시며
우리 가는 길 축복해주신 어버이!

나는 마음속으로 외우노라

우리 가정의 매력 묻는다면
서슴지 않고
내 딸의 이름까지 지어주신
어버이수령님을
우리 가정의 친어버이라고

손

해저물던 저녁녘
어머니가 밥상에 불러들일 때까지
강기슭의 모래터에서
모래를 다져 집을 짓던
내 작은 조마구손

가슴에 붉은넥타이 날리던
인민학교시절
불타는 맹세속에
선서와 함께 부르쥘던
나의 손

수많은 회의들과
엄숙한 연단에서
조직앞에 집단앞에
말없이 손을 쳐들어
수천마디 말을 대신하던
나의 이 손

모래성을 쌓고
잠자리를 잡으며
이 손과 함께 유년시절이 흘렀고
연필을, 만년필을, 수술칼을...
이 손에 갈아잡으며
나의 청춘시절은 흘렀나니

그리하여
누구에게나 있고

누구나 느끼는
손에 대한 생각도
나에겐 범상한것이였건만

어버이수령님께선
이 손을 잡으시고
기쁘시여
대견하시여
《금손》이라 불러주셨어라

이 손을 이끌어
대학의 강의실에 앉혀주셨고
실습의 그 나날엔
수술수기를 쌓을수 있게 해주셨나니

강기슭 모래터에서
시간가는줄 모르고
장난으로 해저물던
시골소년을
인간의 생명을 위한 길에
땃땃이 내세워주신 우리 수령님!

우리 수령님
《금손》이라 치하해주시며
그처럼 내 손 높이 쳐들어주실줄
그처럼 높은 영예를 안겨주실줄...

아, 내 한생을 빛내여가리

금과 같이 빛이 나고
금과 같이 변함없이
아버이수령님 만수무강 위한

오직 그 한길에
영원히...

나의 추억은...

어린 시절
송아지동무들과 뛰놀던
그 우정 못잊어 자주 하게 되는
그런 추억이라면
내 이다지도 간절히 생각하라

젊은 시절
사랑하는 련인과 나란히 걸으며
내가의 달빛을 밟아가던
그런 추억이라면
내 이렇게도 가슴 설레이라

한생에 못잊을 추억이야
저 하늘의 별처럼 많겠지만
세월이 갈수록 더더욱 새로워지는
그런 추억이 내 가슴에 깃들어있어라

아버이수령님을 모셨던
그 나날들의 추억
아버이수령님 가까이에서
그 따사로운 손길에 이끌리어
그 빛나는 자욱을 따라걸으며
온몸에 뉘트로 새겨온 그 추억...

아버이수령님을
한번 뵈오면 그것을 못잊어
한생 추억중에서
가장 귀중한 추억으로
가슴에 고이 간직하건만

나에겐 그런 추억
한두번도 아닌
수많은 날과 달과 해로 헤아려야 하니
이런 행복을 안고 사는 사람
그 얼마나 되랴

이 손을 《금손》이라 불러주시며
명 의사, 인민의사로 키워주시고
의사는 인간생명의 기사라고
인간을 사랑하라고...
걸음걸음 깨우쳐주시던
자애에 넘치신 수령님의 말씀!

그 나날에 새겨안은 추억
이제는 내 온몸에
뉘트로, 피로, 숨결로 흘러
떨 수도
지울 수도 없으니

산이 바다로 되고
하늘과 땅이 바뀌인대도
그것만은
나의 귀중한 추억만은
영원한것으로 남아있으리

오, 그래서 추억이어
너는 영원히 지워버릴수 없는
우리 수령님에 대한 나의 시!
우리 수령님에 대한 나의 노래!

내 고향 《황금산》 이어

김광호

가없이 맑고 푸른 하늘아래
아득히 솟아오르는 황금산
내 나서 자란 고향아
어머니품아!

네 언덕에 뼈를 묻은 할아버지들
열손톱이 닳도록 칙뿌리를 캐며
산이 높아 별방처럼 못산다고
너를 두고 얼마나 원망했던가

단풍이 붉게 타는 어느 가을날
높고 험한 성골령을 넘으시여
멀고 먼 창성땅을 찾아주신
우리 수령님!

예지에 빛나시는 안광으로
높낮은 산발들을 둘러보시며
창성의 산들은 모두 《황금산》이라고
저 황금의 보물고를 열어제길
행복의 열쇠를 안겨주시었나니

오, 그이의 부르심
온 강산에 울려퍼지자
만년 잠들었던 산발들이 깨어나는듯
찬란한 해발이 쏟아져내렸다

그 해빛아래
끝안가득 그윽한 향기를 풍겨주며
머루 다래 송이송이 장생불로주 되고
이슬내린 고추밭엔 《홍보석》이 주렁지고
금나락 설레이는 논과 밭마다
열두삼천리별 두루미가 날아드는듯

산은 옛산이로되
황금의 메부리로 높이 솟아오르고
땅은 옛땅이로되
보화의 무더기로 빛나는 창성땅!

할아버지대에는 전설로 들어왔고
아버지대에는 꿈속에 그려보던
지상락원을
수령님께서는 이 땅우에
꿈아닌 현실로 펼쳐주시었나니

아, 두메산골사람들이
공산주의에로 가는 지름길이
여기서 열려지고
산간락원의 본보기가
여기에 솟아났어라

긴긴세월
비구름에 잠겨 빛을 잃었던
창성의 이름없는 산봉우리들을
주체의 해발아래 《황금산》으로 꽃피우시여
공산주의 지름길우에
불멸의 리정표인양 세워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구름우에 솟은 아아한 산발들이
그대로 《황금산》 탑이 되고
산마다에 흐르는 흰 양떼가
그대로 사랑의 이야기되어
수령님언덕을 만대에 길이 전하며
높이 솟아 빛나라, 내 고향 《황금산》 이어!

요람

에르난 알타미라노 팔꼬니

끝없는 밀림의 설레임
다정한 속삭임처럼
들려오고

무성한 나무가지 누비며
새벽안개 밀림을 감싸안는데
어디선가 물방울
재롱이나 부리듯
그이의 얼굴에 떨어져
웃음을 머금게 하네

언제나 정겹게 들으신 노래는
유격대원들 무기 닦는 소리
탄알 채우며
총창 가는 소리였다네

끝없는 꿈과 열정 솟구치게 한 그곳
빛나는 낮과 밤
흘러간 그 나날에
용감성과 철의 의지 다져주었나니
아, 백두산은 **김정일** 동지의 요람이었어라

그이께서 잠결에도 들으신 노래

(필자는 빼루 시인임)

가사

우리 당이 제일 좋아

전병구

사람들 누구나 어머니라 부르는
우리는 우리 당이 제일로 좋아
사람마다 한형제 그품에 안기여
이 땅의 모든 행복 우리 찾았네

기뻐도 어려워도 어머니라 부르는
우리는 우리 당이 제일로 좋아

아기처럼 안아주고 꽃처럼 피워주는
그 사랑 그 품밖에 우리 모르네

사람들 대를 이어 어머니라 부르는
우리는 우리 당이 제일로 좋아
안겨준 그 숨결로 심장은 불타올라
사랑의 그 품만을 지켜간다네

소원

1972 년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탄생
예순돛을 맞으시는 뜻깊고 경사스러운 해였다.
이해의 설날아침이었다.

만수대의사당에서는 뜻깊은 설날을 맞으며 국
가적인 성대한 연회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예술인
들의 경축공연이 진행되었다.

무대막이 열리고 소개자가 가볍게 치마자락을
끌며 미끄러지듯 걸어나왔다. 공연종목소개에 앞
서 그는 어버이수령님께 새해의 첫인사를 올리고
올해가 뜻깊은 민족적인 경사를 맞는 해라고 말
하였다.

그런데 연회참가자들은 소개자의 이야기를 새
겨 듣다가 그만 가슴이 철렁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예순돛을 맞는 뜻깊은
해》라고 해야 할 대목에서 너무 긴장했던 나머
지 소개자는 《선똥을 맞는 뜻깊은 해》라고 엄청
난 실수를 했기때문이다.

소개자는 자기가 너무도 큰 실수를 했다는것을
깨닫고 얼굴을 붉힌채 안절부절 못하였다.

해당부분 일군들도 그와 같은 심정이 되어 가
슴을 조이며 앉아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모신
그 엄숙하고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그런 실수를
했다고 생각하니 소개한 당자는 말할것도 없고
일군들도 당황하여 어찌할바를 모르고있었다.

그런데 이때 연회장에 앉아계시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슬그머니 일어서시더니 조용히
무대뒤쪽으로 걸어가시는것이였다.

일군들은 바늘방석에 앉은듯 초조하고 몹시 불

안스러웠다.

그도 그럴것이 소개자가 실수를 하며 소개한
그 종목이 몇해동안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고
심어린 지도를 주시여 창작된 노래 《수령님의 만
수무강 축원합니다》였기때문이다.

그토록 정력적인 지도로 이 노래가 완성되었을
때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몹시 기뻐하시며
이 노래를 위대한 수령님 탄생 예순돛을 맞이하
는 해의 신년경축공연에 특별종목으로 내놓자고
정해주셨었다.

무대뒤로 들어가셨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아무런 일도 없었던듯 천천히 걸어나오시였다.

그이께서는 일군들옆에 와앉으시였다.

일군들은 고개를 푹 숙이고 그 어떤 꾸중도 받
아들일 마음으로 가슴을 조이였다.

몇초동안 침묵이 흘렀다.

일군들의 가슴은 더욱 바짝바짝 조여들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잠시 깊은 생각에
잠기시였다가 그 동무의 말대로 올해가 수령님께
서 환갑을 맞으시는 해가 아니라 선똥이 되는 해
라면 얼마나 좋겠는가고 말씀하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이 절절한 말씀에 연회
참가자들과 배우들은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충성과 효성은 이처럼 송고하고 열화같았다.

위대한 수령님을 천만년 높이 모시려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뜻을 받들어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은 충성의 한길로 힘차게 나아가가고있다.

가사

소백수 맑은 물

조석영

흰눈이 내리는 백두밀영가
소백수 맑은 물 흘러흐르네
아 향도성 빛나오른 그날 못잊어
봄날처럼 물안개 곱게 피우네

숲속엔 눈보라 울부짖어도
정일봉 감돌아 물은 흐르네

아 영광의 봉우리 비껴 담으니
한겨울 추위에도 얼줄 모르네

이 세상 강물이 다 언다 해도
소백수 물만은 변함이 없네
아 영원한 봄빛을 누리에 펼치며
세월을 넘고넘어 흘러 흐르네

백두산밀영에서

한영호

내가 또다시 백두산밀영 건설장에 취재하러 간 것은 지난 5 월중순경이었다. 출장길에 나서면서 나는 며칠간 날씨가 따뜻해서 이제서야 몇길이나 쌓인 묵은 눈이 녹을가 하고 기대했는데 갑자기 또 눈이 오고 바람이 불기 시작하였다. 별방에서는 사과꽃 배꽃이 만발하는 5월이라 하지만 북방의 원시림은 여전히 겨울이다.

바로 한달전 백두산 룡환선도로건설을 위해 인민군병사들이 밀림속에 천막을 펼칠 때도 눈이 내렸다. 그때 나는 천막속에 취재가방을 내려놓으며 이렇게 생각하였다. 이제 5 월이면 눈이 녹고 풀들이 돋아 병사들은 백두밀림지대에 유명한 곰취로 쌈도 싸먹을수 있을거야.

그런데 순진하다고 할 내 생각과 달리 자연은 양보를 몰라 또 폭설이다. 곰취쌈은 곰취쌈이고 북방의 사나운 눈보라와 맞서 로반을 닦아나가는 병사들의 수고는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수메어나 쌓인 묵은 눈을 쳐내면 그밑에 두께를 가늠할수 없는 얼음장이 자리버텨를 한다. 폭파를 들이대면 한결 쉬우려만 병사들은 량심으로 그걸 허용치 않았다. 항일의 그날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 어머님의 손을 잡으시고 고향집과 지척인 이 숲속을 걸으신것만 같고 그 고귀한 발자취가 지금도 남아있는것만 같았기때문이다. 그날의 그 숲속 자연미가 병사들에게 소중한했다.

병사들의 불같은 열정에 얼음땅도 사정없이 밀려나 백두산룡환선도로의 기본구역인 백두밀영고향집으로 들어가는 로반이 자기의 체모를 갖추었다. 백수십키로메터에 달하는 천고밀림의 얼음땅이 단 한그람의 폭약도 없이 로반으로 닦아졌던 것이다.

력사의 그 고향집 그 동구길에 자기들이 있다는 가슴 후더움을 안고 병사들은 지금 도로를 련결하는 다리구조물공사에 한창이다.

세찬 바람에 밀림이 우-우- 소리를 치며 설레인다. 바로 이때, 눈보라이는 불타무술 사이로 웬 사람들이 이쪽으로 걸어오고있었다.

웬 사람들일까? 연회색 잠바며 코트를 입은 남녀들, 그들의 손에는 자그마한 공화국기가 쥐여져있다.

나는 비로소 생각났다. 백두밀영고향집을 찾아갔던 재일조선인조국방문단성원들이었다. 그때 그들은 추위속에서도 작업을 힘있게 밀고나가는 우리 군인건설자들의 결을 그냥 지나갈수 없어 자기들의 장갑까지 벗어 병사들의 손에 끼워주었다.

그런데 왜 이 길로 되돌아선것일까? 방문단의 다음 로정은 사자봉밀영이라 하지 않았던가? 혹시 사자봉밀영으로 통한 길목이 폭설로 묻혀버린 것일까?

지휘관들과 병사들은 그 걱정을 이기지 못해 일손을 멈춘채 그들에게로 마주 걸어갔다. 나도 그랬다.

《사자봉밀영으로 가는 길목이 눈에 막혔습니까?》

《참관로정이 변경되었습니까?》

군인들은 파랗게 언 그들의 손을 잡아주며 이 구동성으로 몰었다.

《그런게 아닙니다. 어쩐지 그냥 갈수가 없어서...》

방문단속에서 제일 년로한 동포상공인이 생각 깊은 미소를 지으며 머리를 가로 저었다. 그는 뜻밖에도 품속에서 네모반듯하게 접은 흰천을 꺼내었다.

《이건 우리 방문단성원들의 한결같은 마음이니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군인들의 호기심 어린 눈길이 그 천으로 쏠렸다. 무슨 천일까?...

구분대장의 손에서 천이 소리없이 펼쳐졌다.

순간 나는 저도 모르게 그 천 가까이로 한걸음 다가섰다. 그리고 거기에 포박포박 씌여진 글발을 급하게 읽어나갔다.

《모두다 영웅적으로 살며 투쟁하자!》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모두다 영웅적으로 살며 투쟁하자!〉, 이것이 **현시기 우리 당의 요구이며 우리가 들고나가야 할 구호입니다.**》

갑자기 목이 짹 메였다. 수없이 보고들어온 구호였으나 재일조선동포들의 품에서 나온 글발이 다보니 가슴속에서는 파도와 같은 설레임이 일었다.

밀림속에 모닥불이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다. 우리는 방문단성원들과 함께 그 주위에 빙 둘러앉았다. 백두밀림의 유명한 들쭉단물도 서로 권했다.

방문단속에서 한 젊은 녀인이 수집어하며 속삭였다.

《궁궐도 궁전도 아니였어요. 그이께서 탄생하신 고향집은 자그마한 귀틀집이었어요. 우린 그 귀틀집을 나서면서 조국의 그 어디에나 씌여있는 이 구호를 다시금 깊이 생각했답니다...》

젊은 너인의 아름다운 두눈에는 이슬이 맺히었다. 너인의 말을 이어주듯 동포상공인이 좌중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런 전투적인 환경에서 탄생하신 친애하는 **김정일** 선생님이시기에 오늘날에도 저렇듯 전투적인 구호를 높이 내세우실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조국인민들은 저 구호대로 살며 투쟁하고 있습니다. 우린 군인동무들의 모습에서 그걸 찾아 보았습니다. 우리가 저 구호를 군인동무들에게 드리는데는 여러가지 뜻이 있습니다. 중요하게는 우리 방문단성원들의 굳은 결의가 담겨져 있습니다.

군인동무들과 함께 그 결의를 맹세하고싶었던 것입니다.》

모닥불은 더 세차게 타올랐다. 백두밀영의 고향집에 대한 명상을 더 깊이해주려는듯 눈보라도 머리를 숙였다. 그러자 목화솜 같은 함박눈이 평평 내리기 시작하였다.

이 순간 밀림은 더 깊은 고요에 잠긴듯싶었다. 그 고요속에서 나는 구호가 썩여있는 그 천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았다. 그러자 정일봉아래에 소박하게 자리잡은 백두밀영의 고향집이 소리없이 내 눈앞으로 안겨왔다. 우리 당의 계승성에 대한 상징으로 투쟁에 대한 상징으로 내 가슴에 안겨왔다.

어제도 오늘도 래일에도 언제나 영웅적으로 살며 투쟁하는 우리 당의 신념, 이것을 날게 해준 투쟁의 고향이 백두밀영의 고향집이 아닌가. 혁명의 고향집을 곁에 두고 살며 투쟁하는 병사들이기에 백두산륜환선도로 2 단계 공사를 1 단계에 앞당겨 끝낼수 있는것이 아니라.

재일조선인조국방문단성원들은 떠나갔다. 그들은 만민이 우러르는 력사의 지점에서 혁명의 녀를 가슴깊이 새겨안고 조국통일을 위해 영웅적으로 살며 투쟁할 결의를 가다듬으며 다음 참관자인 사자봉밀영으로 향했다.

나는 그들을 배려하며 생각했다.

(정녕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탄생하신 백두밀영고향집은 누구에게나 혁명의 억세인 의지를 버려주고 키워주는 진정한 고향이구나.) 하고!

기둥

손광주

울울창창한 밀림속에
아름드리 구호나무
내 마음의 손길로 부여안으니
그날의 드높던 숨결
뜨거운 그 체온이 그대로 맺혀오는듯

위대한 한별따라 피끓던 심장들
조국의 밝은 미래를 맞이한
백두광명성의 탄생을 전하며
환희로 타끓던 그 맥박이,

세월은 얼마나 흘러갔더냐
폭풍이면 얼마나 너를 휩쓸고
눈비면 얼마나 너를 씻어내렸더냐

지울수 없었구나 이 글밭만은
너는 정녕
항일의 영웅들
그 마음의 별이었던가
그 념원의 불이었던가

그대로는 쓰러질수 없었구나

수천년 세월이 흐른대도
백두광명성 우러르던
그 피더운 맥박들 고이 뛰는
너 구호나무여

이 땅우에 향기론 하나의 열매
한떨기 꽃도
그저 무심히만 즐길수 없구나
눈비를 맞으며
피흘리며 쓰러지면서도 그려본
향도의 별빛 찬란한 오늘의 언덕에서
투사들이 이어주는 신념의 기둥을
한 가슴에 숭엄히 안고선 기쁨이어

아, 그날에 벌써
온 겨레의 가슴마다
찬란한 래일의 빛발을 안겨주고
신념의 기둥을 억세게 세워주며
세월을 넘어 이 땅우에 영생하는
너 구호나무여
위대한 내 조국의 영원한 기둥이
여기에 뿌리내려있었구나

하늘중천 밝은 달은 하나이건만

꽃잎우에 반짝이는 밝은 이슬은
방울방울 고여나는 내 눈물인가
밝은 달은 하늘높이 솟아있건만
이 세상은 캄캄하여 갈길 없구나

하늘중천 밝은 달은 하나이건만
땅우에서 보는 사람 서로 달라라
어떤 사람 달을 보며 즐거워하고
어떤 사람 달을 보며 서러워한다

달아달아 밝은 달아 기울지 말아
네가 지면 이내 몸은 어이될거나
나 혼자면 이 몸 던져 죽기도 하고
머나멀리 어디론가 없어지면만

앓고계신 어머니는 어떻게 되며
불쌍한 눈먼 동생 어떻게 되랴

명가사평(제10 회)

망국노의 설음을 진실하게 형상한 가사

-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의 가사 《하늘중천 밝은 달은 하나이건만》에 대하여 -

조인화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를 깊이 연구하고 그 진가를 찾아내는것은 가극예술발전뿐만아니라 가사문학발전에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가 그렇듯 거대한 감화력을 가지고 위도와 경도를 넘어 자주시대를 울리는 메아리로 된것은 이 가극이 만사람의 심장에 참된 주체의 혁명적 진리를 밝혀주어서만 아니다. 그것은 이 가극이 세월이 흘러도 빛을 잃지 않고 대를 이어 길이 전해질 주옥같은 가사, 명곡들로 충만되어있기때문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밝혀주신바와 같이 명가사가 있어야 명곡이 나온다.

가극의 기본형상수단인 노래들이 명곡으로 된것은 그 사상예술적 기초인 가사들이 명가사로 되어있기때문이다.

가극의 명가사들은 절가화되어 《피바다》식 혁명가극의 위력한 형상수단으로 되었을뿐만아니라 그 사상예술적 가치로 하여 우리 시대 가사작품의 본보기로 되고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명가사란 뜻이 깊고 형상이 잘되어 새길수록

많은것을 생각하게 하며 읊으면 저절로 노래가 되는 가사를 말합니다.》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의 모든 노래가사들이 그러하듯이 《하늘중천 밝은 달은 하나이건만》 역시 뜻깊은 사상적 내용을 꾸밈없는 생활정서로써 소박하고도 진실하게 노래한것으로 하여 품위 있고 특색있는 명가사로 되었다.

이 가사는 병들어 누워있는 어머니의 약을 구하기 위해 거리에 꽃을팔러 나갔다가 억울하게 도적의 루멍을 쓰고 매까지 맞은데다 지주놈의 간계로 팔려가는 몸이 되었다는 기막힌 사연을 알고 하늘중천에 높이 뜬 달을 바라보며 슬픔에 잠겨 맥없이 집으로 돌아오는 장면에서 주인공이 부르고 소방창으로 울리는 노래가사이다.

이 노래가 것처럼 사람들의 심장을 파고들어 비감을 자아내고 눈물을 흘리게 하며 지울수 없는 깊은 인상을 남기게 한것은 무엇보다도 가사가 일제식민지통치로 말미암아 도란에 빠져 허덕이는 우리 인민의 눈물겨운 정상, 기구한 운명을 정서적으로 깊이있게 일반화하고있기때문이다.

노래는 처음부터 망국노의 설음을 뼈아프게 체휼하고있는 꽃분이의 심정을 절절하고도 박력있

게 더뜨리고있다.

꽃잎우에 반짝이는 밝은 이슬은
방울방울 고여나는 내 눈물인가
밝은 달은 하늘높이 솟아있건만
이 세상은 캄캄하여 갈길 없구나

휘영청 밝은 달빛을 받아 꽃잎우에 반짝이는 이슬도 방울방울 설음으로 맺히고 밝은 달이 하늘높이 솟아있어도 살아갈 길 막연한 캄캄한 세상을 한탄하는 꽃분이, 살아서 살곳 없고 죽어서도 묻힐곳 없는 캄캄한 세상 한복판에서 의지가 지 할데 없이 갈길 잃고 몸부림치는 그의 눈물겨운 정상은 일제식민지통치하에서 착취와 압박을 받으며 죽지 못해 살아가는 우리 인민의 비극적 운명을 그대로 생동하게 보여주고있다.

가사의 2 절에서는 사람들을 절망상태에, 비극적 운명으로 몰아넣는 당대사회의 시대상을 밝힌데 기초하여 이 비극의 근본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밝히는데 시적 형상을 지향시키고있다.

하늘중천 밝은 달은 하나이건만
땅우에서 보는 사람 서로 달라라
어떤 사람 달을 보며 즐거워하고
어떤 사람 달을 보며 서러워한다

하늘중천에 떠있는 밝은 달을 바라보며 서로 다른 생각과 감정을 가지게 되는것은 그들의 계급적 처지가 다른데 있다.

그렇기때문에 어떤 사람은 달을 보며 즐거워하고 어떤 사람은 달을 보며 서러워하는것이다.

사람을 헌신짝처럼 여기며 팔고 사는 식민지 암흑사회에서 밝은 달을 바라보며 즐거워할것은 황금과 권력을 틀어쥐고 호의호식하는 지주, 자본가를 비롯한 한줌도 못되는 착취자들, 부자들이다.

그리고 밝은 달을 바라보며 서러워할것은 압박과 착취, 천대와 멸시를 받으며 헐벗고 굶주리는 가난한 사람들이다.

가사는 이처럼 모순에 가득찬 부익부, 빈익빈의 불평등한 사회현실을 폭로비판한데 이어 3 절

과 절구에서는 암흑의 세상에 생을 둔 사람들의 운명은 절망과 죽음이외에 더는 달리 될수 없다는것을 확증해준다.

달아달아 밝은 달아 기울지 말아
네가 지면 이내 몸은 어이될거나
나 혼자면 이 몸 던져 죽기도 하고
머나멀리 어디론가 없어지련만

앓고계신 어머니는 어떻게 되며
불쌍한 눈먼 동생 어떻게 되랴

하늘높이 떠있는 밝은 달, 달이 기울면 날이 새고 날이 새면 꽃분이가 끌려가게 된다. 하기에 그는 불안에 휩싸여 몸부림치며 죽고싶은 생각, 머나멀리 어디론가 사라지고싶은 생각까지 하게 된다. 하지만 앓고계신 어머님과 눈먼 동생을 생각하면 죽을래야 죽을수 없고 도망치고싶어도 도망칠수 없었다.

꽃분이에게 있어서 어머니와 동생은 삶의 전부였다. 그가 낮에 머슴살고 밤에는 유흥거리에 나가 꽃을 판것은 앓고있는 어머니와 눈먼 동생을 위해서였다. 그런데 앓고있는 어머니와 눈먼 동생과 리별할 시각이 다가오고있는것이다.

어머니와 동생과의 생리별, 이것은 꽃분이와 그 일가의 죽음을 의미하며 여기에 바로 생사기로에서 헤매이는 우리 민족의 슬픔과 고통, 비극적 운명에 대한 시적 일반화가 있다.

이 가사가 뜻깊은 명가사로 된 다른 하나의 비결은 심오한 철학성에 있다.

가사는 시대와 성격의 본질을 생동하게 드러내며 사람들을 깊은 사색에 잠기게 하는 심오한 철학성이 있어야 한다.

철학성은 말하려는 사상이 형상적으로 심화되어 사람들에게 시대와 삶에 대하여 두고두고 많은것을 생각하게 하는데 있다. 철학성은 가사의 2 절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되고있다.

하늘에 달은 하나이건만 땅우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의 계급적 처지에 따라 그것을 제나름으로 서로 다르게 보게 된다. 가사는 《어떤 사람 달을 보며 즐거워하고 어떤 사람 달을 보며 서러워한

다》고 함으로써 당대 사회 현실에 내재하고있는
량립할수 없는 모순관계를 철학적으로 깊이있게
밝혀낼수 있게 되었다.

철학성의 다른 하나는 이 가사가 종자의 요구
에 맞게 시대와 생활이 제기하는 절실한 문제,
세계의 주인이며 력사의 창조자인 인민대중의 정
치적 생명과 관련되는 사활적인 문제를 안고있는
생활을 탐구하여 시적으로 형상한것이다.

가사는 나라 잃은 인민의 운명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을 해명하는데로 시적 형상을 집중하고있
다.

《꽃잎우에 반짝이는 밝은 이슬은 방울방울 고
여나는 내 눈물인가》와 《이 세상은 캄캄하여 갈
길 없구나》, 《하늘중천 밝은 달은 하나이건만》,
《어떤 사람 달을 보며 서러워한다》, 《나 혼자
면 이몸던져 죽기도 하고 머나멀리 어디론가 사
라지련만》 그리고 결구인 《앓고계신 어머니는
어떻게 되며 불쌍한 눈먼 동생 어떻게 되랴》 등
의 표현을 통하여 볼수 있는바와 같이 가사는 망
국노의 설움을 안고 헤매이고있는 가궁한 모습과
비극적 운명을 생동한 시적 형상으로 보여주고
있는것으로 하여 철학성을 보장하게 되었다.

가사는 높은 시적 형상을 창조하는데서도 본보
기로 되고있다.

높은 시적 형상은 심오한 사상을 뜨거운 열정
과 풍부한 정서를 가지고 그려낼 때에만 창조할
수 있다

가사의 1 절에서 《꽃잎우에 반짝이는 밝은 이
슬은 방울방울 고여나는 내 눈물인가 밝은 달은
하늘높이 솟아있건만 이 세상은 캄캄하여 갈길
없구나》라고 함으로써 주인공의 생활체험세계를
가사의 첫머리에서부터 정서적으로 깊이있게 노
래하는 모범을 보여주고있다.

이처럼 이 가사가 명가사로 된것은 처음부터
풍만한 정서적 향기를 풍겨주는 높은 시적 형상
을 가지고있었기때문이다.

가사는 운률조성에 있어서도 본보기로 되어있
다.

가사는 절가의 특성을 살린 정형시인것으로 하
여 운률이 빈틈없이 짜여있다.

가사는 매 시행을 4, 4, 5 의 룰조로 통일시켜
나감으로써 서정의 흐름을 순탄하게 하였고 따라
서 격조 높이 읊을수도 있고 곡을 붙여 노래부르
는데서도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게 되었다.

가사는 또한 운률을 조성함에 있어서 《달아달
아 밝은 달아》와 같이 되풀이법을 쓰거나 《어떤
사람 달을 보며 즐거워하고 어떤 사람 달을 보
며 서러워한다》와 같이 대구법을 적용하였으며
《방울방울 고여나는 내 눈물인가》, 《이 세상은
캄캄하여 갈길없구나》, 《네가 지면 이내 몸은
어이 될거냐》, 《불쌍한 눈먼 동생 어떻게 되랴》
와 같이 수사학적 물음과 감탄법을, 《달아달아
밝은 달아 기울지 말아》와 같이 수사학적 부름법
을 리용함으로써 운률을 효과적으로 조성하고 음
악성을 살려낼수 있었다.

가사는 또한 통속성을 잘 살렸다.

가사는 주인공의 비극적인 체험세계를 우리 인
민이 늘 쓰는 민족적 색채가 짙은 말로 꾸밈없이
소박하고도 진실하게 표현하였다.

가사는 《하늘중천 밝은 달은 하나이건만》, 《어
떤 사람 달을 보며 즐거워하고 어떤 사람 달을
보며 서러워한다》, 《달아달아 밝은 달아 기울지
말아》와 같이 우리 인민이 즐겨 쓰는 전통적인
언어표현을 잘 살려씀으로써 민족적 색채를 돋구
어주고있을뿐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가사의 심
오한 사상정서적 내용을 쉽게 파악할수 있게 하
였다.

참으로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의 가사 《하
늘중천 밝은 달은 하나이건만》은 가극을 명곡으
로 충만될수 있게 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
는 명가사이다.

창작가들은 혁명가극에 나오는 명가사들을 가
사문학의 귀중한 재부로 여기고 전면적으로 깊이
연구하여 창작실천에 구현함으로써 시대의 요구
와 지향에 맞는 훌륭한 가사들을 더 많이 창작해
내야 할것이다.

《총돌격》의 구호를 볼 때마다

최춘길

북변의 철의 기지에 사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촘촘히 숲을 이루고 선 용광로며 해탄로, 전로들과 함께 강철 2 직장 벽판우에 《총돌격》이라고 새겨놓은 구호를 바라보며 흥분을 금치 못한다.

나도 역시 철의 기지에서 살면서 하루에도 수십번 보아오건만 《총돌격》, 이 구호를 볼 때마다 가슴이 뜨겁게 달아오름을 어쩔수 없다.

그것은 단순히 구호의 글 한자의 너비가 수백 평방미터나 되는 그 크기에 위압되어서만이 아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얼마전, 열간압연직장이 강관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는 소식을 듣고 취재를 떠났던 나는 구내공원에서 화판을 앞에 세워놓고있는 두사람을 만났다.

한사람은 압연분공장건설때에 연공반장으로 위훈을 떨친 로력영웅이 된 보수직장 직장장이였고 다른 한사람은 고등중학교 졸업반인 그의 아들이었다.

그런데 그들의 얼굴에는 심각한 빛이 어려있었다.

《이녀석, 네 눈엔 저 《총돌격》이라고 쓴 구호가 보이질 않냐?》

영웅직장장은 노기에 차서 강철 2 직장 벽판의 《총돌격》 구호를 가리키며 소리치듯 말했다.

내가 무슨 일때문에 그러는지 의아해하자 그는 짹-짹 소리가 나게 입술을 감쌀더니 아무 말도 없이 화판을 가리켰다.

야외에 가지고 다니며 그림을 그리기 쉽게 자 그만하게 만들어진 화판에는 그 아들의 솜씨인 강철 2 직장전경이 수채화로 그려져있었다.

아스렇게 높은 강철 2 직장의 지붕밑으로는 흰 증기가 뭉게쳐오르고 땅우로는 쇠물남비를 주런 이단 기관차가 용해장에 들어선다. 늘어선 철골들 사이로는 붉은 쇠물빛이 내뿜쳐 한껏 공중으로 퍼져간다. 《총돌격》 구호는 증기에 싸여 보일 듯말 듯 하였다.

나는 직장장의 이야기를 듣고서야 부자간이 심각해있는 속내를 알게 되었다.

자식에 대한 관심이 남달리 높은 직장장은 아들이 미술전람회에 출품할 그림을 그린다기에 나와 보니 그림에는 야금기지 로동계급의 투쟁을

보여 줄수 있는 초점이 없다는것이였다.

《저게 어떤 구호인데... 비록 세글자밖에 안되 구 증기때문에 어렴풋이 보여두 그림에는 환히 그려야 하는거야. 저 구호엔 이 야금기지 로동계급의 마음이 다 담겨져있단말이다.》

직장장은 담배를 붙여물고 한동안 묵묵히 태우더니 크고 검은 눈을 번쩍이며 타이르듯 이야기를 시작했다...

15년전 가을 어느날,

위대한 수령님의 지도밑에 진행된 한 회의에서는 김책제철련합기업소 확장공사문제가 토의되었다.

이른바 《경제대국》들만이 건설할수 있다는 대형 용광로며 련속식 소결로, 전로와 압연기지를 우리 힘으로 건설하여야 하는 공사는 아름에 찼다. 하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인민의 힘을 굳게 믿으시고 김책제철련합기업소 확장공사의 총돌격으로 온 나라를 부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부르신 《총돌격》, 이 명령은 불씨가 되어 사람들의 가슴과 가슴에 절대성, 무조건성의 세찬 불길을 지펴올렸다.

야금기지의 로동계급은 수백톤의 전로동체도 통채로 들어올렸고 산악같은 지하구조물도 단숨에 땅속깊이에 내려앉혔다.

갓 스무살의 처녀는 여섯달은 실히 걸린다고 하던 거물같은 75 톤기중기를 시오리나 능숙하게 이끌어 스무날만에 용광로건설장에 닿게 하였다.

《총돌격》, 이 명령속에서 제대군인인 용접공도 애송이 타입공도 취사원도 기적과 위훈의 창조자가 되어 1년남짓한 기간에 거창한 대형 용광로와 전로, 압연기를 수풀처럼 일떠세웠다.

그 나날에 야금기지의 로동계급은 《총돌격》의 명령속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말씀을 실천을 통해 관철하여 나날때만이 강철로 당을 받들어가는 자신들의 본분을 다 할수 있음을 심장으로 체험하였다.

그리하여 김철의 로동계급은 조업의 그날에 자신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만사람들이 다 바라볼수 있는 수십미터 높이에 붉은색으로 《총돌격》, 이 명령을 구호로 진하게 새겨놓았다...

내자신이 보고 들어서 너무나도 잘 알고있는 이야기다.

하지만 영웅직장장의 이야기를 다시금 듣는 나의 가슴은 수천톤의 쇠물을 품은듯 뜨겁게 달아올랐다.

어찌 건설의 그 나날뿐이라.

조업의 그 나날에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온 나라를 서해갑문 건
설에로 부르시면 서해갑문 건설장으로, 순천비남
론련합기업소 건설과 광복거리 건설에로 부르시
면 또다시 그곳으로 보내야 할 철강재의 톤수를
두고 《총돌격》, 이 구호아래서 우리는 주먹을
묵직이 쳐들었다.

그 주먹들이 장장대하로 이끌어낸 한톤한톤의
철강재속에는 참으로 가슴뜨거운 이야기들이 담
겨져있다.

류성같은 강관의 흐름도 더딘것만 같아 낮에
밤을 이어가며 고속압연을 실현한 압연공들과 기
술자들의 창조적 열정도 쇠물을 순간도 쉬임없이
끓이라고 한밤에도 용해장에 달려나와 기대를
알뜰히 정비하여준 용해공안해들의 따뜻한 지성
도 200 일전투의 그 나날들엔 새 기록을 창조한
퇴근길에서 꽃목걸이를 걸어주며 꼭 승리자가 되
여달라고 꽃잎같은 입술로 티없이 속삭이던 소년
단원들의 가슴 후더운 이야기들도 있다.

지금 이 시각에도 구내의 하늘을 붉게 물들이
는 쇠물빛 압연강의 무쇠기둥을 뒤흔들며 강관을
내미는 압연기의 동음, 《룡성》, 《순천》, 《사

리원》, 지명도 또렷한 강관화차를 끌고 구내를
떠나는 기관차의 기적소리에도 야금기지 로동계
급의 의지가 그대로 차넘친다.

아, 《총돌격》, 정녕 이 구호는 위대한 수령님
의 교시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말씀을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으로 관철하여온 야금기지 로동
계급의 투쟁의 기록이며 오늘도 래일에도 변함없
이 그 정신으로 살며 싸울 신념의 맹세이다.

나는 그제야 영웅직장장이 것처럼 품을 들인
아들의 그림에 《불합격》을 놓은 그 심정이 충분
히 이해되었다.

아들애도 아버지의 마음을 뒤늦게나마 깨닫고
는 또박또박 말했다.

《아버지, 전 그림을 다시 그리겠어요.》

《암, 그래야지!...》

직장장의 얼굴엔 흐뭇한 미소가 어리었다.

가슴이 세차게 달아오른 나는 그 애를 짹 품어
안았다. 그리고는 마음속으로 소리높이 웨쳤다.

《김철의 로동계급은 〈총돌격〉, 이 구호의 요
구를 신념과 의지로 새기고 언제나 더 많은 철강
재를 중요대상건설장들에 보내줄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말씀을
〈총돌격〉으로 빛나게 관철해나갈것이다!》라고...

나의 마음

리 석

당일군

나는 언제나

랑심의 빛을 지고사는 사람

웃는 사람의 얼굴을 보고도

그 기쁨의 참맛을 헤아려줄줄 알고

맑은 눈동자와 목소리를 들어도

그의 마음 어느 구석에

남모르는 시름이 비껴있지 않는지

헤아리는것으로

그때문에

나는 그 누구에게나

스스로 빛을 지고사는 사람

그래서 한사람을 만나도

만사람의 마음을 헤아려보고

사람들의 활기찬 걸음에서도

가야 할 길 먼저 생각해야 하니

나는 언제나

그 빛을 다 갚으려

국은일 마른일

어두운 밤길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함께 걸어가며

생활의 길잡이로

기쁨도 아픔도 함께 나누어야 하리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는 일

도와주고 풀어주지 않는다면

나를 어찌 참된 당일군이라 말하라

아, 인민과 함께

당의 뜻을 안고 숨쉴 때

사람들의 마음속에 나 또한

참된 인민의 총복으로

생활의 친근한 벗으로 정답게 자리잡으리

철창가의 민들레

림병순

1

107 호 감방에는 십여명의 미결수들이 있었다. 두길이가 넘는 높은 돌담장과 사면콘크리트벽체가 바깥세상의 모든것을 가로막아버린 찬 마루방에서 그들은 죄우리안의 짐승들마냥 자유를 잃고 자기들의 운명이 판결될 그 시각만을 기다리고있다. 여기에서 바깥세상을 바라볼수 있는것은 철창밖에 펼쳐진 작은 하늘이며 저녁한때 잠시 비졌다가 사라지는 노을이었다. 자유로운것은 오직 사색뿐이었다.

김덕수는 잠자리에서 눈을 뜨자 간신히 몸을 옆으로 뒤쳐여 철창을 바라보았다. 아직 어두웠다.

옆에서는 81 번이 자고있다. 그의 입에서는 침 없이 흐르륵거리는 고달픈 숨소리가 새나왔다. 미결감방에서 해를 넘겼다는 사나이다. 어느 대학의 교수였던 그는 벌써 몇차례나 법정에 끌려나갔으나 아직 이 감방에 있었다. 나이는 59 살, 이 방안에서는 그중 년장자다. 미결기간에 두번째 외국어를 거의 뗐다. 심장협심증으로 고생하던 안해마저 어느 새벽 그를 애타게 부르다 세상을 하직하였다는 교수에게는 면회자가 두팔밖에 없었다. 그에게는 어느 동료한테서 차입품으로 보내온 두툼한 독일어사전이 있었다. 이것이 잠자리에서는 베개를 대신했다.

김덕수는 열가슴이 켜지고 쭈셔나서 두손으로 움켜쥐고 다시 몸을 뒤쳐었다. 뼈마디들이 몽땅 엷빠여졌는지 화끈화끈 달아오르고 침질을 하듯 쿡쿡 쏘았다. 그는 심문끝에 데모의 배후조종자를 대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시무시한 지하고문장에 끌려갔었다. 처음에는 꿇어앉은 두다리사이에 몽둥이를 끼우고 구두발로 무릎을 밟았다. 그것으로도 성차지 않아 나중에는 꺼꾸로 매달고 물고문까지 들어댔다. 심신이 남갈지 못한 그가 어떤 초인간적인 힘으로 그 가혹한 고문을 견디여냈는지 자기자신도 알수가 없었다. 앞으로 고문은 계속될것이며 법정에서는 고문보다 더 가혹한 형벌이 들쭉날쭉할것이다.

그는 무거운 시름에 잠겨 조용히 눈을 감았다. 감방안에 숨소리가 잦아들고 고요가 깃들자 어디선가 뻗스소리가 들리었다. 새벽에만 들을수 있는 바깥소음이다. 그 소리는 온통 찢기고 피멍이진 몸으로 악몽과 번뇌 속에 시달리는 김덕수의 얼굴에 그 어떤 생기를 부어주었다. 뻗스소리가 사라지면 얼마동안 헤아릴수 없는련상의 세계가 사색속에 펼쳐진다. 감방안에서는 더없이

즐거운 시각이다.

김덕수는 그 새벽뻗스에 몸을 싣고와서 종일 차례를 기다리다 면회구에 나타났던 경주를 생각한다. 노란 자켓트를 입고 연한 풀색 머리수건을 목에 두르고 자기앞에 서있던 처녀는 눈시울에 고여오르는 눈물을 훔칠 생각도 없이 그냥 울고 있었다. 그 모양을 물끄러미 바라보고있던 김덕수는 슬며시 쇠창살사이로 손을 내밀어 련인의 손을 움켜쥐었다. 푸릇푸릇 피멍이 지고 찢긴 그의 이마며 손등을 보자 경주는 몸을 소스라치였다.

《...어쩌면 며칠사이에... 사람이 사람을... 저주스러워요...》

조심히 입술을 추겨가며 말하는 경주의 목소리는 금선을 뒹기듯 가늘게 떨리었다.

《너무 걱정마요. 감방이란게 별난게 아니요. 꽤 견딜만한데라요.》

김덕수는 눈물에 젖은 련인의 손등을 어루만지며 일부러 이렇게 말하고나서 여유있는 미소를 지었다. 젓빛같이 뽀얗고 윤택이 나던 경주의 살결에서 그전처럼 부드러운 촉감을 느낄수가 없었다. 마음고생 이 그 촉감마저 가시여 버렸는가?...

《아버지가 편지를 받고 고향에서 올라오셨어요. 어제는 검사까지 만나셨더군요. 며칠만 더 참아주세요. 보석으로라도...》

눈물에 젖은 처녀의 살눈썹이 그 어떤 기대를 안고 유난히 반짝이였다.

《고맙소. 하지만 소용없는 일이에요. 이 몸의 상처가 무엇으로 해서 생겼다는거야 간수들이 더 잘 알테니...》

《아니예요. 아버지는 검사한테서 담보를 받았다는가봐요, 잘 아는 사이더군요.》

《...》

처녀는 잠시 엷은 입술을 씹으며 덤덤히 서있는 김덕수의 기색을 살피었다.

처녀의 아버지는 전라도 어느 남해바다가에서 양식장을 경영하고있었다. 아들 5 형제속에 끼여있는 경주는 집안에서 부모들과 형제들의 각별한 애무속에서 자랐다.

《전 대학을 그만두기로 결심했어요. 아버지도 저의 의향을 들으시더니 꽤히 허락하셨어요.》

김덕수는 그 말에 손을 놓고 처녀의 얼굴을 의혹에 잠겨 바라보았다.

《놀라시는군요. 인제는 정말 감옥처럼 변해가는 대학이 혐오감을 자아낼뿐이에요. 이제는 수

백명의 경찰들이 강당에 달려들어 성토모임을 하는 학우들을 닥치는대로 검거해갔어요. 도대체 그 강당에서 무엇을 배운다는걸가요? 정말 저주로워요.》

이제는 처녀의 입에서 저주롭다는 말이 버릇처럼 흘러나왔다.

《조용히 살고싶어요. 석방되면 우리 바다가요. 홀로 지내시는 덕수씨 어머님도 모셔오고...》

낮으나 열렬히 속삭이는 처녀의 얼굴은 차츰 상기되었고 앞가슴은 흥분으로 오르내리었다.

《왜 말이 없으세요?》

《나에게는 지금 경주씨의 말을 듣는것이 더없이 행복하오. 어서 계속하오.》

《아이참...》

그 순간 옆에 지켜선 간수가 넓은 코날개를 벌름거리며 낮을 쫓그리었다. 못마땅한 기색이다.

《덕수씨, 석방되면 곧 고향으로 내려갈것을 약속해주어요. 덕수씨, 어머님이 불쌍해요. 덕수씨 없는 고향이 우리에게 행복을 줄수 없다는건 잘 아시지요?》

진정이 어린 처녀의 간절한 목소리는 뱅뱅하게 얼어붙었던 김덕수의 가슴속에 후더운 온기를 부어주었다. 이름대신 번호와 온갖 참을수 없는 인간이하의 학대로 찢길대로 찢긴 김덕수에게는 무엇보다 인정이 그리웠고 자기 존엄이 귀중했다.

그러나 그는 대답대신 한숨을 지었다. 경주는 금시 석방될것을 믿고있었지만 그에게는 그러리라는 믿음이 없었다. 혹시 검사나 변호사에게 퇴물을 찢러넣고 석방된다고 해도 그뒤에 따를 정신적 고통이 두려웠던것이다.

《피로워하시는군요. 저도 덕수씨의 심정을 이해할수 있어요. 하지만 감옥으로 가는 길만이 랑심을 지키는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경주씨, 그 이야기는 이젠 그만합시다.》

그다음의 화제는 같이 산책하던 대학가의 잔디밭이며 학우들에 대한것이였다. 그러나 이야기는 지속되지 못하고 덤덤히 끊어지는 가운데 면회 시간은 끝나고말았다.

그것이 사흘전 일이다. 김덕수의 머리에서 경주를 만났던 여운은 좀처럼 떠날줄을 몰랐다. 마루바닥에 누워서도 일어나서 81 번의 창백한 얼굴을 지켜보는 그 시각에도 그 생각은 겹칠기게 달라붙었다. 경주가 면회실에서 남기고 간 목소리는 그의 가슴에 화살처럼 박혀졌고 처녀의 살뜰한 체취는 향기처럼 온몸에 풍겨있었다. 들을 때는 피롭고 지어는 혐오감까지 자아내던 그 말이 지금에 와서 사나이의 무쇠같은 심장을 사정없이 헤집어 놓으며 런던의 정을 자아내는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다.

김덕수는 무겁게 피곤이 실리는 눈시울을 내리 깔았다. 순간 그의 눈앞에는 사랑하는 경주의

모습이 나타났다가 늙은 어머니의 모습으로 바뀌어졌다. 나날이 기울어져가는 한가정의 운명을 이악하게 뻗치고 나가면서 모든 기대를 자기한테 걸고 살아나가는 어머니였다. 그 모습은 다시 정다운 학우들의 모습들로 바뀌어지면서 미제와 로태우역도의 광주살인만행을 규탄하며 조국의 통일을 피타게 절규하던 목소리가 가슴에 파고들었다.

겹겹이 늘어선 기동경찰대의 저지선을 과감히 맞받아나갔던 학우들의 그 억센 손목에 또다시 족쇄를 채워 감옥으로 끌어간 파쇼악당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터져와 견딜수가 없었다.

김덕수는 다시 눈을 뜨고 분노로 달아오른 눈길로 철창을 쏘아보았다.

어느덧 흰한 새벽하늘이 비껴왔다. 이제 기상구령이 울릴것이다. 그러면 간수의 살기띤 눈초리가 너슬너슬한 담요 한끝에 몸을 가리우고 꼬부리고 누운 미결수들의 목덜미를 찌르며 청소요 뭐요 하며 소란을 피우며 돌아칠것이다. 덕수에게는 그 시각이 제일 싫었다.

2

배식구가 열리었다. 이어 고슬고슬한 콩보리밥 한해기가 차례졌다. 감방이 주는 최대의 《혜택》이다.

김덕수는 억지로 몇술 뜨다가 술을 놓았다. 그가 먹다만 그릇을 내놓자 기다리거나 한듯 커다란 손이 그것을 던치었다. 갓 들어온 잡범이였다.

《왜 먹지 않냐?》

81 번의 물음이다.

《속에서 반질 않습니다.》

《그래도 먹어야 하네. 여기서 먹는것도 하나의 고문을 이겨내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야 하네.》

《점심때부턴 먹어보겠습니다.》

식기들이 배식구로 빠져나가고 감방안에 또다시 정숙이 깃들자 간수가 나타나서 오늘 특별일파가 있으니 특히 감방질서를 잘 지켜야 한다고 한바탕 씨벌이었다. 드물게 보는 일과였다.

경찰당국은 그 특별일파에 비상한 지혜를 짜내고있었다. 가혹한 고문으로 랑심범들의 육신을 잔인하게 정복하려 하였다면 그 특별일파로써는 사람들의 의지에 상처를 입히고 정신을 정복하려고 꾀하였다. 그래서 종종 감방안에서는 상상할수 없었던 류다른 일과들이 꾸며졌다. 랑심범들에게는 그것이 채찍보다 오히려 더 무서운 고문일수도 있었다.

간수가 눈알을 부라리며 감시창을 향해 뚫어왔으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오늘은 심심치 않을거네.》

81 번이 레사롭게 말하며 묵묵히 감시창을 향해 뚫어왔느라고 오금을 꺾었다. 뿌드득뿌드득

뼈마디 꺾이는 소리가 들리었다.

간수의 날카로운 눈총이 창살처럼 81 번을 꿰뚫고있었다. 그러자 81 번은 별로 겁나하는 기색도 없이 태연히 옆에 놓인 사전을 집어들었다. 독일어단어를 외우는 교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김덕수는 그 소리때문인지 사색을 집중할수가 없었다. 간수의 구두발소리가 멀어지자 그는 간신히 꿰어앉은 다리를 풀고 고개를 돌려 또다시 높은 철창에 눈길을 던지었다. 그러면 작은 하늘이 던져주는 온갖 유혹에 빠져든다. 그 하늘밑에 얼마나 큰 세상이 있고 복잡한 인간생활이 펼쳐지고 있는것인가? 거기에 정의의 갈구하고 탐구심을 키워가던 대학가가 있고 거기에 그의 온넛을 사로잡고있는 어머니와 경주가 있었다.

지금의 김덕수에게 그 바깥세상은 가장 큰 동경의 세계였고 갖가지 공상과 사색의 즐거운 보금터였다.

그 공상을 싣고오듯 철창으로 솜털모양의 우산을 쓴 민들레씨 하나가 날아들었다.

《아, 민들레씨-》

김덕수는 자기도 모르게 입속으로 탄성을 올리고 있었다. 그러자 특별일파에 생각이 쏠리고있던 방안이 술렁거리기 시작하였다. 81 번은 부랴부랴 두툼한 사전을 번지였다. 아마도 민들레라는 단어를 찾는 모양이다. 근시경을 벗어두고 잠시 사전을 들여다보던 그의 우묵한 눈에 가벼운 미소가 어린다.

김덕수가 자리에서 일어나 손바닥에 민들레씨를 받쳐들었다. 감방안의 눈길들이 그한테 쏠리었다. 방금전까지 침울한 표정을 하고있던 사람들같이 않게 눈들은 빛나고 얼굴에 환희가 어린다. 티끌만한 풀씨 하나에서 온 봄을 감수하는 그들이었다.

《저 창턱에 놓게.》

81 번이 김덕수에게 하는 말이다.

《밖으로 날아나버릴텐데요.》

《아닐세. 거기에서도 뿌리를 내릴걸세. 민들레란 원래 국화과식물로서 생활력이 강한것이 특징이네, 어느 행가 저 창턱에서 민들레씨가 뿌리를 내린적이 있었다네.》

또 81 번의 장황한 해석을 듣자 김덕수는 손바닥에 놓인 민들레씨를 장난처럼 한들한들 날려보면서 시들하게 입을 열었다.

《믿을수 없는데요.》

《이건 사실이네. 일제때 서대문형무소의 한 감방에 사형을 언도받은 혁명가가 있었다네. 그는 혼자였지. 하루는 창턱에 민들레씨가 날아와서 틈바구니에 뿌리를 내렸는데 거기에 차차 흙먼지가 쌓이지 않았잖나. 민들레는 잎을 피우기 시작했네. 그러니 그 혁명가에게는 매일 그 민들레를 보는게 류다른 기쁨이었지. 모름지기 그 강한 생활력이 혁명가의 마음에 들었을거네. 그가

학살된후 어느 날 아침 그 창턱에는 민들레꽃이 활짝 피어났다네...》

이야기를 하고있는 81 번의 얼굴은 놀라리만큼 평온하였다. 그의 얼굴에서는 동정이나 번민같은 기색은 찾아볼수가 없었다.

김덕수는 가볍게 입김을 불어 민들레씨를 날려보냈다. 하얀 솜털우산에 실려 바늘귀같은 민들레씨는 서서히 천정으로 떠올라서는 이리저리 머리우를 배회하였다. 미결수들의 눈길은 일제히 민들레씨를 따라 움직이었다. 우울하고 침침하던 방안의 공기가 일시에 개변되었다. 감방이라는 보이지 않는 철쇄에 얽동이었던 생에 대한 환희와 갈망이 마치 씨앗을 달고 나는 솜털우산처럼 부풀어올랐다.

그러나 방안의 환희는 한동안 증축하던 간수의 구두발소리에 눌리워 다시금 잦아들고말았다. 미결수들은 입을 다시며 감시창을 향해 몸을 돌리었다.

감시창에 간수의 험상궂은 얼굴이 나타나더니 81 번을 호출하였다. 81 번이 나가자 감방안의 분위기는 긴장해지고 마음들은 어수선했었다.

김덕수는 허전한 눈길로 81 번이 앉아있던 자리를 살피었다, 별로 공간은 생기지 않았으나 바닥에 놓여있는 두툼한 사전은 그의 모든 체취를 그대로 풍기고있었다. 근시안경을 벗어두고 사전에 얼굴을 박고 단어를 찾군하던 81 번의 여원모습이 눈앞에 떠올랐다. 옆에 있을 때에는 무심히 지어는 시끄럽게까지 여겨지던 81 번이 사라지자 왜 그런지 자꾸 허우룩한 생각에 잠겨들었다. 법정에 끌려갔는가? 아니면 또 지하실에?...

김덕수가 81 번에 대한 생각에 잠겨있을 때 옆에서 주고받는 말소리가 들리었다.

《저 사람이 바로 법대의 송한우교수요.》

《무슨 일로 구속되었나우?》

《그건 모르겠소. 제노라는 법관들도 저 사람앞에선 입이 열어붙는다더군... 그래서 더 유명해졌소.》

《...》

감방은 다시 조용해졌다.

이윽고 간수들의 발자국소리가 어지럽게 들리었다. 간수들이 감시창앞에 텔레비존을 설치하느라고 한동안 법석이었다. 특별일파시간이 된것이다.

간수의 몇가지 주의사항이 있을끝에 감시창이 열리자 그자리에 텔레비존화면이 나타났다. 교도소의 면회장이었다.

지금 쇠창살이 드리운 면회구앞에 녀학생이 서있다. 아직 애리를 벗지 못한 그의 얼굴에는 온통 슬픔이 덮여있었다. 줄곧 면회구에 눈길을 쏘고있는 그의 검고 큰 눈가에는 벌써 이슬같은 물방울이 맺히었다.

어데선가 발자국소리가 들리고 쇠붙이 스치는 소리가 났다. 온 감방안의 신경을 자극하며 들리던 그 소리는 얼마동안 계속되더니 면회구에 와서 끊어졌다. 그 순간 쇠창살을 가리웠던 면회구가 열리었다.

안쪽에 수갑을 찬 사람이 서있다. 높은 이마와 술이 짙은 눈썹, 우묵한 눈확을 가리운 검은 안경, 때국이 오른 저고리 앞가슴에 81이라는 수자가 또렷이 새겨졌다. 그것만이 그의 모든것을 대신했다.

감방안은 잠시 술렁이었다.

81 번은 너학생을 보자 눈길이 온화해지면서 면회구까이로 한걸음 다가섰다.

《아버지-》

처녀는 와락 쇠창살사이로 두손을 들이밀어 81 번의 수갑에 채운 팔목을 부여잡았다. 쌓였던 물목이 터지듯 처녀는 자신을 견잡지 못하고 소리지르며 흐느꼈다.

81 번은 흐려진 눈길로 끝없이 오르내리는 처녀의 어깨를 지켜본다. 그는 한동안 딸의 손을 쓰다듬는다.

《연희야, 인젠 그쳐라!》

81 번의 목소리가 울리자 처녀는 옷자락으로 눈물을 닦고 얼굴을 들었다.

《경희도 잘 있느냐?》

처녀는 대답대신 고개를 끄덕인다.

《학교를 가겠지?》

《네, 오늘 같이 따라오겠다고 조르는걸 겨우 떼놓고 왔어요. 아버지, 언제면 집에 돌아오시나요? 요즘 경희는 아버지가 곧 나오신다고 잠도 안자고 기다려요.》

《...그래... 누가 돌아온다고 그러더냐?》

81 번은 수갑에 채운 두손으로 쇠창살을 부여잡고 허구쁜 미소를 짓는다.

《오늘 날 데리러 집에 왔던 사람이 그러는데 인차 석방된다고 했어요.》

《연희야, 그자는 거짓말을 한게다.》

81 번은 량미간에 주름살을 그으며 어린 딸을 지켜본다.

《그자들은 아버지보고도 그런단다. 거짓말을 하라고...그러면 석방시켜준다는거다. 너희들과 같이 살게도 해주고... 하지만 검은걸 희다고 할수야 없지 않느냐?》

그제야 어린 딸은 아버지의 웅심깊은 그 마음을 이해하는듯 잠잠히 생각에 잠기여 검은 눈을 습쩍거린다. 거짓을 가장 큰 수치로 여겨오던 아버지였다.

《그럼 아버지는 언제면?...》

《...》

딸은 자기의 물음이 헛된것임을 미처 알지 못하였다. 아무리 독재의 총칼로 정의를 가로막고 사회악이 인간의 량심을 짓밟는다 해도 아버지의

청백하고 순결한 그 마음을 이겨낼수 없다는것을 수학의 공식처럼 믿고있는 딸이었다. 그런 딸이기에 81 번은 더한층 괴로운듯했다.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아차린듯 딸은 81 번의 흐려진 얼굴을 찬찬히 살펴보다가 부끄럽다는 목소리로 나직하나 또렷이 말하였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량심을 버리지 않는 한 쉽게 집으로 돌아오지 못할거라고 하셨어요. 그러시면서도 림종때에는 것처럼 아버지를... 애타게...》

처녀는 얇은 입술을 사려물고 이악하게 설음을 이기느라고 안간힘을 썼다.

81 번은 그러는 딸의 모습을 보기가 힘겨운듯 슬며시 눈을 내리깔았다.

《나도 그걸 모르는건 아니예요. 어머니마저 돌아가시고 우리 둘이 남다보니...》

《연희야.》

81 번의 목소리는 갈리었다. 그는 아픈 상처를 건드린듯 쓰라림을 이기느라 모지름을 썼다.

《제가 아버지를 대신해서 경희를 돌보겠어요. 신문팔이를 해서라도... 난 모든 수모와 고생을 이겨낼수 있어요. 아버지가 몸만 성하시다면 언제까지도...》

《연희야, 고맙다...》

81 번은 불덩이같은 걱정을 삼키듯 말끝을 흐리며 어린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여윈 그의 손이 후들후들 떨리었다.

그러는 아버지를 위로하듯 딸은 더한층 밝은 기색으로 주저없이 말했다.

《어제도 거리에서 데모가 벌어졌어요. 독재정권을 비호하는 미국을 규탄했어요. 아마 아버지는 상상도 못하실거예요. 것처럼 큰 데모는 처음이었으니까요. 이젠 어머니대신 제가 구속자가족회에 찾아가 같이 데모할 작정이예요. 제가 아버지를 위해 할수 있는것은 그 길뿐이예요.》

별안간 뻘-하고 잡음이 들리더니 록음이 끊어지고 화면에는 물결형의 무늬가 란잡하게 흐르면서 그들의 모습을 순식간에 지워버리었다. 뜻밖에 부녀의 상봉은 놈들의 의도에서 탈선되고있었던것이다.

감방안은 마치 돌이 떨어진 수면우에 파문이 퍼져가듯 설레임이 일어났다.

김덕수는 세차게 이는 마음속의 파문에 자신을 견잡지 못한채 눈을 감고 가볍게 몸을 떨었다. 감방으로 가는것만이 량심을 지키는 길이 아니라던 경주의 말이 울리었다. 그러면 방금 그것을 부정하던 송한우교수 딸의 또렷한 목소리가 울리었다. 그것은 비록 웨치지도 않고 례사로운 어조로 아버지를 위안하는 말이였으나 그 소리는 김덕수의 가슴에 침질을 하듯 아프게 쏘여왔다. 그 딸을 자꾸 어루어듬던 송한우교수의 모습이 한층 돋우보이며 눈앞에 안겨왔다. 어느덧 김덕수

는 부끄러움에 잠겨들었다. 그것은 자신에 대한 혐오감에서 오는 것이었다.

3

심리작전은 계속되었다.

81 번은 감방으로 돌아와 또다시 근시안경을 벗어 들고 사전을 들여다보고 있다. 깊이 꺼져 들어간 눈확에서 눈동자는 생기없이 작은 글자들을 더듬는다. 마치 거기에서 마음의 쓰라림을 가셔 내기라도 하려는 듯.

김덕수는 이윽히 그 모습을 살펴보았다. 어찌면 그토록 태연할 수 있단 말인가.

지금 가설한 텔레비존화면에는 먼회구로 걸어 나오는 한 청년이 비치고 있다.

김덕수는 무심히 그 청년을 바라보다가 얼결에 그의 이름을 불렀다. 의학부생 정기석이였다.

그들은 전교적인 웅변대회연단에서 처음으로 낯을 익혔다. 대학에 새로 들어온 정기석은 그날 뛰어난 웅변술로 사람들을 현혹시켰었다. 키와 몸집이 알맞은 보통체격에 알팍한 입술사이로 거침없이 새어나오던 그의 연설은 설득력보다 감성적인 호소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의 사색은 웅심깊지는 못하나 대신 눈빛처럼 번뜩이였다.

그후 광주항쟁기념일에 대학강당에서는 무장한 경찰들이 둘러싼 가운데 추도모임이 있었다. 참가자들은 민주성전에 뿌려진 광주령혼들의 선혈을 헛되게 하지 말자고 저마다 연단에 뛰어올랐다.

정기석이와 나란히 앉아있던 김덕수는 온몸이 달아올라 그대로 들고있을수만 없었다. 그는 자리를 차고 연단에 뛰어올랐다.

《학우들! 피에 젖은 광주, 사무친 원한으로 눈감지 못한 광주의 령혼들이 지금 무엇을 속삭이고 있는가? 형제의 무참한 죽음이 목과되고있을만큼 우리는 타락하지 않았다. 아직 광주항쟁은 끝나지 않았다. 이 땅에 외세가 있고 독재가 있는 한 피로 물든 기발을 내리울수 없다. 학우들, 미국은 결코 우리의 벗이 아니다. 당국자들에게 살인만행을 부추긴 진짜 살인자는 바로 미국이다. 미국은 제 집으로 돌아가야 하며 이 땅에서 본단의 역사를 끝장내야 한다.》

김덕수의 입에서 것처럼 미국을 타매하고 통일을 피타게 절규해보기는 처음이였다. 그 웨침을 이어 김덕수는 학우들과 함께 데모에 나섰고 중무장한 경찰들과 맞다들어 싸움을 벌리였다. 그 데모에 정기석이기도 있었다. 그러나 데모는 증강된 전투경찰대에 의해 저지당하였다.

김덕수는 정기석을 따라 어느 호화주택의 구석방에 몸을 숨기였다. 정원까지 있는 그 집은 정기석의 삼촌네 집이였다. 그는 여기에서 이를

을 자고일면서 정기석이와 함께 자기들의 앞길을 개척해볼 의논도 하였다.

누워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궁싯거리고있는 김덕수에게 정기석은 말했었다.

《덕수, 자나?》

《아니.》

잠시 정기석의 높은 숨소리가 들리였다. 그는 또 말하였다.

《우리가 뭐 주모자라도 되었던 말인가? 난 네 거리에 뗏뗏이 나설테네.》

울분에 그의 목소리는 좀 떨리였다.

김덕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애당초 데모에 나선것이 누구의 추동에 의하여서가 아니였기에 그가 주모자를 운운하는데는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우리는 죄인이 아니란 말이네. 민주통일을 웨치는것이 왜 죄란 말인가? 뗏뗏이 나서서 우리의 정당함을 납득시켜야 하네.》

《로태우가 납득하기전에 자넨 감옥에 끌고가지 않을가?》

김덕수의 말소리는 어이없이 울리였다. 이 《걱정 말게. 경찰이 나를 감옥으로 끌어가지는 못하네. 절대로...》

정기석은 그 무엇을 확신하듯 이렇게 말하고 자리를 차고 일어났다. 당장이라도 나설 잡도리였다.

그러는 정기석의 옷자락을 슬며시 잡아당기며 김덕수가 조용히 타일렀다.

《진정하게. 성급히 그러지 말고 우리 더 생각을 해보세.》

그런데 뜻밖에도 새벽에 그들은 사복경찰의 손에 넘어갔던것이다...

김덕수는 긴장한 눈길로 정기석의 거동을 살피였다. 그동안 좀 두드러진듯싶은 광대뼈에 멍이진 흔적이 보이였으나 심한 상처같지는 않았다. 입술은 닫겨서 시름에 잠긴 표정이다.

먼회구밖에는 50 이 되나마나한 사나이가 서있었다. 요란한 차림새로 보아 보통 공무원이나 회사원같지 않았다.

그는 정기석이가 가까와지자 세모진 눈으로 그의 행색을 훑어지게 살피고나서 먼저 입을 열었다.

《인젠 정신을 차렸니?》

첫마디부터 추궁하는 어조다.

《...》

《내가 뭐라든. 너의 생각처럼 세상은 그렇게 단순한것이 아니야. 데모나 하고 통일을 부르짖는다고 무슨 변화라도 생길줄 알았냐? 한다하는 정치인들도 지금은 모두 입을 다물고 대세를 관망하는데 하물며 철부지인 네가 세상을 뒤집어보겠다고...》

네모나고 희멀쭙한 사나이의 얼굴에는 마치 채

찍을 들고 타이를 때에 짓는 그런 랭소가 어려웠다.

《방금 졸업을 해야 할 때 그게 무슨 망둥이나 말이다. 사람이 제 할 소릴 다 하며 산다는건 불가능한거야. 생활에서 만족이란 없듯이 정치에서도 마찬가지지.》

《삼촌, 그만하십시오.》

정기석은 참을성있게 사나이의 말을 듣다 견딜 수 없는듯 애원조로 말했다. 그러나 사나이는 정기석의 말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주머니에서 명함 한장을 꺼내주며 더한층 단호하게 일렀다.

《잠자코 내 말을 듣거라. 오늘 이 사람을 불러달라고 해. 그리고 공손하게 죄다 말해라. 지난날의 행동은 다 일시적 흥분이었다는것을... 그리고 다시는 그런 일에 머리를 쓰지 않고 학업에 충실하겠다는걸 담보해라.》

줄곧 발밑을 굽어보고있는 정기석의 태도는 모든것을 체념해버린듯한 인상이다. 그 모양을 지켜보자 슬그머니 울화가 돋친 사나이는 또다시 따지듯 물었다.

《왜 말이 없냐? 어서 대답을 해.》

《그건 저의 량심이...》

그러자 사나이의 얼굴에는 랭기가 어리고 눈길은 다시 곳곳이 굴어졌다.

《량심? 도대체 량심이라는게 뭐냐? 요즘 그걸 내걸고 모두 성인군자처럼 행세하려드는데 가스로운 일이다. 이 철부지야. 량심이란 썩은 이발과 같은거야. 빼버리면 아프지도 않고 편안할것을 공연히 몸에 붙이고 다니면서 고통을 받고있거든.》

얼변을 토하던 그전의 정기석이라면 그 말이 떨어지기전에 엮은 입술이 경련에 떨고 분별없을 정도로 절규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을것이다. 그런데 정기석은 여전히 고개를 떨군채 묵묵히 이야기를 듣고있었다.

그것을 지켜보는 김덕수의 얼굴은 온몸의 피가 한꺼번에 모여든듯 붉어지고 화끈거려였다. 마치 자기가 모욕을 당한듯한 심정이었다. 모욕하는 사나이보다 오히려 모욕을 순순히 감수하는 정기석이가 놀라왔다. 그전의 정기석은 온데간데 없고 마가울의 무서리처럼 변해버린 정기석이었다. 김덕수의 체내에서는 한층 빨라진 맥박이 툭 툭 소리를 내며 뻘뻘었다.

사나이는 숙어든 정기석의 기색을 보자 한결 누그러워진 어조로 타일렀다.

《풀려나오면 마주앉아 이야기할 기회가 있지. 그때 졸업후 직업문제도 의논해보자. 총장선생한테도 네가 마음만 돌리면 과거는 다 백지화하겠다는 담보를 받았다. 그러니 꼭 오늘중으로 그 사람을 불러라. 그러면 모든걸 용서할게다. 알겠냐?》

《그렇게 하지요.》

분명 정기석의 입에서 흘러나온 대답이었다. 그 말은 마치 김덕수에게 선전포고처럼 가슴을 더한층 아프게 찔러왔다. 웅변을 토하던 그 눈빛, 그 목소리가 어찌면 저리도 흐리었고 떠듬거리는것일까? 그러자 김덕수는 그때의 정기석의 언행은 모두 량심의 기만이었고 허위였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것은 거짓이었다.

면회는 끝났다. 아직 시간이 남아서인지 면회구는 열려있었으나 중년사나이는 아무런 미련도 없이 모자를 눌러쓰고 바삐 면회실에서 나가버렸다. 정기석이도 총총히 안으로 사라졌다.

그동안 면회자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있던 81 번이 면회구가 닫기자 갑자기 어이없는 웃음을 터뜨려였다.

《허허... 썩은 이발이라... 그 사람이 대단한 철학자인걸그래.》

교수는 또다시 사전을 뒤지였다. 이번에는 무슨 단어를 찾는지 오래동안 뒤적이다가 비로소 입속으로 되뇌이였다.

《이 사전에는 이렇게 써여있소. 량심이란 자기 행동에 대한 도덕적 책임감을 느끼는 마음...》

81 번의 얼굴은 류다르게 이그러지고 목소리는 낮게 떨리였다.

김덕수는 81 번의 해석이 시작되자 마음이 켜져 나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숙여버리였다. 귀가에는 정기석이 중얼대던 말소리가 사라지지 않고 마음을 괴롭혔다. 수치감은 잦아들지 않고 그의 어린 가슴벽을 쳤다. 그것은 기만당한 량심의 울부짖음 이였다. 정기석의 모든것이 의심스러웠고 그것이 기만이고 가식이었다는 확신이 들자 수치감은 분노로 바뀌면서 가슴이 후둑후둑 뛰었다. 그는 눈을 조용히 내리뜨고 끝없이 파동치는 가슴을 달래였다.

81 번은 또 말을 계속하였다.

《나는 이 사전에 해석을 첨부한다면 그것은 도덕적인 의무감일뿐아니라 자기의 정당한 행동에 대한 신념이며 의지라고 덧붙이고싶소.》

지금까지 그의 입에서는 들어볼수 없었던 단호한 어조였다. 좀처럼 자신의 견해나 감정따위를 나타내지 않던 그에게서 이처럼 그 무엇을 부정하거나 자신의 견해나 주장을 선포하는 경우란 찾아볼수 없었다.

김덕수는 놀라운 표정으로 81 번을 바라보았다. 언제나 여유가 있고 태연하던 그의 얼굴이 불평을 받은 때처럼 상기되었고 이마위의 시퍼런 피줄기는 푸들푸들 뛰었다.

《나는 량심때문에 이 감방에서 해를 넘겼소. 썩은 이발처럼 뽑아버렸다면 아마 나한테도 단란한 가정이 있었을게요. 그리고 대학의 강당에 다시 섰거나 또 화려한 생활이 마련되었을지도 모르오. 그 모든것이 나를 유혹했고 형리들이 그것을 강요 했소. 그러나 나는 그것을 다 잃은대신

인간으로 남아있게 되었소. 신념의 인간으로…»

그는 지금까지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입밖에만 적이 없었다. 무슨 일로 구금되었는가고 물으면 그저 쓸쓸히 웃으며 화제를 돌리든가 아니면 자기 자신도 알수 없다고 대답을 피하였었다. 면회자도 별로 없고 차입품도 없는 그에게 동정을 표시하는 경우에도 그는 자기의 사생활에 대하여서는 한번도 이렇다하게 암시해준적도 없었다. 그러던 81 번이었다.

《나는 공산주의를 동조하였다는 리유로 이 감방에 끌려왔소. 나는 어떤 기회에 주체사상에 대한 책자를 읽게 되었소. 그것은 **김일성** 주석께서 창시하신 인간중심의 가장 걸출한 철학이었소. 이 나라 민족의 넋을 구원할 위대한 사상이 거기에 담겨있었소. 처음에는 그저 황홀하였소. 그후 주체사상의 진리성에 심취되었고 그 리념에 끝까지 충실하겠다는 하나의 신념이 나를 휘어잡았소.

그런데 경찰당국은 나에게 그것을 부인하는 강의를 할것을 강요하였지. 그러면 명예도 안락도 차지할수 있다고… 나는 단호히 거부하였소.》

81 번은 어느덧 흥분된 기색으로 감방안을 둘러보았다. 그는 흘러내린 안경을 손으로 밀어올리고 또 이야기를 계속하였다.

《그러자 경찰들은 내가 어떤 지하조직과 련관된 인물이라고 갖은 고문을 다 들이댔소. 오늘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이남땅은 물론 세계적인 판도에서 날마다 늘어나고있는것을 그자들은 알수가 없소. 난 떳떳이 말했소. 그 지하조직은 다른데 있는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심장속에 있다고… 그 값으로 내 육신은 이렇게 으깨여졌지만 대신 나는 참된 인간으로 남아있소.》

81 번은 이야기를 마치자 고문에 어혈진 앞가슴을 그려안고 기침을 낫였다. 아픔을 참느라고 주름이 패인 그의 이마에서는 진땀이 내배였다.

김덕수는 81 번이 던진 중압에 눌리워 고개를 숙이고 무거운 자책감에 잠겨들었다. 자신만이 견결하고 자신만이 의롭다고 생각한탓에 것처럼 가혹한 고문과 시련을 겪으면서도 굳세고 정의의 인간으로 남아있는 81 번의 그 숨겨진 마음을 볼수 없었다. 그는 무거운 죄책감이 가져다주는 피로움과 함께 그 어떤 숭엄한 세계에 잠겨 81 번을 바라보았다.

숨털우산을 달고 날아다니던 민들레씨는 언제 내렸는지 마루바닥에서 한들한들 춤을 추었다. 그것을 보자 81 번이 손바닥에 올려놓고 잠시동안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창턱에 올려놓았다. 그리고는 흙먼지를 손가락으로 뽁뽁 긁어서 그 틈바구니에 모으기 시작하였다.

《이제 민들레는 창턱에 뿌리를 박고 꽃을 피우게 될거요.》

김덕수는 또다시 확신하듯 말하는 81 번의 의아스럽게 생각되었다.

그러자 81 번은 잠시 침묵끝에 나직이 말했다.

《서대문형무소의 감방에 민들레꽃이 피었던것은 사실이요. 그 감방에는 **김일성** 장군님의 친솔부대에서 싸우던 유명한 혁명가가 있었소. 적후에서 정치공작을 하다가 그만 변절자의 밀고에 의하여 체포되었지. 일체교형리들은 그에게 전향하면 살려준다고 유혹했소. 혁명가의 의지를 오산했지. 생의 마지막 시각이 오자 그는 감방안의 사람들보구 이제 철창가에 민들레꽃이 곱게 피어날것이라고 웃으면서 말했다고. 혁명가는 그때 벌써 광복의 새봄을 온몸으로 감수했던거요. 지금 그의 동상이 수많은 혁명가들과 함께 평양에 있는 혁명렬사릉에 세워져있다고. 비록 몸은 갔으나 그는 오늘도 **김일성** 장군님의 전사로 영생하고있소. 력사는 감옥이 독재자들의 폭압수단으로 는 되었을망정 의로운 량심을 굴복시킬수 없었다는것을 보여 주고있소. 오늘 이 감방안에서 벌어지는 온갖 비렬한 책략은 밀뿌리채 흔들리는 저들의 파쑈체제를 유지해보려는 꼭두각시극에 지나지 않소. 놈들은 이 감방에 텔레비존까지 동원하여 우리들의 의지를 꺾어보려고 교활하게 책동하였소. 그러나 놈들은 오산하고있소. 서대문형무소에서 항일전의 그 투사가 감수한 광복의 새봄이 끝내 이 땅에 오고야만것처럼 머지않아 조국통일의 봄도 꼭 오오. 이건 력사의 법칙이요.》

흘러내린 안경을 손가락으로 밀어올리는 81 번의 얼굴은 흥분으로 하여 붉게 살기되었다. 그 모습은 지금껏 볼수 없었던 새로운 모습이었다. 인간의 량심을 희롱하는자들앞에 인간의 참된 량심을 보여주려는 81 번의 모습이였다. 감방의 갖은 학대로써도 온갖 유혹으로써도 지워버릴수 없는 그의 진모습이었다.

김덕수는 81 번이 던진 파문에 온 넋을 싣고 그가 하던 이야기를 꼼꼼히 되새겨보았다. 그에게는 모진 풍파속에서도 자기의 모습을 보호해주고 기동처럼 떠받쳐주는 위대한것이 존재하고있었다. 그것은 사형장으로 끌려나가는 그 순간에도 생활을 가장 아름답게 감수하고 변함없이 간직했던 혁명가의 고결한 신념이었다. 그것이 81 번의 모습을 그토록 당당하고 빛나게 만들어준것이 아니겠는가?

김덕수는 이 땅의 민주와 통일을 부르짖던 성토모임의 연단에서도, 데모를 하던 항쟁의 거리에서도 생각지도 못하고 알수도 없었던 그 어떤 새로운 진리를 발견한것만 같아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다. 그러자 안정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던 김덕수의 마음이 뿌리를 내린듯 조용해지고 파문이 일던 가슴은 숭엄한 그 무엇으로 묵직해났다.

4

이튿날 아침 김덕수는 간수의 호출을 받았다. 면회 올 날자도 아닌데 뜻밖의 호출에 그는 어리

등절하여 엉거주춤 자리에서 일어났다. 감방안의 미결수들도 모두 의아한 눈길로 김덕수를 지켜 보았다. 감시창가까이에 앉아 사전을 들여다보고 있는 81 번만이 김덕수쪽에는 눈길 한번 돌리지 않고 온 정신을 책장에 쏟아붓고있다. 그의 표정은 그전처럼 태연하였다.

그는 뒤늦게야 사전을 밀어놓고 김덕수를 쳐다 보며 자리에서 움쭉 일어났다.

《왜 부르는지 모르겠나?》

그는 못박힌듯 한자리에 서있는 김덕수한테 다가서며 물었다.

《모르겠습니다. 혹시 법정에 서라는건 아닐까요?》

김덕수의 낮고 시들한 대답이다.

《그렇가?...》

81 번은 우묵한 눈을 찡프리고 그 어떤 자기 예감에 잠기여 잠시 생각을 더듬는다. 특별일과 뒤엔 반드시 교활한 유혹이 뒤따른다.

미결수들의 의지를 검토해볼 필요가 생기는 때 문이다.

《너절한 인간들까지 끌어내다 우리를 유혹하는것으로 보아 놈들은 더 교활해졌네. 정신을 차려야 하네.》

그는 뜻깊은 눈길로 김덕수를 오래동안 바라보았다. 순결하고 총명한 청년이다. 그러나 아직 습털우산에 매달려 뿌리내릴곳을 찾아다니는 연약한 민들레씨앗과도 같았다. 지나치게 감성에 예민한탓으로 늘 마음속의 파문은 컸고 그래서 감방과 같은 시련을 이겨낼만큼 모질지 못했다.

81 번은 끝없는 번뇌와 공상에 잠겨있는 그의 마음속에서 일어날수 있는 동요심을 제일 꺼려했던것이다.

《돌아오면 자네도 독일어를 배우든가 무엇이든 공부하게. 내 아는것 강의를 해주지. 그건 단지 감방에서 지식을 얻자는것이 아닐세. 마음을 정돈하고 의지를 키우기 위해서지. 그렇지 않으면 공상밖에 할것이 없는데 그러면 빈 마음에 공해감이 생기고 무서운 동요가 생긴다네. 감방에서 제일 무서운것이 그거네. 형리들이 그걸 노리지...》

그의 말은 여전히 장황하였으나 어느때없이 김덕수의 가슴속에 깊이 찾아들며 또다시 새로운 감동을 불러일으켰다. 그것은 지금껏 김덕수의 마음속깊이를 속속들이 꿰뚫고 하는 말이었다.

김덕수는 81 번의 훈시에 섞인 따뜻한 애정과 진심에 눈시울을 적시면서 그가 잡아주는 손을 놓자 복도로 나섰다. 왜서인지 81 번의 연약해보이던 손이 무쇠주먹같은 생각이 들었다. 등뒤에서는 간수의 구두발소리가 뒤따랐다.

그런데 김덕수가 불러간곳은 법정도 취조실도 아니었다. 처음 와보는 2 층의 낮은 구석방이었다. 출입문앞에 선채 육감적으로 오는 예감에 그는

몸을 움츠려뜨리었다. 면회장에서 하던 경주의 이야기가 피륙 떠올랐다. 경주 아버지가 만났다는 검사일것이다. 그가 이제 무엇을 추구할것인가?

순간 방문이 열리었다. 크지 않은 방안에는 책상 하나가 놓여있고 그뒤에 등받이가 높은 안락 의자에 나이가 든 사나이가 앉아 책상우에 고개를 떨구고있다. 책상앞에 나무의자가 놓여있다.

김덕수가 방안에 들어서자 사나이는 책상우에서 고개를 들었다. 회색춘추양복에 좀 진한 남색 바탕에 흰문양이 그려진 넥타이를 맨 사나이는 고개짓으로 간수를 내보내고 인차 나무의자를 가리켰다. 이마밑의 검은 눈썹이며 바투 박힌 깊은 눈, 뾰족하게 날이 선 코날은 그의 만만치 않은 성품을 암시해주고있다.

《254 번, 김덕수 옳은가?》

그의 물음에 김덕수는 가볍게 고개를 숙여서 긍정하였다. 그러자 사나이는 자기소개를 하였다. 예감은 틀림없었다. 그는 검사였다.

《최경주는 누군가?》

《련인입니다.》

김덕수는 주저없이 대답하였다.

검사는 구금된 전후사건을 이것저것 물어보고 나서 잠시 눈길을 찡프리고 생각에 잠기었다.

《련인의 아버지를 만난적이 있는가?》

《아니요. 한번도 만나본적이 없습니다.》

김덕수는 될수록 그 어떤 미련을 주지 않기 위하여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그러나 네가 구금된 사실을 촌에다 알리도록 의논이 되었겠지? 그동안 련인과의 면회도 있었으니...》

검사는 아직 자기의 속심을 드러내지 않고 목적한바대로 심문을 이끌어갈 잡도리다.

《물론 면회는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는... 알릴 필요를 느끼지 않았으니까요.》

《왜 필요를 느끼지 않았는가?》

김덕수는 상대방이 이마살 한번 찌프리지 않고 아주 태연히 묻는바람에 약이 올라 대답을 피했다. 얼마동안 침묵이 흐른다음 검사는 매섭게 눈알을 굴리며 다시 그 질문을 반복하였다.

《왜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는가?》

그러자 김덕수는 숙였던 고개를 들고 검사를 마주 쳐다보았다.

《그런거야 당신네들에게 하등 상관이 없을테데요. 무슨 일로 나의 대답을 꼭 듣고싶어하는지 알수 없군요.》

그러자 검사는 눈살을 찌프리고 잠시 김덕수를 의문스럽게 지켜보았다.

《아니다. 알아야 한다. 그건 너를 위해 필요한 거니까.》

김덕수는 자기의 대답이 이 심문에서 하등의 가치도 없으며 그것이 상대방이 추구하는 목적에

순순히 이끌려가는 결과밖에 가져올것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자 입을 봉해버렸다. 그는 이 방앞에서 가졌던 예감이 이제는 알수 없는 공포감으로 변해버리는 것이었다. 그는 몸을 웅송그리고 정신을 차리었다.

《넌 석방되기를 원하지 않는가?》

검사는 한결을 전진하여 불쑥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처음으로 좁은 미간에 주름살을 그었다.

《원하지요. 정당한 석방이라면...》

그 말에 검사는 입을 다물고 잠시 무엇을 생각하더니 또 입을 열었다.

《법정에서 무죄석방이 내리기를 바라는 모양이군... 하지만 나는 너와 같은 햇내기를 법정에 세워볼 흥미가 없다... 앞으로 학생의 본분을 다한다는 지장 하나면 되는거지.》

김덕수의 얼굴은 또다시 민감하게 변하였다. 모욕을 당했을 때 가졌던 그런 낯색이었다. 이마에서는 피줄이 후둑후둑 뛰고 온몸의 피가 머리로 모여들었다.

《그건 나의 의사가 아니다. 너의 장인될 나의 옛친구의 요구이기에... 나로서도 우정을 귀중히 여기어서 그렇게 하기로 결심했을뿐이다.》

검사는 말을 마치자 주저없이 가방에서 활자화된 종이 한장을 책상우에 꺼내놓았다.

김덕수는 그것을 훑어보았다. 학원안에서 소요를 일으키고 데모에 나서서 통일을 쫓는 것은 본의가 아니고 그 어떤 좌경권학생들의 배후조종에 추종한 일시적인 행동이었다는 것과 앞으로 학생의 본분에서 리탈되는 일에는 참여하지 않는다는 전향문이었다. 그것은 보기만해도 몸서리쳐지던 경찰서 고문장의 채찍보다 더 무섭게 김덕수의 머리를 후렷했다. 특별일파에 따르는 검사의 교활하고 비렬한 심리작전의 일환이었다.

그것을 보는 김덕수는 마치 산산이 깨어져나가는 머리의 상처를 부여안고 모태기듯 가볍게 치를 떨었다. 순간 그 종이장우에는 화면에서 보았던 정기석의 모습이 그려졌다. 그것은 지금 자기 앞에서 능갈친 모습으로 앉아있는 검사와 겹쳐지기도 하고 81 번의 모습으로 바뀌어지기도 하면서 공포감이 아니라 량심의 정점으로 이끌어갔다.

여위고 허약해진 몸이지만 송한우교수의 모습 속에 숨배여진 그 숭엄한 세계는 무엇으로 하여 사람들을 그토록 참된 인간으로 정화시켜주는 것인가? 그는 송한우교수처럼 참된 인간으로 남아있고싶었다. 사랑하는 경주나 홀로 고생하는 어머니도 귀중했다. 그러나 그 무엇으로도 바꿀수 없는것은 진리를 체현한 인간의 량심이었다. 어느결엔가 그것은 하나의 뿌리깊은 신념으로 김덕수의 가슴속에 자리잡기 시작했던것이다.

김덕수는 입술을 힘껏 감쳐물었다가 천천히 입

을 열었다.

《옛친구의 정리를 아직까지도 간직하고계신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를 유혹하려고는 애당초 생각 마시오. 그 누가 뭐라해도 나는 이 땅의 민주와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며 머지않아 그날이 오리라는것을 믿소. 이것은 변함없는 나의 신념이며 나의 량심의 선언이요.》

조용하나 힘있게 이 말을 한 김덕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방에서 나왔다. 문밖에서 간수가 따라섰다.

그는 아무런 미련도 없이 복도를 걸었다. 그의 귀가에는 81 번이 들려주던 혁명가에 대한 이야기가 커다란 의미를 안고 다시 울려왔다.

《...그는 인생의 마지막 지점에서 장군님의 혁명사상을 자기의 신념으로 간직한 고결한 인간이었소.》

혁명가의 량심을 신성불가침으로 여기고 자기 위업의 정당성을 확신한 사람, 몸은 비록 죽었으나 그의 넋은 영생하여 오늘은 수천수만의 인간들을 통일을 위한 성전에 불러일으키는것이 아닌가!

그는 땃땃이 107 호감방을 향해 걸음을 옮기었다. 혁명가의 넋을 마음의 거울로 삼아 참인간의 고결한 모습으로 미결수들의 얼어붙은 가슴을 후덥게 녹여주는 81 번, 송한우교수가 있는곳으로...

천천히 층계를 내려 복도를 꺾어돌던 김덕수는 문득 걸음을 멈추었다. 류치장 복도의 높은 창문을 흔들면 거리쪽에서 우렁찬 함성이 들려왔다. 그는 무작정 창가에 다가서며 문턱에 귀를 가져다 대었다. 거리의 함성이 보다 선명하게 들려왔다.

《광주학살원흉을 처단하라!》

《구속된 량심인들을 석방하라!》

구호의 웨침에 이어 노래소리가 울렸다.

...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 ..

(아, 학우들은 오늘도 싸우고있구나!)

김덕수의 눈에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뿜고 있었다. 그 눈물속에 머지않아 무한한 힘으로 철창가에 세차게 뿌리를 내리고 피어날 민들레가보였다. 그렇다. 그 어떤 사나운 비바람이 몰아친대도 민들레는 꽃을 피울것이다. 민주의 꽃, 량심의 꽃, 통일의 꽃으로 억세게 피어날것이다.

김덕수는 주저없이 걸음을 옮기었다. 높이 뿜린 창가로 눈부신 해빛이 들어와 백열을 뿌리고 있었다. 김덕수는 세차게 놀뛰는 심장의 박동소리들 들으며 철창가의 해빛을 지켜보았다.

해빛을 따르는 해바라기처럼...

생명수를 안고

-아프리카 한 농민이 부른 노래-

박재주

머리 들면 불가마처럼
확확 열기 뿜는 지평선 한끝
지지리 타는 사막을 적시며
달디단 젖줄기처럼 흘러든
물을 떠안고 나는 목메여 우오

눈뜨면 불별에 달아오른 모래알에
눈이 아리던 이 땅에
눈굽처럼 축축히 젖어든
땅을 움켜안고
평양하늘 우리러 큰절을 올리오

조상대대 노예의 죄사슬만
발고랑처럼 파헤쳐간 땅
독립의 징소리는 열풍타고
꿈처럼 이 마음에 찾아왔어도

아, 땅
물 없는 이 땅은 자유 없는 그날처럼
열파에 시달리고
내 가슴도 함께 시들었소

그날에는, 그런 날에는
무정한 하늘을 흘겨보면
《하느님》께 빌라고
신도들은 메마른 종을 울리고

오아시스 목감자대마저 타들 때면
땅에 대고 기도드리라고
교인들은 성경책을 안겨주어도
마음 더욱 지지던 땅이었소

아, 땅 이 땅에 물이 왔소
억년 가물 잊은 기슭처럼
타는 사막 껴질러
소생의 피줄같은 수로길 따라
생명수가 왔소

수수천년 조상대대
하늘에 땅에 대고
손이 따갑도록 빌어도
《하느님》도 못주던 목숨같은 물

위대한 수령님 사랑속에
조선의 벼들이
천지의 맑은 물로 잇대준
내 마음의 생명수가 왔소

세월이 흐를수록 정 잃던 이 땅에
난생처음 봄주고 열매를 준
아버이수령님께 평양하늘 우리러
땅을 안고 생명수를 떠안고
만수축원의 큰절을 올리오

깊어가는 한밤중에

오영재

문득 잠을 깨니
새벽 2시
사위는 고요한데
들리는건 흑해의 파도소리

창턱에 걸린
아브하즈의 하얀 조각달은

야릇한 이국의 꿈을 불러
이 몸을 다독여주건만
내 종시 잠을 다시 청할수 없음은

조국에선
분망한 아침일과들이 시작되고있으리
딸애는 이 시각

책가방을 들고 교문에 들어서고
그리운 동무들은
아침출근길에 올랐으리

당중앙의 집무실엔
하얀 문건들이 쌓이고 또 쌓이리
활달하신 모습으로
세계 지도앞에 다가서시는 그이
그루지아의 해변가를 더듬으시며
전사들의 얼굴을 그려보고계시리
몸에 익히지 못한 날씨에
않지나 않고 잘 지내는지

아, 기차도, 비행기도 아닌
사랑으로 날아온 여기 해변가

퍼주는 좋은 잠자리도 고맙다만
내 이처럼 잠들수 없음은

흑해의 파도소리
아브하즈의 조각달이 낮설어서인가
깊어지는 생각은
깊어지는 생각은

한없는 그 사랑 그 은정에
미처 다 보답 못한 전사의 그 자책이
등에 배겨서
뒤척이며
소리없이 더운 눈물 베개잇을 적시는
흑해연안
휴양소의 깊어가는 밤이여

련시

한 리당비서의 수기

리진화

사람들의 마음속에

나에겐 이런 때가 좋다
아지랑이 시샘하는 앞벌에서
사람들과 다정히 어울려
봄씨앗 묻어가는 이런 때가

구수하게 젖어드는 흠내
반갑게 맞아주는 사람들
이제는 내 잘 아는 땅과 사람들이여도
별로 나오면 더 정이 들어
군대 나간 자식들의 안부도 묻고
농장살림도 하나하나 의논해가며
사람들속에 어울려있을 때면
누구나 마음 털어놓더라

집에서 있었던 일
저혼자 품었던 속생각
새말집 머느리 마을에 시가와
상기도 정 못붙이고 사는것도...
마음을 알아보며

잘한 일 내세워주고
못한 일 깨우쳐주며
믿음과 힘을 줄수 있어
방풍장 둘러친 별로
내 자주 나오던가

리당위원회 사무실이 아닌
철참에 발머리서 알려주는 당정책이
이들의 심금을 더 울려주고
잘못을 저지른 가슴이여도
흠물은 손 마주잡으면
허물없이 좋더라 진정을 알기가

아, 흠내 몸에 배지 않고야
우리 수령님 우리 당이
믿음과 사랑으로 맡겨준
나라의 사천분지 일을 책임진
어머니가 될수 있으랴

별로 나오자 래일도 모래도...
 별은 리당일군이 서야 할 터전이고
 별은 땅이 하나로 잇닿았듯
 사람들을 이끌어
 우리 당과 간격없이 좁혀주는
 풍만한 토양이나니

땅만이 아닌
 사람들의 심장속깊이에
 만풍년의 씨앗을 먼저 심어주며
 따스한 봄날
 나는 오늘도 별에 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나의 기쁨

하얀 향라천을 드리우는듯
 아침안개 자욱히 내리는데
 개꼬리 내미는 강냉이밭에
 새끼줄 늘이는 사람은 누구일가
 남새포전에 분수비 뿌려주는 저 사람은...

아직 해뜨기 이른아침
 벼아지치는 논벌로
 김매러 나가는 트랙트르운전수는
 누구도 보지 않는 캄캄한 밤에
 논갈이 도맡아하던
 《27 호》 그가 아닌가
 열매숙는 과수반쳐녀들의
 명량한 웃음소리 들려오고
 이슬털며 이삭비료 뿌려가는

녀인들의 도란도란 말소리
 풍년속삭임처럼 들려오는
 농장의 아침은 정다워

안개 내리고
 장마비 내린다 하여도
 날씨의 변덕에는 아랑곳없이
 사람들의 가슴엔 별이 있고
 풍년걸음 서둘러 시작되거니
 안개야 내리라지
 안개의 면막속에
 사람들은 보이지 않아도
 언제나 농장을 안고사는
 그들의 진정을 보는 순간이
 당일군에겐 제일 기쁘더라

이런 사람들속에선

고맙다
 내 힘겨워할가봐
 내 메는 풀단을 한사코 말리는
 처녀여
 분조장동무여

지나는 길에 잠시 만나도
 반갑게 웃으며 인사하고
 들로 나와도 땀나는 일 시키지 않으려는
 그네들의 그 마음 안고
 내 오늘도 나온것 아니던가
 10 여년을 정들어 여기 사는것 아니던가

어려운 일 있어도
 리당위원회를 찾아와 의논하고
 기쁜일 있어도 당위원회를 먼저 찾아주는
 이런 사람들속에선
 풀리지 않는 매듭이 없고
 못해낼 일이 없어

이런 사람들 위해선
 뽀뿌라 설레는 리로 들어가는 길도
 시원하게 넓히고
 옆산에 포도밭도 더 늘쿠고

문화주택도 더 아담하게 꾸릴 생각뿐이여라

오,
올해는 풍년거름될
풀더미 더 높이 쌓자
나도 그네들의 밭거름이 되어
당이 바라는 길로
사람들을 이끌어주리라

내 풀단은 아니멘다 하여도
사람들의 그 사랑 그 아낌에
리를 더 아름답게 꽃피우고
이들의 정치적 생명의 보호자가 될
그 무게는
내 어깨우에 더 무겁게 느껴지누나

가을

안아보면 좋으랴
쓸어보면 좋으랴
백학이 너울대는 금나락 거느리고
바람결에 향기로운 과일향기 싣고
왔구나 가을이여!

앞벌엔 벼이삭의 진주
뒤벌엔 강냉이이삭의 보화...
농장원들과 어울려 모를 내던 언덕을 넘어
회의에서 오는길로 나가던 들길을 지나
왔구나 풍년가을이여!

강냉이이삭 팔뚝같은
비탈밭을 바라보면
수령님의 가르치심 받들어
분수식 발판개로 생명수를 이어가던
그날이 떠오르고

썩썩 소리나는
벼이삭을 만져보면
우리 당의 부름 받들고
주체농사법 하나하나
사람들의 가슴속에 심어주던
못잊을 그 순간이 지워지지 않나니

가을아!

난알아!
너만이 영글었느냐!
사람들을 이끌어 마을을 이끌어
우리 당의 의도대로 한생을 살
내 마음도 보석처럼 영글었거니

아, 하늘이 누렁고
땅이 다하도록 흥치며 설레여라!
만풍년의 가을 너는
벌에 살며 사람들속에 산
나의 보람!
나의 열매!

언제나 사람들 심장속에
주체의 피줄을 이어주고
주체의 숨결이 뛰게 하여
우리 당앞에
만풍년의 난알로
내 당사업을 총화받으리라

만풍년의 가을로
진주같은 난알로
나라의 사천분지일을 꽃피우며
한생을 당의 친위전사로 살
내 가슴에
왔구나, 가을이여!

민주주의기발아래 뭉쳐나가는 청년들의 생활과 투쟁에 대한 생동한 형상

-장편소설 《첫 기슭에서》 1, 2 부에 대하여-

김려숙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투쟁력사에는 조선청년운동의 빛나는 장들도 자랑스럽게 아로새겨져있다.

장편소설 《첫 기슭에서》(1, 2 부)는 해방직후에 조성된 복잡한 청년운동의 실패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공청을 민청으로 개편할데 대한 력사적인 조치의 실현과정을 예술적으로 생동하게 재현함으로써 민주주의기발아래 굳게 뭉쳐나가는 청년들의 약동하는 생활과 투쟁을 감동깊이 형상화하고있다.

소설은 오늘 우리 인민이라고 하면 그 누구나 다 한번은 꼭 거치게 되는, 그래서 더더욱 새삼스럽게 돌이켜보게 되는 청년조직의 탄생에 대하여, 애국에 불타고 민주를 갈망하는 이 나라 모든 청년들을 태운 조선청년운동의 《배》가 해방의 첫 기슭을 떠나게 된 자랑스런 력사에 대하여 온 세상에 긍지높이 선언하고있다.

해방직후 복잡하고 첨예한 사회력사의 소용돌이속에서 위대한 사상의 빛발아래 탄생된 청년조직이기에 편향없이 자기의 줄기찬 궤도를 따라 전진할수 있었음을 확증하고있는 이 장편소설은 수령님의 품속에서 자라났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령도밑에 양양한 미래를 내다보며 전진하고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친근한 생활의 길동무로 되고있다.

1. 력사적 사실의 전형화를 통한 인간문제의 해명

해방직후에 나선 복잡하고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청년들의 문제였다. 사회발전에서 청년들이 노는 중요한 역할로부터 출발하여 그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는것은 민족의 흥망과 새 사회건설의 운명을 좌우하는 근본문제의 하나이라고 말할수 있다.

장편소설 《첫 기슭에서》는 해방직후 청년들의 통일단결에 관한 문제가 얼마나 중요하고도 심각한 문제였으며 그로부터 공청을 민청으로 개편하는것이 우리 혁명의 요구로 보나 청년운동발전의 합법칙적 요구로 보나 얼마나 정당하고 현명한 방침인가 하는것을 깊이있게 보여주고있다.

작품의 깊이를 보장하는데서 기본은 사회정치적으로 의의있는 심오한 인간문제를 사상주제적 과제로 제기하고 해결하는데 있다.

누구에게나 명백하면서도 교양이 되고 교훈이

될수 있는 심오한 문제가 력사발전의 기본흐름속에서 형상적으로 밝혀질 때 인간형상도 시대의 본질과 사회발전의 합법칙성도 옳게 보여줄수 있다. 이것은 공산주의적 인간학의 본성적 요구이다.

장편소설 《첫 기슭에서》는 혼란과 무질서, 혈투를 극복하고 민주와 단결의 기치밑에 새롭게 전환된 이 나라 청년들의 운명에 관한 문제를 예술적으로 해명한 의의있는 작품이다.

소설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민주를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을 단결시키기 위한 투쟁을 기본선으로 하면서 그것을 시대의 변화와 더불어 새롭게 변화되지 않으면 안되는 청년들의 우정에 대한 이야기와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전개하고있다.

소설은 1945 년 8 월 조국의 해방으로부터 1946 년 1 월 민청결성까지의 길지 않은 몇달사이를 시대적 배경으로 하여 공청을 비롯한 여러 청년단체들의 출현, 신의주에서의 학생사건 등을 포괄하면서 공청을 발전적으로 해산하고 민청을 결성하기 위한 간고하고 보람찬 투쟁의 나날들을 방불히 펼쳐고 있다.

소설에 반영된 해방직후의 정세는 매우 복잡하였다.

아직 모든것이 수습되지 못하여 도처에서 혼란과 무질서가 조성되고 청년들과 인민들은 해방의 만세를 부르면서도 조선이 어느 길로 나갈것인가를 잘 알지 못하고있었으며 형형색색의 파들에 이끌리어 좌왕우왕하고있었다.

더우기 국토의 량단과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강점, 공산주의에 대한 악선전의 후과, 혼란된 틈을 리용한 계급적 원수들과 이색분자들의 암해책동 등은 이 시기 해방의 터전우에 일떠서는 새 조국의 창조의 력사가 얼마나 간고했는가를 시사해주고있다.

소설의 주인공들은 바로 이러한 력사적 현실의 체험자들이며 이 현실의 중심에 선 새 생활 창조의 선구자들이다.

소설은 해방직후 사회정치적 무대의 침단에 나선 청년들의 정치생활과 그것이 구체적인 개인들의 운명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생활발전의 합법칙성을 보여주면서 주인공들의 운명문제에 커다란 관심을 돌리고있다.

아직은 순수한 우정의 세계에 있던 주인공 강철우와 지성하, 최윤결은 해방된 새 조선을 일떠

세우는 길에서 제나름의 지향과 현실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하여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된다.

고향의 청년들을 하나의 지향으로 결함시킬수 있는 청년단체로서 자기군에서도 공청을 조직하자는 철우, 아직은 공산주의를 신념으로 받아들이수 없다고 하면서 명실공히 민족적 감정에 기초한 청년들의 연합을 주장하는 성하, 《봉우유신》의 유교 교리를 주장하며 공산주의요 민족주의요 하는 그 어떤 정치도 계급도 초월한 순수한 우정을 주장하는 윤결, 이들 세 친구의 서로 다른 주장, 그것은 사실상 그 어느 하나도 시대와 청년들의 한결같은 지향을 반영할수 없는 것이었다.

철우가 주장한 공청도 수많은 청년들을 망라할수 없는 협소한 청년조직으로서 그자체가 귀중한 청년들, 고향의 친구들을 적지않게 잃어버릴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그것을 알리 없는 이들이었고 그때문에 안타까운 이들이었다.

소설에서 보여주는바와 같이 강철우는 제련공 출신인 해동이와 농민출신인 장만이들과 함께 군공청을 조직하게 되며 성하는 백의민중의 대동단결을 주장하는 연합청년단을 조직하게 되고 군안의 학생들은 학생동맹을 따로 내온다. 한편 악질적인 대지주의 아들인 마도영이와 송장로의 딸인 송애희들은 반동청년단체인 《무궁화청년단》을 조작하여 공청과 다른 청년단체들사이에 썩기를 박으며 청년들의 분열을 꾀한다.

이것은 당시 청년운동의 실태를 보여주는 하나의 축소판이었다.

소설은 일제의 압제밑에서도 순결하게 지켜온 주인공들의 우정에 점차 금이 가게 된것은 정치적 변혁들이 일어나는 새로운 시대적 요구라는것을 자연스럽게 드러내고있다.

소설은 이로부터 새 민주조선 건설에서 중요한 몫을 맡아나서야 할 청년들의 통일단결을 이룩하는 길은 무엇이며 서로 갈라지긴 했지만 버리고싶지 않은 동무들의 문제, 우정은 어떻게 해야 회복되고 공고화될수 있는가 하는 심각한 문제에 독자들을 이끌면서 점차 작품의 내용을 심화시켜나가고있는것이다.

그렇게 놓고보면 주인공들의 우정문제는 단순한 우정문제가 아니라 청년들의 장래운명과 관련되는 심각한 사회정치적 문제였으며 따라서 그것은 그들이 하나로 뭉칠수 있는 그러한 사상적 기초와 정치조직이 안받침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풀릴수 없는 문제였다. 결국 청년들의 문제, 그들의 통일단결의 문제가 풀려야 우정문제, 친구들사이의 사랑과 의리에 관한 문제도 풀릴수 있게 된다.

소설은 이처럼 실재한 역사적 사건과 사실들을 전회화하여 심오한 인간문제를 밝혀냄으로써 민주주의기발아래 모든 청년들을 묶어세울데 대한 장군님의 위대한 사상에 의하여 협소한 공청의 대문을 터치고 활짝 열어제긴 민주청년동맹의 드넓은 대문으로 각계각층의 청년학생들이 들어서

는 역사적 사변을 감동적인 화폭으로 펼칠수 있었다.

소설은 또한 탐구된 사회적 문제, 인간문제를 생활의 우여곡절을 통하여 진실하게 형상한데서 좋은 경험을 보여주었고있다.

소설에서는 사건과 인간관계를 집요하게 파고들어 극적 충동을 야기시키고있으며 인간들의 운명선과 사건선에 극적 굴곡을 주어 제기한 문제의 요구에 맞게 심화발전시키고있다. 준엄한 계급투쟁의 현실과 각이한 인간들의 운명발전에 초점을 집중시킬수 있도록 극력 긴장성을 조성하고있는것은 이 소설의 중요한 형상적 특성의 하나이라고 말할수 있다.

독자들을 작품의 세계로 끌고 들어가는 강한 힘이 있어야 심오한 인간문제도 예술적으로 밝혀낼수 있게 된다. 작품의 이 건인력과 감화력은 적지 않게 인간관계와 사건발전에서의 극적 굴곡과 같이 극적 긴장성을 주는 여러 요인들에 의하여 보장된다.

장편소설 《첫 기슭에서》는 공청원들을 비롯한 진보적 청년학생들과 반동적 청년들사이의 치열한 계급투쟁선상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야 할 청년들사이의 일시적인 불신과 곡해에서, 주인공들의 내적 심리 등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극적관계가 심화된다. 그것은 돌발적인것처럼 일어나는 첨예한 사건들과 밀접히 연관되어 집중적으로 드러나게 된다.

극좌적인 반혁명분자들인 위장천, 위린옥 등에 의하여 수련이, 은하를 비롯한 12명 청년들이 공청에서 출맹되고 그것으로 하여 생기게 된 공청에 대한 불신과 청년들의 분열의 위기, 마도영, 송애희년놈들에 의해 조작된 또아리동폭파사건과 영화관에서 벌어진 공청과 연합청간의 대결, 일시적인 충동으로 공청에 들었다가 출맹된 윤결이의 서울도주...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주인공 철우로 하여금 공청이냐 우정이냐, 공청이냐 사랑이냐 하는 갈림길에서 그 어느 하나를 택할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철우는 공청을 버릴수 없었던것은 더 말할것도 없고 친구들도, 수련이도 버릴수 없었다. 그 둘중 어느 하나만을 택하고싶지 않은 둘 다 가져야 할 절박감이 그의 량심에 파고든다. 하다면 과연 그 길은 없단 말인가, 이것은 주인공 강철우만이 아니라 조선의 모든 청년들이 애타게 갈망하던 문제였다. 그에 대한 대답은 오로지 위대한 장군님께서만이 주실수 있었다.

소설은 있을수 있는 생활의 우여곡절과 거기서 겪는 인간들의 극적 체험을 한껏 축적시킴으로써 장군님의 위대한 사상과 그 정당성을 예술적으로 더욱 부각시키고있다.

생활의 우여곡절을 그리면서도 시대와 역사발전의 본질적인 흐름을 옳게 그리자면 그 생활의 본질로, 진리로 될수 있는 사실을 똑바로 찾아쥐고 정치적인 각도에서 잘 해결해나가는것이 중요하다. 작품에서 역사발전의 본질을 이루는 그 사

건, 사실이 바로 생활의 알맹이, 사상주체적 과제와 연결되어 형상발전에 관통되게 되는것이다.

장편소설 《첫 기슭에서》는 정치생활과 애정률리 등 생활에서의 우여곡절을 그리면서 그 우여곡절이 생기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를 장군님의 사상에 기초하여 분석하고 그를 극복하게해나갈 근본방도도 장군님의 민청창립방침에서 찾도록 형상의 대를 확고히 세워나갔다.

소설은 장군님을 만나뵈을 결심을 품고 평양으로 올라간 철우가 그이의 귀중한 가르치심과 크나큰 사랑을 받아안게 되는 계기를 새로운 전환점으로 설정하고 장군님의 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주인공의 헌신적인 투쟁에 형상을 집중시킴으로써 제기된 인간문제를 정치적 견지에서 올바르게 해결해 나갔다.

장군님께서는 철우를 민주청년열성자대회에 참가시켜주시고 몸소 대회에 참석하시여 청년운동의 현실태를 예리하게 분석하시면서 공산주의청년동맹을 가지고서는 광범한 대중을 잃을수 있다고 하시면서 앞으로 공청을 발전적으로 해산하고 각계 각층의 광범한 청년들을 망라한 대중적인 청년단체인 민주청년동맹을 창립해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그러시고는 귀중한 시간을 내시여 철우의 소박한 질문에도 대답을 주시며 친구들과 애인을 귀중히 여기고 그들과 같이 손잡고 나아가려는 철우의 심정을 헤아리시고 투쟁의 나날에 사귀신 잊을수 없는 동무들을 감회깊이 회고하신다.

공청을 민청으로 개편하는 사업을 통하여 모두가 하나의 사상, 하나의 신념으로 뭉친 동지가 되도록 하는것. 이것은 사업도 우정도 사랑도 모든것을 동시에 성과적으로 해결할수 있게 하는 기본열쇠였다.

소설은 위대한 장군님의 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이 결코 순탄하지 않았으며 간고한 로정이였음을 보여주기 위하여 내용을 극적으로 더욱 심화시켜나갔다.

공청건물방화사건, 강철우와 지수련을 살해하려는 거듭되는 음모, 영포와 신의주에서의 학생사건 등 민청의 결성과 청년들의 단합을 파괴하려는 반동놈들의 책동은 더욱 악랄해지는데 친구들사이의 오해와 불신도 좀처럼 해소되지 못한다.

주인공들의 투쟁이 이처럼 시련을 겪고있을 때 그리고 반동놈들의 사족으로 일어난 학생들의 사건으로 하여 정세가 극도로 긴장되었을 때 우리의 위대한 장군님께서 몸소 사건현장인 신의주와 영포에까지 오시여 정견과 신앙, 주의주장이 다른 모든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에게 흥금을 털어놓으시고 그들의 땀땀했던 마음의 급선을 울리시여 통일단결을 이룩할수 있는 결정적 전환의 길을 열어놓으신다.

찬란한 태양의 빛받은 철우를 비롯한 우리의 주인공들이 반동놈들의 책동을 물리치고 온갖 불의와 오해를 깨끗이 청산하고 민청의 두리에 굳

게 뭉치게 하며 거기에서 참다운 새 우정, 혁명적 동지애도 피어나게 만든다.

소설은 출신과 생활환경에서부터 서로 다른 청년들의 운명선을 극적으로 대조시켜 그들이 서로 갈라지는 길, 그들이 서로 합쳐지는 길에 대한 철학적 해명을 주고있다.

생활의 우여곡절, 준엄한 계급투쟁속에서 반동과 불의가 일시 작간을 하여도 진리는 언제나 승리하는 법이다. 더우기 위대한 장군님을 따르는 온 겨레, 모든 청년들의 지향은 그 무엇으로써도 막을수 없는것이니 민주청년동맹의 결성은 장군님의 사상의지로 굳게 뭉친 이 나라 청년들의 통일단결의 위력을 온 세상에 과시한 역사적 사변이였다.

이처럼 우리 청년운동은 해방의 첫 기슭에서 벌써 항일의 나날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이룩하신 청년운동의 빛나는 전통을 이어받아 수령님의 사상에 기초한 통일단결의 기치를 높이 들게 되었다.

청년운동의 개시로부터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청년운동의 주체사상화를 실현하는 길에 들어선 조선청년운동의 특징과 그 영광스러운 투쟁전통을 힘있게 론증한 여기에 소설의 중요한 성과가 있다.

이 위대한 승리, 영광스러운 청년운동에 대한 자랑찬 송가, 이것은 청년조직의 탄생에 관한 레찬만이 아니다. 그것은 보다 주의주장이 각이한 모든 청년들이 낡은 사회와 낡은 사상과 결별하고 새 나라에서 장군님의 아들딸로 새롭게 태어나 혁명적 동지애와 의리에 기초하여 굳게 뭉쳐나가는 청년들의 단결의 노래이다.

청년들을 무한히 아끼고 사랑하시는 장군님의 넓으신 포용력과 크나큰 믿음이 낳은 위대한 민주의 사상, 통일단결의 사상에 의하여 청년들의 운명에서는 새로운 전환이 이룩되게 되었다.

소설은 이처럼 민청결성을 전후로 한 역사적 사변들을 기초로 하여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뭉친 청년들의 통일단결의 문제, 은혜로운 태양의 빛발속에서만 참다운 우정도 사랑도 꽃피고 열매 맺을수 있다는 생활의 진리를 밝혀냄으로써 작품에서 제기한 인간문제에 심오한 대답을 줄수 있었다.

2. 청년들의 아름다움과 활력에 대한 생동한 형상

소설의 형상적 특성을 논할 때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주인공을 비롯한 작중인물들의 성격형상이 주는 매력이다.

장편소설 《첫 기슭에서》는 청년독자들의 구미를 당길수 있는 극적 굴곡과 탄력있는 문제를 통하여 뚜렷한 개성을 가진 청년주인공들의 아름다운 형상을 훌륭히 창조하였다.

각이한 개성을 가진 청년들의 사상정신세계에 깊이 파고들어 약동하는 청춘들의 생활과 사회의

기본활력으로서의 그들의 역할을 진지하게 그리
는것은 이 소설의 형상적 요구이다.

소설은 무엇보다도 주인공 강철우의 성격발전
과정을 중심에 놓고 랑만과 꿈, 리상과 포부가
크고 진취적이며 열정적이고 다정다감한 청년들
의 성격적 특성을 깊이있게 파고들었다.

여기서 특히 소설은 우리 나라 청년들의 가장
주되는 성격적 특징을 옳게 포착하여 일반화하고
있다. 그것은 개성이 있고 제나름의 생활경로가
있어 비록 하나로 뭉치는데서는 곡절이 있었어도
그들의 가슴속엔 한결같이 위대한 장군님을 민
족의 령도자로 높이 우러르고 따르며 받드는 깨
끗한 마음, 뜨거운 충성심이 차넘쳐있는것이다.

장군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홀모, 이것은
우리 청년들의 가장 아름다운 사상정신세계 이
다.

서로 다른 모양과 색깔, 향기를 가진 온갖 꽃
이 모여 조화를 이룬 화원을 보듯이 나라와 민족
의 꽃들이 청년들의 대학원에서 성격도 생김새도
지식정도도, 감정정도도 서로 다르지만 건국의
일념, 단결의 지향을 안고 장군님께로 향하는 충
성의 마음들을 읽게 되는것은 참으로 기쁜일이
다.

작품에서 작중인물들의 개성적 특성과 함께 시
대정신의 체현자이던 그들의 공통된 지향과 정서
세계를 어떻게 일반화하는가 하는것은 중요한 형
상적 요구로 나선다.

이 소설에서처럼 정치적 견해가 각이한 청년들
의 사상정신세계에서 공통점을 찾는것은 쉽지 않
으며 그것을 어떻게 일반화하는가 하는데 따라
작품의 종자와 생리적 특성이 달라지게 된다.

소설은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홀모의 감성, 그 누구의 강요나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스스로 심장깊이에서 우러 나오는 이 고
유한 민족적 감정을 청년들의 성격발전과정의 극
적 계기로, 개성이 집중되고 일반화되는 생활적
바탕으로, 청년들이 진심으로 공감되게 하는 사
상정신적 원천으로 설정하고 형상화하고있다.

그리하여 소설은 청년들의 약동하는 성격을 다
양하고 깊이있게 밝히면서도 이들이야말로 장군
님께서 세워주신 새 조선 건설의 가장 활력있는
부대이며 미래의 주인공들임을 굳이높이 주장하
고있는것이다.

소설에서 장군님에 대한 홀모의 감정은 격동적
인 여러 장면들과 청년들의 감정정서의 섬세한
묘사에서 잘 드러나고있다.

철우가 영화관에 모인 여러 계층의 청년들앞에
서 위대한 장군님을 만나뵙고 돌아온 그 크나큰
영광을 전할 때 온 장내에 폭풍같은 박수가 일고
기쁨과 환희가 넘쳐나는 모습, 위대한 장군님께
서 학생사건이 일어난 국경도시 신의주의 군중대
회장에 나오시여 수만군중을 향해 《인사가 늦었
습니다. 내 김일성입니다.》라고 소박하게 말씀을
시작하시었을 때 폭풍전야와 같은 무거운 침묵이
서리였던 온 광장을 뒤흔들며 장쾌한 퇴성같이

터져나오는 《김일성장군 만세!》소리, 장군님께서
지한민 의 집을 찾으시여 우리 인민에게 의거하
는 축지법 이야기와 조선식민주주의에 대하여 말
씀하시었을 때 그들 모두가 크나큰 격동에 잠기
는 모습, 등은 그에 대한 집약적이며 생동한 묘
사로 된다.

공청청사가 불에 타고있을 때 공청에서 출맹된
정만(그가 글을 모른다고 위린옥이 출맹시켰다)
이가 위험을 무릅쓰고 지붕우에 올라가 붉은 기
발을 구원해내고 몽롱한 의식속에서도 장군님을
만나뵙으려간 철우를 기다리며 김일성장군님께서
만은 우리들의 마음을 알아주시리라 믿는다고
말하는것이며 아직 장군님의 참뜻을 이해하기
는 멀다고 할 지성하가 공청을 해산하는것과 같
은 그런 대용단을 내리실수 있는분은 김일성장
군님뿐이라고 사색깊이 말하는것은 각이한 청년들
의 심중의 목소리그대로이다.

참으로 가슴속에 피로움을 안고사는 모든 청
년들, 아직은 뚜렷한 지향이 없이 화산처럼 분출되
는 열정을 쏟을길 없어 와와 밀려다니는 거리의
청년들에 이르기까지 이 나라 청년들이라면 그
누구라 할것없이 가슴속에 소중히 간직하고있는
것은 위대한 장군님을 우러르고 따르는 숭고한
사상감정이다.

장군님의 따사로운 미소, 크나큰 믿음은 청
년들의 가슴에 서리였던 거치른 감정과 자그마한
그들 마저도 말끔히 가져내게 한 태양의 은혜로
움이였다.

이러한 형상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니신 높은
권위야말로 어제도 오늘도 우리 인민의 통일단
결의 불패의 상징이며 기치라는것을 생동하게 보
여주고있다.

소설에서는 이와 함께 슬기와 힘을 키워 새 사
회건설의 선봉대로서의 사명을 다하려는 청년들
의 지향과 활력을 부각함에 있어서 또아리둥공사
와 제련소복구, 건국청년학교운영 등에도 웅당한
주목을 돌리고있다.

청년들의 형상에서 기본은 주인공 철우의 성격
형상이다.

소설은 주인공 철우의 성격을 발전의 견지에서
그리면서 위대한 장군님의 뜨거운 사랑과 보살
피심속에서 성장하는 청년일꾼, 실천투쟁속에서
단련되는 견결한 투사로서의 그의 성격을 생동한
개성으로 창조하였다.

청년은 젊음이 용솨음치고 새것에 민감하고 진
취적이며 온갖 불의와 악을 미워하고 정의와 진
리를 사랑한다. 여기에 청년의 남다른 아름다움
과 순결성이 있는것이다.

철우의 성격발전은 장군님의 로선을 받아안은
것을 전후로 하여 그 특성을 달리한다.

장군님을 만나뵙기전까지는 오직 애국의 열정
과 의협심만으로 청년들을 묶어세우려고 했지만
진심도 헌신성도 무시당하듯 그는 《피스톨공청비
서》라는 별명을 받고 청년들로부터 멀어지게 된
다.

철우에겐 아직 친우들을 공감시킬 사상도, 방법과 묘리도 없었던 것이다.

철우는 장군님의 귀중한 가르치심을 받아안고서야 비로소 해방된 조선의 청년으로서 자기가 할 할 무거운 사명감을 더욱 깊이 지각하게 된다.

소설은 군민청결성위원회를 못고 그 위원장이 되어 장군님의 위대한 사상을 옹호고수하며 그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에 보답하기 위한 실천투쟁속에서 사상도 의지도 작품도 더욱 세련되어나가는 철우의 성격을 잘 보여주고있다.

철우의 건결한 혁명정신, 투철한 립장은 도민청결성회의에서 도공산당의 위장천과 도공청부비서 위린옥이 당치도 않는 도의 특수성을 고려한다고 하면서 공청을 그대로 두고 공청의 외파단체로서 도민청을 조직한다는 결정서를 채택하려고 할 때 그를 단호히 배격하고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을 건결히 옹호고수해나서는데서, 반동놈들이 영포군내 청년학생들을 휘동하여 반란을 일으키려고 할 때 그들을 저지시키기 위해 한몸을 서슴없이 기관차앞에 내대는 모습에서 인상깊이 안겨진다.

간고한 투쟁의 나날을 거쳐 주인공 철우는 이 세상 가장 행복한 청년으로 성장하게 된다. 청년일군으로서의 첫걸음마를 떼여주시고 력사적인 조선민주청년동맹창립대회에 몸소 참석하시여 친히 철우를 민청중앙위원회 위원으로까지 추천해주시는 장군님, 수백수천명을 거느릴 청년대장인데 웃이 허줄하면 안된다고 몸소 양복감까지 마련해주신 장군님, 장군님께서 알고계시고 믿어주시는 청년, 그보다 더 큰 조선청년의 영예는 없는 것이다.

주인공 강철우는 장군님께서 몸소 키워주시고 내세워주신 평범한 조선의 한 청년, 민청의 첫세대의 전형이다.

소설은 주인공의 성격발전과정을 중심에 놓고 그리면서 그와 밀접히 련결된 청년들의 다양한 군상을 생동하게 개성적으로 형상하고있다.

인물들 하나하나의 개성에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고 매 인물들의 성격적 핵을 뚜렷이 함으로써 인물마다 자기 고유의 얼굴을 드러내게 한것은 소설의 중요한 성과의 하나인 것이다.

로동계급다운 패기와 인정, 거칠면서도 인정미 흐르는 군공청부비서 해동이, 공업전문학교까지 나온 민족주의자의 아들로써 일시 공산주의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가진데로부터 본의아니게 청년운동의 통일단결에 지장을 주기도 했지만 일단 진리를 인정했을 때에는 그앞에서 도고함과 자존심도 아깝지 않게 버리는 대바르고 성실한 지성하, 고리타분한 봉건유교의 영향을 받으며 자라난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있으나 오히려 그때문에 그 누구보다 봉건을 반대하고 자유를 갈망하기도 했고 그 참다운 자유를 찾기가까지 그리도 힘들었던 순박하고 인정있는 윤결이 등의 성격은 소설의 사상주제적 과제를 해명하는데서 중

요한 몫을 맡고 있는 형상들이다.

그런가 하면 유순성과 소박성, 근면성으로 농민적 체취가 느껴지는 정만이, 승벽이 세고 제탄의 포부가 있어 공청과 민청결성준비에서 제일 말쑥하게 놀기도 했지만 진리에 충실하고 새것에 민감하여 결단성있는 학생동맹위원장 박일웅, 진취적이며 열정적인 갈섬마을의 준섭이와 그의 누이동생 분이, 송애회년의 꼬임에 넘어가 철우를 해치려고 까지 했던 박일웅의 형이며 분이의 애인인 박민웅 등과 같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으면서도 뚜렷한 형상적 몫을 안고 생동한 개성으로 나오는 인물들도 있다.

청년들의 형상에서 처녀들의 형상은 상당히 이채롭다. 아련하면서도 리지적이며 새것을 따르는 데서 용감하고 자기희생적인 성하의 누이동생 지수련이, 해동이를 사랑하게 되면서부터 더우기 해방이 된 다음에는 새 조국을 믿으며 있는 힘껏 철우와 해동이를 도와나서는 은하, 사나운 풍랑을 헤치며 돛배를 몰아나가는 쌍둥이처녀 달님이와 별님의 의역세면서도 대조적인 성격, 이들 모두는 그 하나하나가 다 인상적이며 사랑스러운 성격들이다.

소설은 청년들의 개성을 창조하면서 그들의 사랑과 우정에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고있다.

소설에서는 사랑과 우정을 사건발전선에 밀착시키면서 감정선도 첨예한 사건선에 기초하여 주로 사랑선, 우정선에 의거하고있다.

공청을 해산하고 민청을 결성하는 과정, 청년들의 분렬로부터 단결에로의 과정이 순탄치 않은 투쟁과정인것만큼 그 과정에서 맺어지는 청년들의 사랑과 우정도 심각한 곡절과 투쟁을 동반하기 마련이다.

사랑이 있어 청춘들이고 벗들도 많아 청춘들이다.

소설에서는 철우와 수련이, 해동이와 은하의 사랑을 비롯하여 청년들의 순결한 애정관계와 철우, 성하, 윤결이, 해동이들의 성실한 우정관계를 통하여 청년들의 량만과 고상하고 아름다운 세계를 깊이있게 보여주고있다.

그들의 사랑과 우정은 서로 양상이 다르고 크고 작은 차이는 있어도 다 생활의 필연이 가져다주는 우여곡절속에서 더욱 공고화된다.

철우는 그 누구보다도 사랑과 우정에 충실한 청년이다. 하지만 그는 순수 수련이의 철우가 아니라 공철의 철우, 몇몇 동무들의 친우가 아니라 모든 청년들의 친우가 되어야 할 자기의 사명감을 자각하고있는 인물이다. 하기에 때로 수련이와 친우들로부터 가슴아픈 오해를 받으면서도 그 괴로움을 이겨낼수 있었다. 사랑과 우정에 대한 그의 충실성은 뜻이 다른 동무들을 배척하는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기로부터 더 멀리 달아날수록 더욱더 그들을 돕고 이끌어줄 의무감을 깊이 새기는데서 나타나고있다. 그 불같은 사랑과 강한 의지가 있었기에 그는 결국 수련이도, 친우들도 다 자기의것으로 만들었고 그들을 다 뜻을 갈

이하는 혁명동지로 만들어 장군님앞에 내세우는 것이다.

이 측면에서 해동이의 형상이 주는 인상은 매우 강하다. 그는 사랑에서도, 우정에서도 희생성과 헌신성을 발휘하는 열정적인 청년이다. 예수를 믿는 집 딸인 은하와의 관계때문에 보안서원의 정복도 벗어야 했고 많은 고충도 체험해야 했지만 진심으로 은하와 그의 어머니를 사랑한다. 군공청비서인 철우가 성하나 윤걸이, 수련이들을 남달리 사랑하고 그리워하는데 대하여 못마땅하게 여긴적도 있지만 그 진심에 감동되면서부터는 그들을 위해 여러 모로 마음을 쓰며 더우기 생사를 관가리하는 위험속에서 윤걸이를 구원하여 그를 철우의 곁에 세워주고는 그만 그들의 곁을 떠나고만다.

자기의 사랑도 우정도 귀중했지만 동지들의 참다운 사랑을 위하여 청춘을 바친 해동이의 그 사랑, 그 우정은 깊은 인상을 준다.

소설에서 해동이의 희생장면이 그토록 눈물겹도록 강하게 안겨오는것은 사랑과 우정을 피로물들인 그의 희생성과 헌신성이 깊은 생활적인 전체와 감정의 축적을 가진데 있다.

청년들의 사랑과 우정은 계급투쟁밖에서 이루어질수 없다. 순결한 사랑을 지키고 참다운 우정을 꽃피워나가는 길은 오직 위대한 장군님께서 가리키시는 한길뿐이며 그길에서 생명을 바친 청춘들의 고귀한 넋은 청년들의 가슴속에 깊이 새겨지는것이다.

소설은 이와 함께 등장인물들의 호상관계에서 극적 굴곡을 강하게 주면서 그들의 내면심리세계를 깊이있게 파고들었다.

작품자체가 생활굴곡이 비교적 심한 특성을 가지고있는것만큼 작중인물들의 복잡한 내면세계, 심리상태를 잘 그리는것은 이 소설의 중요한 형상적 요구라고 할수 있다.

소설에서는 철우와 성하, 수련이, 윤걸이들의 고민과 모대감, 자책 등을 라렬하지 않으면서도 적중한 계기들에서 요긴하게 묘사하여 청년들의 성격적 특성을 두드러지게 형상하는데 효과적으로 복무하게 하였다.

자기가 받아들인 청년들을 자기가 공청에서 내보내야 하는 피로움, 친구들조차 뜻을 같이하는 동무로 만들지 못하면서 군안의 모든 청년들을 묶어보자고 하는 자신에 대한 환멸, 옛스승이며 친구의 아버지인 지한민과의 관계로 인한 모대감

등은 철우의 심리적 고충을 잘 드러내고있는 부분들이다. 그것들은 작가의 주정이 안반침되어 사건진전에서 큰 역할을 한다.

공청방화사건의 혐의자로 기소되어 감옥에 있으면서 공산주의에 대한 허튼 소문을 들은데다 철우에 대한 불만까지 겹쳐 마음이 이지러진 성하의 고민, 감옥에서 나오자바람으로 학생소요사건에 휘말려들어가며 무엄하게도 장군님께 장군님도 공산주의자인가고 물어보는 성하, 장군님께서 몸소 아버지 지한민의 소청을 받아들여 자기 집을 찾아주신 영광의 날에 그이앞에 나서지 못하고 자기를 뉘우치지 않으면 안되였던 성하.

서울도주와 해동이의 희생과 같이 일생을 두고 잊지 못할 후회와 고뇌를 뼈아프게 체험하는 윤걸, 아버지와 오빠, 애인인 철우 사이에서 그 누구보다 고충이 큰 수련이, 소설은 이들의 내면심리세계를 여러모로 깊이있게 파고들으로써 청년들의 지향과 랑만, 순결함과 아름다움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처럼 소설은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과 방침을 높이 받들고 모든 청년들을 민청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우기 위한 민청의 첫세대들의 생동한 개성을 창조함으로써 우리 소설문학의 주제를 다양하고 풍부하게 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였다.

물론 1, 2 부를 가진 이 장편소설이 좀더 철학적인 깊이를 보장했으면 하는 아쉬움도 없지 않다. 일정한 흥미를 돋구어주는 좋은 측면은 있지만 그 여운이 상대적으로 약한것은 그와 관련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소설이 거둔 사상예술적 성과는 우리 청년들로 하여금 주체혁명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시대와 혁명앞에 지닌 사명과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도록 하는데 훌륭히 이바지하리라고 생각한다.

소설은 특히 오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특별한 관심과 보살핌속에서 조선청년운동을 더욱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우리 청년들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할것이다.

진리는 언제나 정의의 편에 있고 애국적인 청년학생들은 진리의 창조자이며 검증자이다.

소설은 온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위하여 교정과 철창 속에서 피흘리며 싸우는 남녘의 청년학생들에게도 희망과 용기를 더욱 북돋아줄것이라고 확신한다.

여기에 화목한 가정이 있다

김대성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사업은 곧 사람과의 사업이며 사람과의 사업을 잘하는것은 당조직들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입니다.》

내가 동림영예군인보양소 정문에 들어섰을 때는 마침 출근시간이었다.

영예군인들이 탄 삼륜차들이 꼬리를 물고 내달리는데 어찌나 전투적인 기백이 차넘치던지 시가전에 돌입하는 모터씨클부대를 방불케 했다. 곁에서 웃음도 가득 발걸음을 재게 놀려가는 영예군인들의 안해들은 모터씨클부대와 함께 진격하는 보병들인가, 환호하는 해방된 인민들이런듯 길가의 유치원마당에선 귀여운 꽃봉오리들이 솟아져나와 반겨 손저으며 노래를 부른다. 이 바쁜 출근길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그 애들을 바라보며 행복의 미소를 날리는 영예군인들과 그 안해들의 모습은 볼수록 정다웠다.

마치 불타버린 거목의 아지마다 기어코 움튼 봄싹들의 생신한 모습을 보는것만 같다.

첫인상에서부터 취재의욕에 북받쳐 성급히 보양소마당에 들어서니 평양차번호가 붙은 승용차들이 여러대나 서있는게 눈에 띄운다. 웃기판에서 간부들이 지도자사업을 내려온 모양이다.

김성록초급당비서는 그 손님들때문에 몸뻘 시간이 없어하기에 나는 그와 간단히 인사소개나 나누고서 부비서 안명옥동무와 마주앉았다.

나는 방금전 정문앞에서 본 그 인상이 좀처럼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기에 먼저 그 방향으로 취재를 시작하기로 했다. 여기 보양소에 영예군인들과 가정을 이룬 녀인들이 많은것 같은데 그런 사랑담을 하나 들려달라고 했더니 부비서는 빙그레 웃었다.

《그런 얘기는 하도 많아와서 정작 어느 얘기를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군요. 참, 우리 보양소엔 얼굴에 화상을 당한 영예군인처녀에게 미끈질직한 총각이 장가를 든 얘기가 있답니다.》

이 정말 기이한 사랑이야기다.

녀인들이 영예군인들에게 시집을 왔다는 그러루한 이야기는 어디서나 아름다운 노래처럼 울리고 있어 레사로운것으로까지 되었던만 총각이 영예군인처녀에게 장가갔다는 이런 이야기는 듣기에 처음인것 같았다.

내가 얼른 취재수첩을 펴들자 부비서는 물었다.

《저 ... 작가선생, 왕영희동무라고 아시겠는지?》

어쩐지 이름은 귀에 익은것 같은데 얼굴모색이

인차 떠오르지 않아 나는 고개를 기웃거렸다.

《작가선생은 작년 10월 9일 저녁 텔레비존으로 방영된 〈우리의 집은 당의 품〉이라는 기록영화를 보시지 못한 모양이군요.》

부비서가 서운함을 감추지 못해하며 이렇게 나무래서야 나는 고개를 끄덕이었다.

《아, 그 영화를 본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크나큰 은정속에서 아름다운 얼굴모습을 되찾고 가정을 이룬 그날 감사편지를 쓰던 그 녀성영예군인이 바로 여기에 있었군요.》

부비서는 자랑스레 고개를 끄덕이었다.

《예, 그 동무의 고향이 바로 여기 동림군이랍니다. 보양소에서 한 삼십리가량 떨어진 부황리란곳에 부모들이 있어요.》

어느날 웬 처녀제대군인이 우리 초급당에 찾아왔더군요. 건장자리가 또렷한 군복을 입고있었는데 어쩐지 첫눈에 얼굴모색이 좀 특이했어요. 그래서 통성을 하고보니 바로 그 처녀가 불붙는 병실에 뛰어들어가 위대한 수령님의 초상화를 모셔내온 그 유명한 왕영희동무더군요.

초급당비서동문 제 딸자식이라도 제대되어 돌아온듯 그리도 반가워하더군요. 어디 좀 자세히 보자고 하면서 비서동무는 왕명희의 얼굴을 한참이나 여겨보는것이였어요. 나도 호기심에 이끌려 처녀의 얼굴을 주시했지요.

화상환자라고 하면 누구나 상상하게 되는 그런 끔찍스런 모습이 이 처녀에게선 씻은듯이 사라져버렸더군요. 수술을 어찌도 잘했던지 이식한 눈섭은 반달같이 곱게 휘었고 뺨이며 입술엔 발그레 윤기가 돌고, 다만 코등과 목언저리에 약간 도드라진 수술자리가 눈에 알릴뿐이였어요.

왕영희동무는 보양소에서 일하게 해달라더군요.

비서동문 만류했어요.

《동무가 집에서 신다고 누가 뭐라겠소. 한 1년 푹 쉬면서 몸조리를 하고나서 찾아오라구.》

그런데 처녀는 고집을 쓰더군요.

《비서동지, 전 하루도 쉴수 없습니다. 하는일이 하루하루를 보낸다는게 이다지도 피로운것인줄은 미처 몰랐됐습니다. 비서동지, 위대한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뜨거운 사랑과 배려를 누구보다도 많이 받은 제가 이렇게 군복을 벗었다고 하여 집에서 편히 쉴수 있겠습니까. 저도 영예군인이니 보양소에 나와서 동지들과 함께 일함으로써 적은 힘이나마 나라에 보탬을 주고 싶습니다.》

왕영희의 이 절절한 호소에 우린 감동되지 않

을수 없었습니다. 그럴수록 비서동문 난처해하더군요. 우리 보양소엔 독신자들의 합숙이 없으니 왕영희는 집에서 다녀야 할텐데 왕복 30 리길을 매일 통근할수도 없는 일이지요.

이런 딱한 사정을 터놓자 본인은 까짓거 30 리쯤은 얼마든지 통근할수 있다는겁니다.

우리 왕영희에게 좌우간 무슨 대책을 취할터이니 제대휴가기간만이라도 집에서 쉬라고 겨우 만류해서 돌려보냈지요. 그가 어찌두 서운해하던지...

그때 저의 머리속에선 피땀 그럴듯한 생각이 떠오르더군요. 아마 딸자식을 가진 어머니로서의 본능이 작용했기때문이였겠지요.

〈비서동무, 저 처녀를 시집보내는게 어떨까요? 우리 보양소에 다니는 종각과 짝을 무어준다면 합숙같은것은 문제될것도 없지 않나요.〉

이 뜻밖의 말에 놀랄줄 알았던 비서동무가 오히려 반색을 하더군요.

〈거 좋은 생각입니다. 헌데 누구에게 시집을 보낸다?!〉

〈어쨌든 이 일은 제가 맡아서 힘써보겠어요. 그러다가 안되면 할수 없는 일이지요.〉

〈할수 없단말이지요.〉

비서동무는 알릴듯말듯 한숨을 내쉬더군요.

〈하긴 사랑이란 강요해서 되는 일이 아니니까... 그러나 부비서동무, 꼭 성사시켜 봅시다. 우리가 제 딸자식을 시집보내는 심정으로 애를 쓴다면 안될리 있겠습니까.〉

그 일이 있는 뒤편 보양소안의 총각들을 무심히 바라보게 되지 않더군요.

이 총각이 어떨는지, 저 총각이 어떨는지. 마음씨는 착하던가, 레절이 있던가, 일을 잘하는가, 가풍은 어떤지? 혹시 벌써 짝이 있으면 맹랑한데...

이렇게 며칠동안 혼자서 속구구를 하던 저는 공무작업반의 선반공총각을 적임자로 점찍었어요.

허영철이라구 우리 보양소에 있는 허동무의 둘째아들인데 이모저모로 건드려봐도 쇠소리가 창창 나는 정말 빠진데 없고 마음에 쏙 드는 총각이었답니다. 그 총각은 도에서 진행되는 강습에 참가하고있어 그때 보양소엔 없었드렸어요.

그래서 난 총각의 아버지를 조용히 만났지요.

영철이가 다 컸던데요. 인젠 장가를 보내야지요? 하고 지나가는 소리처럼 슬며시 빼쳐보니 이제야 때가 됐지요. 어디 부비서동무가 맞춤형 대상이 있거들랑 소개를 해주시우. 하더군요. 이러루한 대답은 누구나 인사살아 해보는거지요. 그래서 아직 점찍은 처녀가 없는가보지요? 하고 꼬집어 물었더니 그 녀석은 아직두 처녀손목 한번 쥐여보지 못한것 같습다, 사내녀석이 너무 참해놔서 저 혼자 색시감이나 골라잡겠는지 원. 하면서 찝박한 한숨을 내쉬더군요.

이게 뭐야?! 전 바싹 긴장해졌어요.

〈그럼 내가 한 처녀를 소개하지요.〉

저는 자꾸만 앞서는 흥분을 억제하면서 왕영희에 대한 이야기를 아는껏 들려주었어요. 허동무는 신중한 기색으로 말없이 듣고만 있더군요.

〈이런 처녀랍니다. 말이 쉽지 생사를 판가리하는 위급한 순간에 누구나 불속으로 서슴없이 뛰어들수 있는건 아니거든요. 이 영웅적인 소행만으로도 처녀의 인간됨됨이야 알만하지 않나요.〉

허동무는 침묵을 지키더군요. 저는 공연한 말을 꺼내서 상대방을 따분한 립장에 빠뜨린것만 같은 우려가 들어서 이렇게 덧붙였지요.

〈하기야 이런 일이 어디 아버지 마음대로 결정해버릴 일인가요. 영철이 어머니와도 잘 의논해보세요. 본인의 의견이 기본인데 지금 도에 가고 없으니 그건 차후에라도...〉

한참만에 허동무는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그런 처녀라면 난 덮어놓고 찬성입니다. 얼마나 충성심이 높은 처녀입니까. 내가 영예군인이 돼서 그런지 그 처녀가 벌써 친딸처럼 여겨지는군요. 글썄 아들녀석은 어떻게 생각할는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제가 그 일을 어떻게 진척시키고있는가고 은근히 마음을 바재이며 지켜보던 비서동무가 그 이야기를 듣더니 몹시 기뻐하더군요.

〈영예군인이 돼서 그런지 그 처녀가 벌써 친딸처럼 여겨진다?! 음. 정말이지 준엄한 나날에 피를 흘려보지 않은 사람은 할수 없는 말입니다.〉

부비서동무. 이런 동무들속에서 일한다는게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크게 고개를 끄덕이던 비서동무는 확신에 넘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더군요.

〈아무래도 내가 신의주에 갔다와야 할것 같습니다.〉

〈비서동무가요?〉

〈허동무야 삼륜차를 타고다니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곳에 다녀오겠습니까. 내가 아버지된셈치고 영철이 어머니와 함께 도에 가서 본인을 만나고 오렵니다.〉

저는 만류했어요.

〈비서동문 어디 성한 몸입니까. 가슴에 박힌 파편이 지금에 와서 말썽을 부리고있지 않나요. 어제도 진료소장이 안정하라고 두번째번 강조했지요. 차라리 제가 갔다오겠어요.〉

비서동문 단호히 고개를 가로졌더군요.

〈아니. 내가 꼭 가야 합니다. 이런 일이란 잘되면 술이 석잔이요 안되면 뺨을 석대 맞는다는데 그래두 내가 나서야 만약의 경우 책임을 저두 이 비서가 질게 아닙니까.〉

비서동문 그길로 떠나갔어요.

그밤엔 도무지 잠들수가 없더군요.

여차하면 그 일이 성사되지 못할것만 같은 불안에 사로잡히게 되더라니까요. 어찌 그러지 않겠나요. 우리 보양소엔 얼굴에 심한 화상을 입은

영예군인 리영호란 동무가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화상이라는 말만 들어도 인차 그동무의 얼굴이 눈앞에 떠오르거든요...

그러니 영철이도 제가 소개받은 영예군인처녀의 얼굴을 상상해볼 때 먼저 늘썹 보아오던 영호동무의 얼굴이 떠오를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뜻 찬성을 하겠는지... 만약 조금이라도 실쭉한 기색을 보이는 경우 것처럼 기대를 안고 찾아간 비서동무의 립장이 얼마나 난처해지겠나요.

정말 애가 타더군요. 제가 뒤치락거리며 종시 잠을 이루지 못하자 남편이 웬일이냐고 묻더군요.

저의 말을 죄다 듣고나서 한참동안 침묵을 지켰던 남편은 무겁게 입을 뗐어요.

〈그 일이 성사될까? 혹시 성사되더라도 그들이 가정을 이룬뒤에 일생을 화목하게 살아나갈수 있을까? 이러저러한 일로 가정불화라도 생기지 않을까? 좌우간 초급당비서동무가 참 어려운 일을 맡아나섰군그래.〉

그것이 공연한 우려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전 어쩔지 반박하고싶어지더군요.

〈여보,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는거예요. 우리 둘다 부상으로 운신조차 못하는 몸이었지만 가정을 이루고 지금껏 화목하게 살아오지 않았나요. 우리 사이에 언제 한번 큰소리나 언짢은 말이라도 오고 간적이 있었나요. 그러니 그들도 아마...〉

〈허 우리야 둘다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요. 그러니만치 서로 남편과 안해라기보다 함께 싸운 전우였고 혁명동지였지. 그런데 그들은 어쩔소. 좀 다르거든. 글썽 요즘 젊은이들이란 그전날 우리들 같질 않단니까.〉

뜬눈으로 지새인 다음날 아침, 출근을 했으나 도무지 일이 손에 잡히지 않더군요. 전 해종일 비서동무가 좋은 소식을 가지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어요.

보양소구내에 땅거미가 깃들무렵 비서동무가 돌아왔어요. 비서동문 정문에 서서 안타까이 기다리고있는 나를 보더니 짐짓 놀라운 표정을 짓더군요.

〈아니. 부비서동문 하루밤사이에 왜 그렇게 늙었습니까? 갑자기 머리에 흰서리가 많아졌군요.〉

조바심이 앞선 저는 그 룡을 받아줄 겨를이 없었어요.

〈영철이를 만났습니까? 그래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다우쳐 묻자 비서동문 껄껄 웃더군요.

〈부비서동무, 마음을 꼭 놓으시우. 글썽 영철이가 나에게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영예군인의 아들인 내가 영예군인처녀를 어떻게 마다하겠습니까. 하더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동문 어찌면 얼굴도 보지 못한 영예군인처녀를 두고 일

생을 결정하는 그런 결심을 그리도 쉽게 내릴수 있느냐고 물었지요. 그랬더니 비서동지두, 그 처녀가 얼굴에 화상을 당한 영예군인이다니 보나마나 뻥하지 않습니까. 아마 보양각에 있던 영호동지의 얼굴처럼 보기 험하겠지요. 그런데 영호동지에게도 한 처녀가 찾아와서 일생을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정말이지 난 그때 얼마나 감동했는지 모릅니다. 라고 대답하더군요.〉

〈아이참 비서동무두, 왕영희는 정형수술을 해서 화상흔적을 말끔히 가시고 원래의 모습을 되찾았다는것부터 먼저 이야기하실것이지.〉

〈늦게나마 그런 사연을 알려주었지요. 그랬더니 총각이 너무 기뻐서 싱글벙글 합디다.〉

흥에 겨워 이야기를 하고난 비서동무는 다시 어디론가 발길을 돌리더군요.

〈어딜 또 가세요?〉

〈왕영희네 부모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할게 아닙니까. 이것보시우. 내 갇던김에 총각의 사진 한장 큼직하게 뿜아가지고 왔습니다.〉

〈저녁식사도 못하셨겠는데 오늘은 쉬고 래일 가세요.〉

〈안먹어도 배가 부릅니다. 부비서동무. 글썽 내 초급당비서를 하면서 못해보는 일 없다 했더니 이젠 처녀총각의 사랑까지... 처음 해보는 일이 돼서 그런지 아주 재미가 있군요. 허허.〉

매번 처음이라구 하면서두 이런 일이 생기면 도말아나서는 우리 초급당비서동무였지요.

다음날 보양소에 찾아온 왕영희의 어머니가 내 손을 꼭 부여잡은채 눈물이 글썽해서 하던 말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초급당비서동진 정말 이 에미보다 나은 사람이에요. 난 어제밤에야 처음으로 발편잠을 자보았어요. 잔치날 비서동무를 꼭 모시고 오세요.〉

영희 어머니가 돌아간 다음 전 비서동무에게 그 말을 했지요. 그런데 비서동문 왕영희의 결혼식을 우리 보양소에서 크게 차려주자고 하더군요.

제가 놀라와하자 비서동문 빙그레 웃겠지요.

〈우리 영예군인들이 모여붙어서 잔치를 차려주는건 의의있는 일입니다. 부비서동무. 왕영희가 복무하던 부대의 지휘관들도 청하고 그의 이식수술을 맡아한 함흥의대병원 의사들도 청하고 왕영희에 대한 기사를 써서 인민군군인들속에서 파문을 일으켰던 신문사기자들도 청합시다. 그래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뜨거운 사랑속에서 본래의 아릿다운 모습을 되찾은 왕영희가 가정을 이루는 모습을 보여주잔말입니다.〉

이것보세요. 우리 비서동무가 왕영희의 결혼문제에 것처럼 발벗고 뛰여다닌것은 단지 한 영예군인처녀를 시집이나 보내는데 국한된것이 아니였답니다. 난 내 생각이 너무도 짧았다는것을 자인할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때까지도 저는 우리 초급당비서동무의 가슴속에 무엇이 뜨겁게 고동치고있는가를 다

알지 못한셈이었답니다.

물론 결혼식은 굉장히 진행됐어요. 청한 손님들 이 다 찾아왔고 예견치 않았던 기록영화촬영가까지 왔답니다. 가슴팍에 훈장메달을 주렁주렁 단 우리 영예군인들이 왕영희네 부부를 축복해주는 결혼식장의 분위기는 화기애애하면서도 숨엄했어요.

신혼부부가 부어주는 첫잔은 우리 비서동무가 받게 됐답니다. 왕영희네 부모들은 물론이고 결혼식에 참가한 모든 사람들이 누구보다 수고가 많은 비서동무가 첫잔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니깐요. 모두의 청에 못이겨 첫잔을 받아진 비서동무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어요.

〈동무들! 오늘 왕영희동무가 이렇게 가정을 이루게 된것은 어느 한 일군이 관심을 돌려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왕영희의 아름다운 모습을 되살려주도록 은정깊은 사랑과 배려를 돌려주신 결과입니다. 그이께 드리는 감사의 정을 담아서 신혼부부가 노래를 한곡조 불러주기를 바랍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에 대한 뜨거운 감사의 정이 흘러넘치는 가운데 축복받은 신랑신부는 고마움에 눈시울을 적시며 노래를 불렀어요.

우리의 아버지 **김일성**원수님

우리의 집은 당의 품

우리는 모두다 친형제

세상에 부럼없어라

바로 그 감동적인 장면이 그대로 촬영기에 찍혀져 조선기록영화 《우리의 집은 당의 품》에 실리게 된거랍니다.

작년 당창건기념일을 하루 앞둔 날 저녁에 바로 그 기록영화가 텔레비존에 방영됐어요. 그 기록영화를 보고 비서동무는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부비서동무.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도 저 영화를 보셨겠지요. 우리 왕영희동무가 가정을 이루는 장편을 보셨겠지요. 그이께선 기뻐하셨을 겁니다.〉

이렇게 되뇌이는 우리 초급당비서동무의 두눈엔 뜨거운것이 맺혀있었답니다.〉

초급당비서 김성록동무가 한 영예군인처녀의 결혼문제로 그리도 마음을 쓰며 아글타글 뛰여다닌것은 바로 이때분이였다.

이 이야기는 초급당비서 김성록동무가 보양소의 수많은 영예군인들 가운데서 한 영예군인처녀의 미래를 위해 기울인 진정에 불과한것이다. 그는 이처럼 영예군인들의 사업과 생활을 진심으로 돌봐주는데서 자그마한 사심도 없는 당일군이 다.

이런 참된 당일군을 알게 된 나는 기뻐다.

작품의 주인공으로 될수 있는 전형적인 성격의 체현자를 찾고져 모대기는 우리들이기에 현실체험의 나날 이런 인물, 작가의 창작적 환상의 세계에서 리상적으로 빚어지게 되는 작품속의 주인공

공을 초월하는 이런 산 주인공과 맞다들리게 되면 역시 현실속의 인간은 아름답구나! 우리 당은 얼마나 훌륭한 주인공들을 키워냈으며 우리 조국은 얼마나 훌륭한 아들딸들을 거느리고있는가! 하는 가슴 빼근한 환희에 도취되게 되는것이다. 정말이지 이런 일군은 쉽지 않다.

사심을 버린다는게 어디 조련한 일인가.

그가 어떠한 교육을 받았으며 어떠한 책임적인 직위에 있는 일군이든지 그도 어쨌든 먹고 입고 쓰고야 사는 인간이기에 생활에서는 사적인 요구가 항시 제기되기 마련이다. 생존의 본능이랄가. 어쨌든 그 사적인 요구때문에 누구나 자신에 대한 생각을 어느정도는 하지 않을수 없는것이다.

하기에 그것이 크고작은 차이는 있을수 있으나 이런 형태로든지 저런 형태로든지 누구에게나 사심은 있을것이라는 제나름의 견해를 가지고있던 나로서는 이번 현실체험기간에 동림땅에서 이처럼 사심이 없는 한 당일군을 알게 되니 감동이 컸다.

정무원의 위원회들과 부에서 내려와 봄비는 그 손님들때문에 나는 한주일이 지나서야 초급당비서와 조용히 마주앉을 기회를 얻게 되였다.

어쩌면 그리도 사심이 없을수 있는가?

끈덕진 나의 질문에 자못 난처한듯 총이 센 머리칼을 만지작거리며 잠시 생각에 잠겼던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작가선생, 저 많은 손님들이 왜 우리 보양소에 찾아왔었는지 아십니까?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며칠전인 1월 19일에 동림영예군인보양소 영예군인들의 사업과 생활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친히 료해하시고 또다시 크나큰 은정과 배려를 돌려주셨습시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책임일군들이 영예군인보양소에 내려가서 영예군인들의 생활에서 사소한 불편도 없도록 구급차와 자동차, 텔레비존, 랭동기, 의약품, 생활필수품들을 다 풀어주도록 대책을 취해주시면서 영예군인 안해들이 년로 보장 나이에 이르면 공로자대우를 해주도록 뜨거운 배려를 돌려주셨다는것이다.

앞을 보지 못하는 한 보양생의 호실에까지 천연색텔레비존을 놓아주시고 해마다 보약도 보내주시고 중앙의 이름난 예술인들도 때없이 보내주시어 영예군인들이 언제나 락천적으로 생활하도록 보살펴주시면서도 아직도 부족하신듯 또다시 베풀어주시는 이 크나큰 사랑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김성록동무의 눈굽에 뜨거운 이슬이 반짝이였다.

《작가선생은 나에게 어쩌면 사심을 모르는 당일군이 될수 있었느냐고 물었지요.

우리 영예군인들에 대한 어머니당의 사랑은 이처럼 뜨겁고 끝이 없습니다. 이런 은정깊은 어머니당의 한 초급일군인 내가 당에서 그토록 아

끼고 보살펴주는 영예군인들을 대하면서 어떻게 자그만치라도 제 생각을 앞세울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후더워지는 가슴을 진정하지 못한채 조금 당사무실을 나섰다.

찬란한 해빛이 부채살처럼 부서져내리는 보양 소구내는 공원처럼 아담도 했다. 기대소리 정다운 작업장들, 제품이 가득 쌓인 창고들, 알뜰한 편의시설들, 구내를 벗어나면서 추녀에 추녀를 맞대고 의종게 늘어진 살림집들과 휴양각같은 보양각, 그 위에 수풀처럼 돌아난 천연색텔레비존 안테나들...

이윽도록 바라보노라니 바지런한 어머니의 손길에 윤택이 흐르는 한 가정의 알뜰한 살림살이를 보는것만 같다.

그렇다!

여기에 화목한 한 가정이 있다.

바로 여기서 피흘려 지킨 조국을 땀흘려 빛내야 함을 심장으로 자각한 어제날의 병사들이 오손도손 화목하게 서로돕고 이끌며 생활의 꽃을 피우고 있다.

화목한 가정엔 다심한 어머니가 있기 마련이다.

바로 그런 어머니가, 진정 어머니라고밖엔 달리 부를수 없는 우리 당의 한 초급일군이 여기에 있다.

그는 사심이 없는 사람이다.

사심! 그것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벌써 어머니가 아닌것이다.

(동립영예군인보양소에서)

불타라, 청춘이여!

-순천비날론연합기업소 청년건설자들의

해불모임에 참가하여-

변흥영

장쾌한 불의 흐름
해불의 바다
밤하늘을 짓태우며 넘실거린다
타오르는 불길인듯 나뭇기는 기발들
그밑엔 근엄히 선 돌격대원들

새로 세운 거룩한 카바이드로들이
불빛속에 굽어선 구내
해불든 주먹들이 높이 쳐들리고
달아오른 가슴들이 웨치는 구호소리
되성처럼 터진다
구내를 뒤흔든다

당의 부름 받은 대건설의 나날에
저 비날론기지를 안아세운
위훈많은 청춘들이 여기 다 모였구나
다시 달려갈 진군길우에
총돌격의 서렬을 지어섰구나

보아라, 해불을 들고 선 저네들이
쨍쨍 철관조차 얼어터질듯
불어치는 한겨울 흑한속에서도
아슬한 탑들을 하늘가에 들어올렸다
인민들에게 차례질 옷감을 생각하며
몰탈에 무젖은 빗바랜 작업복을
사시절 긍지높이 입고살았다

수령님 펼쳐주신 이런 전투장에서
청춘들을 빛내라고
우리 당은 불타는 심장을 주었거니
그들은 안다, 저저마다 돌격전에
시대의 영웅으로 살지 못한다면
그 청춘시절 한생애 수치로 남을것을,

불타라 청춘이여
불타라 심장이여
그 누구도 명예는 바라지 않지만
그 누구도 청춘의 영예만은 더럽힐수 없나니
후세에 불멸할 창조물들속에
이 시대 청춘의 자량을 빛나게 새겨넣자

오오, 그때문에 청춘이여
이밤 이자리에
이리도 자부높이
이리도 떳떳이
해불을 추켜들고 나서지 않았느냐

그렇다, 순천의 밤하늘을 태우는 해불들은
청춘의 가슴속에 타끓는 불덩이다!
그 불덩이를 로들에 던져넣으라
그러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화염이
저 화실들에 이글이글 타오르리라
당에 바쳐가는 청춘들의 그 숨결로
대비날론기지는 천년세월을 숨쉬며 들끓으리라!

발파소리 울려간 뒤

정동찬

철산에서 멀리
구름속으로
땅속으로
발파소리 울려간 뒤

버릇처럼 담배 한대 붙여물고
발아래 굽어보니
광산지구의 내 마을 여기저기
집집의 프락마다 울바자에
아낙네들 붙어섰구나

합숙과 리발소의 창문들
일제히 열리고
달리는 통근빠스의 창들에서
밤교대자들이 저어주는 손길들...

어느새 터져나온 아이들
유치원 앞마당에 울긋불긋
튀어오른 공이 반공중에 날고
운동장의 세찬 장난군들도 잠간
아마도 철산에 눈을 주고있으리

발파소리 뒤끝이면
아낙네들 대견스레 외이더라
용광로에 대일 정광이 쏟아지는 소리라고...
아이들 자랑스레 외웠더라

발파소리
보물산에서 큰대문이 열리는 소리라고...

꿈속에
자랑속에
어느덧 산정길을 줄지어 도는 대형차들
하나, 둘 세여도 보며
밤이나 낮이나
발파소리 울려간 뒤면
철산봉 마루에 마음을 주는
사랑스런 사람들
행복과 기쁨의 어울림속에 펼쳐놓는
내 마을의 소중한 화폭이여

발파소리 울려간 뒤면
내 한생 눈시울 적시며 버릇처럼 바라보는
저 화폭속에
더 아름답고 휘황한 미래에로 이끌어가는
음향이 있구나

저 산너머로 올라가는
발파소리 멀어져간 뒤
더 크게 더 높이 흔들어주는 행복의 메아리-
내 마을 내 사는 거리에서
못견디게 울렁이는 발파공의 이 무쇠 가슴속에서
쿵쿵 울리고있어라

철산봉의 위치

박명도

억만자원
가슴에 그득히 품고
거연히 솟아오른 철산봉

너 정녕
수도에서도 천리먼
조국의 최북단에 솟아있느냐
사시절 흰눈 가시지 않는다는
하늘아래 첫동네
그곳이 여기 전투장이냐

여기서는
한눈에 바라보이누나
하늘이 좁도록 솟아오른
광복거리의 눈부신 고층건물도
세상을 경탄시키며 나래쳐오른
《5월 1일경기장》의 은빛 지붕도

아! 조선의 백년대계도
여기 보화에 뿌리두고 설계하였고
2천일 2만일로 내달리는
그 모든 전투장의 대행진도

철산봉의 보폭에 발맞추거늘

여기서 열발과 터지면

조국도 열걸음 전진하고

여기서 백발과 터치면

조국도 백걸음 전진하나니

철산봉! 여기는

온 나라를 불러일으키는 진군나팔의 시작점

누리에 울려퍼지는

여기 장엄한 대발파소리를

조국이 룡성번영하는 소리로 들으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어느하루 한시인들

믿음에 찬 그이의 안광

여기 광구를 떠난적 있었으랴

때로는 동해가 용해장에서

폭포치는 쇠물을 헤아려보시고도

기쁨에 어려 찾으신것은

철산의 광부들

나라의 크고작은 회의때마다

앞자리 에 부르신것은

철산의 영웅들 아니였던가

말하라 철산봉아!

너는 언제나 조국의 한복판에 솟아있었고

충효에 불타는 너의 광부들은

친애하는 그이와

언제나 함께 있었거니

그때문이 아니냐

철산의 뒤통에 터지는 발파소리는

그토록 환호성으로 차넘치는것이

정녕 그때문이 아니냐

여기에 생의 뿌리내린 광부들

대를 이어 철산봉을 물려주는것이

철산봉에 올라

허창일

틈을 헤가르며 총계길 에돌아

아아한 산정에 내 오르니

놀랍구나

눈앞에 펼쳐진 로천채광장

앞을 보아도

뒤를 보아도

푸릿한 쇠돌광야 끝간데 없나니

두만강 기슭 연연뻗은 산밭들이

통채로 쇠돌인 무산광산

이것이 그대로 우리 채부여서

고개를 높이 들고 누리를 굽어보니

스스로 힘이 용솟는구나

가슴이 절로 넓어지는구나

아, 이 쇠돌산이 바로

강철기둥이 되고

강철들보가 되어

비날론 은빛지붕 받들어올리는것이 아닌가

이 쇠돌산이 바로

강철보습이 되고

강철바퀴가 되어

농장벌에 만풍년을 실어오는것이 아닌가

두려운것이 없다

우리 철산봉이 있어!

못해낼것이 없다

우리 보배산이 있어!

오, 캐고캐도 줄어들줄 모르는 이 쇠돌로

우리 경제의 위력을 뒤킵해주고

우리 조국의 무궁번영을 담보해주는

힘의 산악 무산광산

여기에 오르니

래일에 대한 확신

가슴에 차고넘쳐

새힘이 생긴다

새힘이 용솟는다

문지를 얹으마

허린정

문지를 얹으마
처음 만나도 구면처럼 미더운
철산봉사람들아
바라보면 지심깊이
아득히 뻗어간 광구길
첩첩 막아서는 암벽은 어떻게 뚫었느냐

입김도 얼어붙는 추위를 이겨내며
석수에 젖은 옷을 말리우던
우등불자리는 그 어디나
아름드리 동발목을 떠받들며
어깨걸고 터치던 노래소리는
산정을 울리는 발파소리에 어려있느냐

파쇄장의 철골을 이어가며
북방의 긴긴밤을 밝히던
용접의 불꽃들을 생각하노라
굽이굽이 채굴계단 곧추 퍼며
맵짠 바람에 더운 가슴 식히던
구슬같은 땀을 생각하노라

문지를 얹으마
지나온 나날을 어떻게 살았는가를

콘베아타고 쉬임없이 흐르는 박토
장쾌히 쏟아지는 정광폭포에
그대들의 불굴의 의지 스며있거니

나라의 경제명맥이라고
우리 당이 굳게 믿어준 전조선
뜨거운 은정 대하처럼 굽이쳐
확장공사 빨리 끝내자고
용암처럼 끓어번지는 철산봉

오, 문지를 얹으마
창조의 위훈없이
삶은 고동멈춘 심장과 같거니
당의 부름이라면
총탄처럼 곧바로 달려가고
필요하면 한목숨 서슴없는 사람들

물어서 무엇하리
나라의 억만재부를 맡겨준
당의 믿음-그것이 명예며 표창이기에
조국의 북변 한끝에 있어도
충성과 효성으로 심장을 불태우는
당의 아들들이 여기에 서있기에...

광부와 쇠돌

주광남

바라보면 거뒀한 빛갈
꺾어보면 꺼슬거리고 묵직한
쇠돌
이것이 무엇이기에
내 한생 제자식 이름보다 더 자주 외우며
가슴속 많은 말도 이것으로 대신하는가

저녁이면
반가이 맞아주는 어머니앞에

땀땀한 한마디 대답 위해서도
달아오른 광차의 발동을 끄지 못하고

때로 새벽출근길에 꽃보라 뿌리며
축복하는 아이들앞에
땀땀한 광부로 마주서기 위해서도
눈보라의 밤
작업등을 끄지 못하는 마음

더 말해 무엇하랴
인민경제도 인민생활도
우리 캐내는 이 쇠돌량에 달려있다고
나라의 생명선을 맡겨준
당의 그 믿음 그 기대 앞에야
광부들 한사람 한사람을
나라의 보배로 아껴주는 그 은정앞에야

결기모임의 연단에서도 쇠돌
출근길에 나누는 이야기도 쇠돌
명절날의 흥겨운 좌석에서도
스스럼없이 흘러나오는 말은
쇠돌, 쇠돌량

정녕
부모에게 더 하고싶은 효성도
자식에게 더 주고싶은 사랑도
쇠돌, 쇠돌로 이루어지더라
그렇게 이루어지더라
광부인 우리에게
어머니당에 더 바치고싶은 충성도

아 쇠돌없이 그 무슨 광부이라
광부없이 쇠돌은 또 무엇이라
광부와 쇠돌은
피처럼 살처럼 한운명체
광부가 있어 쇠돌은 조국의 창조물로 빛나고
쇠돌이 있어 광부는 당의 전사로 삶을 빛내노라

판문점 기행

(중국)반배명

여기는 국경이 아니다
3천리 금수강산은 갈라놓을수 없거니
판문점
이는 국경선이 아니다

포성과 포연은 가서졌어도
원췌는 총부리를 겨누고 쏘구나
민족분렬의 이 비극은
끝장을 내야 하리
내 힘찬 웨침소리를 듣노라
평화,
통일

아, 평화, 통일
동해의 기슭에서
서해의 기슭까지
산과 물이 잇닿은 강토
신의주에서
부산항까지
피줄을 가를수 없는 한형제

조선은 하나여라
역사적으로도 하나
미래에도 하나

조선의 운명은
조선인민의 손에 쥐여져있거니
미군놈
너는 네 소굴로 돌아가라!

분계선을
북과 남의 겨레들이 손을 맞잡고
열싸안는 축전장으로 되게 하자

땅크는
명절의 꽃수레로 만들고
요새가 있던곳엔
학교와 극장을 일떠세우자

정의는 승리하고
부정의는 멸망하리

여기는 국경이 아니다
유구한 역사를 이은 하나의 민족
둘로 갈라놓을수 없다
평화, 통일
이것은 인민의 의지
이것은 역사의 법칙이여라

아름다운 인간들의 화원을 가꾸어가는 당일군의 참신한 형상

-시초 《인간들의 화원에서》에 대하여-

최윤섭

오늘 우리 문학예술이 창조해야 할 수많은 전형들 가운데서도 당일군의 형상은 특별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우리 당의 위대성과 은덕에 대한 주제작품이나 당의 령도적 역할을 칭송한 주제작품인 경우에도 당일군의 성격을 옳게 설정하고 그의 특징적인 생활과 그 생활정서를 깊이 파고들 때 당에 대한 칭송의 열정도 더욱 뜨거워지게 될 것이며 또한 당을 노래한 시문학의 양상도 보다 다채로와지고 시적 일반화의 철학적 심도도 일층 강화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오늘 우리 시단에서는 당의 령도를 직접적으로 실현해가는 당일군, 이땅우에 일어난 모든 세기적 변혁과 사람들의 사상정신생활에서 일어난 거대한 변화의 중심에 선 당일군의 형상이 매우 드물게 나타나고있다.

시인들은 혁명적 시문학에 대한 당적 사명감을 깊이 자각하고 웅당 당일군형상창조에 더 많은 노력을 돌려야 할 것이다.

이러한 요구에서 볼 때 리석의 시초 《인간들의 화원에서》(《조선문학》 1988년 10호)는 우리 시대 당일군의 풍모를 진실하게 형상한것으로 하여 독자들속에 좋은 긍정적 반향을 일으키고있는 작품이라고 말할수 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일군은 어머니가 아들딸들을 따듯이 돌보듯이 언제나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너그럽고 아량있게 대하여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이 아파하는 문제들을 제때에 책임적으로 풀어주어야 합니다.》

시초 《인간들의 화원에서》는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하며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참된 당일군, 바로 이런 친근한 당일군이 늘 우리의 곁에서 우리모두가 당을 따라 걸어온 어제와 오늘처럼 래일에도 참답게 걸어가도록 선도해준다는 뜻깊은 사상이 천명되고있다. 바로 여기에 시초의 기본사상정서적 열정이 있다.

시초는 《달밝은 창가에서》, 《어느 한 병원에서》, 《그대가 듣는 말 그대가 하는 말》, 《인상》 등 다양한 정서와 표현형식을 가진 4편의 시들

로 조화롭게 구성을 이루면서 남모르는 고심속에 사람들의 고귀한 정치적 생명을 지켜주고 빛내여주는 고맙고 친근한 사람에 대한 찬가의 열정이 뜨겁게 흐르고있다.

이 시초의 성과는 무엇보다먼저 당일군에게 고유하고 특징적인 생활을 바탕으로 한 정서적 체험세계를 진실하게 형상한것이다.

시초에서 탐구된 특징적인 생활이란 한결같이 허식도 없고 과장도 없는 그저 범상한 생활이다. 하지만 그 평범한 생활이 품긴 정서적 체험은 한결같이 뜨겁고 진실하다.

고요한 밤이면
금실은실 비쳐드는
달빛을 바라보며
그대는 창가에서 조용히 시를 읊더라
...
오, 당일군
그대는
만물이 단잠자는 깊은 밤에도
하루일의 보람에 겨워
래일의 희망에 넘쳐
시인은 아니건만
시를 읊더라

시 《달밝은 창가에서》

자기 사업의 실수를 두고
자책하며 몸부림치는 의사의 모습
아, 그저 스쳐지나며 불일이 아니구나
우리 당의 품속에서 삶의 뿌리를 두고사는
사람들의 정치적 생명에 대한 처방을
내 저 의사처럼 내린 일은 없었던가
...

시 《어느 한 병원에서》

레문의 첫시에서는 고요한 밤, 창가에 조용히 비쳐드는 달빛을 벗삼아 별에 대한 시를 읊고있는 당일군의 정서 그윽한 생활이 제시되었다면 둘째 시에서는 친구의 병문안으로 병원에 찾아간

서정적 주인공 당일군이 뜻밖에 목격하게 되는 의사의 생활이 제시되고있다.

보는바처럼 첫시에서는 당일군의 정서문화적 소양이 둘째시에서는 당일군의 인간적 미덕의 체취가 배인 범상한 생활들이 제시되고있을뿐이다.

그러나 두 시편들에서 탐구된 각이한 생활이 낳은 시형상과 그 시적 일반화의 철학적 심도는 깊으며 아울러 시초의 양상 또한 이채롭게 하고 있다.

별에 대한 시줄에서 별처럼 빛나는 사람들의 눈빛, 량심의 빛발을 련상해보며 그것을 소중히 안아보는 당일군의 내성적인 사색의 세계가 밝혀지고있다면 둘째시에서는 한 의사의 실책을 두고 자신을 자책하는 당일군의 심각한 내부적 체험 세계가 세부화된 생활을 바탕으로 하여 선명하게 부각되고있다.

또한 시초의 이 두편의 시에서 각이하게 선택된 이러한 생활은 작품의 정서적 양상도 이채롭게 하고있다.

첫시편에서는 밤이라는 특유한 정서와 별에 대한 시, 인간에 대한 시세계가 하나의 밝고 부드러운 감각으로 자극되면서 서정적 주인공의 체험을 시적인 정서의 훈향으로 특징짓고있다면 둘째시에서는 이와는 다르게 의사의 실책으로부터 조성되는 극적인 내부적 체험의 심각한 정서로 전편의 시와 그 양상을 대조시키고있다.

시초는 바로 구체적인 생활만이 이러한 경향성을 극복하고 풍부한 정서와 시다운 시를 시인에게 줄수 있고 거기서 당일군의 참된 풍모를 형상해낼수 있다는것을 확인해주고있다.

시초가 거둔 성과의 다른 하나는 세부화된 생활속에서 정서적인 계기를 옮겨 잡을데 대한 창작실천상의 요구를 예술적으로 해결한 실천적 경험을 보여준것이다.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바탕은 물론 생활이지만 그러한 사람의 감정은 임의의 생활에서나 멋없이 일어나는것이 아니다.

사람의 감정은 심리의 구체적인 움직임과 련관된것만큼 선택된 생활이 심리를 자극하고 그것을 감성적인것으로 전환시킬만한 타당성이 있을 때 비로소 감정이 발생하게 된다.

시초는 바로 각이한 생활에서 서정적 주인공 당일군의 고유한 감정 체험세계가 표면화될수 있는 정서적 계기를 특색있게 잡은것으로 하여 자기의 몫을 뚜렷이 하고있다.

친구의 호실 몰라 의무실문 두드리려 하는데
반쯤 열려진 의무실에서 간간히 들려오는 목소리

-선생, 이 글자가 K 자요 R 자요?
묻는 사람은 약제사인듯
처방전을 받아온 사람은 의사인듯

헌데 어인 일인가
제가 써준 처방전 다시 보는 의사
사색이 되었구나
-내가 정말 큰일을...
K 자가 아니라 R 자요

후 -큰숨을 내쉬며
의자에 털썩 주저앉은 의사
약제사의 손잡고 말했네
-찾아와 물어보길 얼마나 다행이요

자기 사업의 실수를 두고
자책하며 몸부림치는 의사의 모습
...

이것은 결코 이런 생활적인 사건을 시의 정황으로 제시하려 한것도 아니며 더우기 이와같은 극적인 생활이 환기시킨 느낌을 작품의 서정으로 대치해보려는 의도와는 아무러한 련관도 없다.

혹시 《어느 한 병원에서》와 같은 짧은 시에 의사의 극적인 사건과 생활이 지나치게 편중되어 서정적 주인공의 생활을 초점밖으로 밀어낸듯한 말하자면 주객이 전도된것이나 아닐가 하고 의혹을 가질수도 있다. 결코 그렇지 않다.

우리는 여기서 시인에 의하여 활당된 생활묘사의 분량에 대해 주의를 돌리기에 앞서 그 세부화된 생활이 정서적 계기를 얼마나 적중하게, 얼마나 진실하게 조건지어주고있는가를 보아야 한다.

정서적 계기는 시인에 의하여 탐구된 생활속에서 마련되지만 보다 중요한것은 이미 묘사되어오던 생활 대상으로부터 서정적 주인공의 체험세계로 직접 이전시킬만한 생활의 정서적 매듭을 정확히 잡아주는것이다.

우에서 본바처럼 시에서 편중된듯싶은 의사의 무성의한 생활사건, 그것은 인간의 정치적 생명에 언제나 신중한 《처방》만을 내려야 할 서정적 주인공 당일군에게 있어서 결코 남의 생활이라고 할수 없다.

시인은 이러한 구체화된 생활속에서도 특히 의사의 가슴아픈 자책이 고조되는 정서적 매듭을 정확히 잡고 제때에 서정적 주인공의 내부적 체험세계로 이전시켜 그것을 시편의 마지막 한련에 집약시켜 개방시키고있다.

시인은 이처럼 의사의 생활이면서도 결코 의사의 생활로만 끝날수 없는 생활 사건에 대한 분석적인 묘사, 그리고 그 생활이 불러일으킨 정서적 양상을 그대로 서정적 주인공의 체험세계에 옮겨감으로써 당일군의 남과 다른 체험의 심각성, 고상한 사상감정을 일반화하는데 커다란 효과를 보고있다.

시초 《인간들의 화원에서》가 거둔 또 하나의

성파는 주제의 다양성과 통일, 그를 반영한 서정 구조형식에서도 일련의 특성을 보여주었다.

시초는 먼저 주제의 다양한 설정과 그것을 하나의 통일된 주제를 완결시켜야 하는 시초의 형태상 특성을 잘 살려낸것으로 하여 자기의 면모를 더욱 뚜렷이하고있다.

시초는 주체형의 당일군, 그와 함께 당에 속을 주고 진심을 주며 당을 따라 참되게 걸어가는 우리의 삶은 오늘보다 래일에는 더 아름다와질것이라는 그래서 우리 시대 인간들의 화원은 더욱 풍만해지리라하는 현실에 대한 레찬의 감정을 뜨겁게 노래하고있다.

시초의 이러한 기본사상감정은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당의 높은 뜻을 충성으로 받들어가는 서정적 주인공 당일군의 시형상에서 집중되면서 다양한 주제로 그 형상의 폭을 넓혀나가고있다.

시초에 들어있는 4편의 시들은 서로 각이한 생활과 사실, 사건속에서 그 매개의 시편들이 자기의 독자적인 주제를 가지면서 형상의 폭을 다양화 하고 또한 다양화된 시형상에서 하나로 통일되고 완결된 기본주제를 밝혀내고있다.

시초에는 별에 대한 시의 풍만한 서정세계속에서 별처럼 빛나는 사람들의 눈빛과 양심을 그려보는 당일군의 고상한 정신세계에 대한 레찬의 주제가 있는가 하면 한 의사의 실책에서 자신을 뉘우쳐보는 당일군의 겸허한 풍격에 대한 주제도 있으며 군중의 말, 그것을 소중한 진리의 구슬 인듯 레사롭게 흘러보내지 않는 고마운 당일군에 대한 찬가의 주제 그리고 사람좋은 당일군의 인상 등 그 주제가 다양할뿐아니라 그것을 시화한 형식 또한 매우 다양하다.

시초에서는 정론적인 호소나 강한 주정을 될수록 피하고 소박한 생활적인 시형식을 많이 취하고 있다.

그러나 작품의 마지막 시편들을 읽으면서 다소 불만스러워지는 점은 시초의 전반부에 놓인 시편들에서 보았던 인상깊은 생활들이 점차 자취를 감추고있다는것이다.

-당에 속을 주고 진심을 주고
오늘도 이렇게 함께 사니
얼마나 좋소
래일은 오늘보다
삶이 더 아름다와질것ियो

《그대가 듣는 말, 그대가 하는 말》

참말이지 읽고 또 읊고싶은 진실이 노래된 소박한 시형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감흥이 덜 느껴지는 까닭은 시의 형상총화로 되면서 결구의 자리에 놓인 이 시에 앞서 좀더 구체적이고 세부화된 생활을 제시해주지 못한것과 많이 관련된다.

시초 《인간들의 화원에서》는 물론 이러한 부족점이 있으나 우리 시대 당일군의 고상한 정신세계를 생활적인 감정으로 느끼게 하는 좋은 서정시초로서 오늘 우리 독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겨주고 있다.

시인들은 우리 인민의 사상정신생활의 본보기로 되는 주체형의 당일군형상창조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것이다.

가사

샘골마을 어머니

리재남

샘골마을 어머니 햇과일을 따가지고
오늘도 고개 넘어 병사들을 찾아가요
도로건설 다그치는 미더운 아들들
눈앞에 그려보니 발걸음 가볍다오

샘물터의 그 노래 부르던 처녀시절
등글소를 앞세우고 포탄상자 날랐다오

불타던 전호 찾아 오가던 그날처럼
변함없는 그 정을 안고서 간다오
싸움의 그날에는 전사들의 누나되고
오늘은 병사들의 어머니 되었다오
군민의 정 피워가는 뜨거운 그 정성
병사들의 가슴마다 새 힘을 준다오

삼수천

허창근

예로부터 우리 나라는 땅속에 은금보화 많고
산천경개 아름다와 그 이름 자랑높았다.

맑은 아침의 나라-조선!

비단천우에다 수를 놓은듯 아름다운 강산! 강
산이 하도 좋아 하늘에서 선녀들이 내려왔다는
꿈 같은 전설...

나는 이 땅에 태어난 무한한 긍지를 느끼며 산
다.

그리고 조국강산의 아름다움에 대하여 세상에
자랑하고싶은 마음을 늘 짊어질 수 없다.

동해의 눈부신 해돋이, 숲이 푸른 산밭들과 기
기묘묘한 바위산들, 들을 적시는 맑은 강, 세계에
이름높은 만년대계의 기념비적 건축물들과 도시
들...

그 모든것들을 한두마디의 말로 다 표현하기에
는 너무나도 아름답다.

얼마전에 나는 함경산맥 기슭에 깊숙이 자리잡
고있는 고향마을을 다녀왔다.

하늘아래 첫동네라 불리우는 자그마한 산골마
을도 자기나름의 아름다움을 간직하고있다.

봄이면 온갖 꽃이 산에 들에 만발하여 꿀벌이
유명하게 잡힌다. 그리고 산나물과 약초가 많아
고향사람들은 오래 사는것이 특징이다.

여름이면 푸른 숲... 이산 저산에서 흘러나오는
목청고운 뻐꾹새의 지칠줄 모르는 노래소리!

가을이면 깊은 산 가까운 산 어데나 머루, 다
래 돌배... 가지각색 열매들이 한껏 무르익어 물씬
물씬 향기를 풍기고 미처 다 따들이지 못한것들
이 저절로 땅에 푹푹 묻혀 떨어진다.

네면을 우중충한 산들이 병풍처럼 둘러막고있
는 오붓한 고향마을의 풍경중에서 가장 자랑할만
한것은 산기슭을 감돌아 쉬임없이 흘러내리는 물
맑은 삼수천이다. 밤이나 낮이나 소연한 여울물
소리가 은은히 메아리를 남기며 흐르고 또 흐른
다.

삼수천은 내 고향의 젖줄기이고 생명수이다.

삼수천물을 끌어 마을의 밭들을 모두 논으로
꿴냈던것이다.

그래서 우리 마을은 장작불 때고 이밥 먹는고
장이라고 린근 동네사람들이 부러워하며 칭찬을
한다. 옛날에는 조밥만 먹고 살았다.

삼수천은 참으로 고마운 강이다.

그리고 또... 풀판에 풀어놓은 애송아지처럼 해
지는줄 모르고 뛰놀던 어릴적엔 삼수천과 우리와
얼마나 깊은 인연을 맺었던가!

《여긴 쨍쨍 저긴 그늘그늘... 해야 해야... 물
먹고 장구치고 나와 놀자...》

별에 탄 알몸뚱이로 강기슭 모래밭에서 텅굴다
가도 황혼녘의 물고기처럼 맑은 물에 침범침범
뛰어들며 생의 만족감에 휩싸여 살던 그 시절에
삼수천은 우리 생활의 전부였었다.

고향의 강 삼수천을 두고 실로 많은 이야기를
할수 있다.

그러나 나는 삼수천을 생각할 때면 이 강과 관
련된 하많은 사연중에서 그 무엇보다도 대비할수
없는 한 인간에 대하여 추억하게 된다.

그는 나의 인민학교시절 정다운 담임선생님이
다.

조국땅에 전승의 축포가 오른 그해 여름, 전선
에서 돌아온 처녀선생이 우리 반을 새로 맡았다.

포연내가 신비한 향기처럼 풍기는 군복을 입은
채로인 우리의 새 선생님을 그때 얼마나 자랑스
레 맞이하였던가!

얼굴이 곱살하고 몸매 날씬한 녀선생은 노래를
잘하고 풍금도 잘 탔다.

휴식시간에도 선생님은 교실에 있기를 좋아하
였다. 풍금을 타면서 부드럽고 고운 목소리로 노
래를 불렀다.

사랑하는 내 고향엔 정든 집이 있었네
사랑하는 내 고향은 살기 좋은곳이었네
수령님이 주신 땅에 봄이 오면 씨뿌리고
단풍드는 가을이면 오곡백과 거두었네
...

우리는 풍금주위에 몰려서서 희고 검은 건반을
짚어나가는 선생님의 날씬한 손가락을 신비스럽
게 내려다보았으며 은근한 노래소리에 귀를 기울
이였다.

이따금 선생님은 아이들의 떨어진 단추도 달아
주고 학교뒤에 있는 샘물터에 데리고 가서 얼룩
진 얼굴을 씻어주곤하였다.

샘물은 참 이상하였다.

무더운 한낮에도 이발이 시리게 차고 삼수천에
얼음이 두텁게 앉은 겨울에도 얼지 않았다. 얼
기는커녕 김이 물물 피어올랐다.

왜 그럴까?

선생님은 깊이깊은 땅속에서 솟아나오기때문이
라고 하였다.

어느 공부시간에 선생님은 우리 나라의 산들에

대하여 극히 초보적인 개념들을 가르쳐주고있었다.

…우리 나라는 산이 많은 나라이다. 산이 80%를 넘는다. 이름난 산은 백두산, 금강산, 묘향산, 태백산, 한나산,...

산의 높이는 해발고의 높이로 부른다. 즉 바다물면에서부터 산꼭대기까지의 높이를 말한다....

《...산의 높이를 해발고의 높이로 부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리시간의 마감에 선생님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어 우리의 눈이 번쩍 커지게 하였다.

우리들은 의문이 가득 실린 눈길로 선생님의 작은 입만 지켜보는데 선생님은 가까스로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조용조용 뒤말을 이었다.

《...전선동부의 어느 한 무명고지에서 33 명의 인민군대아저씨들이 미국놈의 파도식 공격을 물리치는 피어린 싸움을 벌리고있었습니다.》

나중엔 탄알도 수류탄도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3 일간이나 영웅하게 고지를 지켜내고 드디어 아군의 총공격을 맞이했습니다.

그때 고지에는 성한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전투가 승리한후 서른세명중에서 아홉이나 영웅칭호를 받았습니다.

그후부터 전선에서는 33 명 용사들의 위훈을 길이 전하기 위해 무명고지의 이름을 339 고지로 부르기 시작하였었습니다.》

《?!...》

참으로 희한한 일이었다. 339 고지!...

창밖의 푸르디푸른 먼 하늘을 바라보는 선생님의 눈귀에는 맑은 이슬이 고여있었다.

그때 나의 두볼로도 웬일인지 눈물이 주르르 굴러내리었다.

나는 그것을 씻지 않고 입을 짹 다문채 그냥 앉아있었다.

(선생님도 그 고지에서 싸웠을거야. 혹시 전우들중에 거기에서 싸우다가 영영 돌아오지 못한 사람도 있을수 있어...)

그 시절에 우리는 때이르게 산에 대한 관심이 컸다. 전쟁 3 년간에 애타게 가슴에 품고 살아온 1211 고지며 351 고지와 같은 이름들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준것이다....

나는 그때 십년을 앞당겨 어른이 되는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아... 우리 나라의 산들은 그렇게 제 이름을 가지는구나! 피흘린 영웅전사들의 위훈이 깃들어 있어 우리의 산들이 그렇게 유명해진것이였구나....)

휴식종이 울렸으나 나는 어떤지 운동장으로 나갈 생각이 나지 않았다.

선생님은 그 쉬는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교실에 있어주었다. 풍금을 타고 아이들을 돌보아주고... 나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던 그 나긋나긋하고 부드럽고 따스하던 손길의 감촉을 아직도 어린애인양 잊을수 없다.

그때로부터 세월은 멀리도 흘러왔다.

그러나 지금 그 다정다감하고 인정깊던 너선생은 우리곁에 없다.

삼수천에 얼음이 건너간 초겨울 어느날에 팽이치기를 하다가 얼음구멍에 빠진 여섯아이들을 건져내고 그만 세상을 떠났던것이다.

선생님에게는 영웅칭호가 수여되었다.

신문과 방송에 정령이 보도되고 그의 애국적소행을 소개하는 기사가 대서특필로 발표되었다. 산간마을의 이름없던 크지 않은 강도 력사에 그 이름이 기록되었다!

...흐르는 세월과 더불어 이제는 기도 마음도 자라나 어른이 되었지만 나는 째이 생기는대로 고향마을에 자주 찾아간다.

삼수천 물가에 종아리를 잠그고 앉아 소연한 물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잊지 못할 선생님을 추억하군한다.

그러느라면 주절대며 흐르는 잔잔한 물결이 하냥 뜨겁게 느껴지고 선생님의 정다운 목소리가 무엇인가 끝없이 속삭이는것만 같다.

조국의 미래를 위해 고향의 강반에 영원불멸할 사랑의 노래를 꽃피우고 생을 마친 선생님! 그 잊지 못할 지리시간에 알게 된 339 고지의 영웅들과 나란히 선생님의 거룩한 모습이 눈앞에 선히 떠오른다.

수려한 고향의 산발들과 맑디맑은 삼수천 물결이 아무리 아름답다 하여도 이 강에 남기고 간 고귀한 선생님의 그 애국의 넋에는 정녕 비길수 없는것이다!

나는 조국강산의 아름다움에 대하여 이제야 비로소 알게 되는듯하였다.

이 땅의 흙 한줌, 나무 한그루, 이름없는 바위 하나와 작은 강줄기에도 자연이 준 그것으로서의 아름다움만이 아닌 보다 값진 향기와 광채가 비껴있다.

...천길 땅속에서 용용 솟아오른 샘물이 흘러 흘러 실개울을 이룬다.

실개천이 합치고합쳐 강이 된다.

강물이 모이고 또 모여 거대한 바다가 되듯이 이 나라의 애국에 불타는 슬기로운 마음과 마음들이 합쳐져 조국을 빛내이는것이 아니겠는가!

내 조국은 영웅이 많은 나라이다. 그래서 이 강산은 그토록 아름다운것이다!

할머니

(중국) 남영전

1

꽃구름 피는 공화국의 하늘에
비둘기떼 자유로이 날아오고
승리의 축포소리 환호소리
만리강산에 은은히 메아리쳐갈제
나는 가슴에 두손 얹고
못잊을 지난날을 생각하노라
자애론 할머니를 그리노라

흘러간 어린 시절
지금은 아득히 먼 옛날-
그때 나는 소치는 아이
굴레 벗은 말처럼 뛰어다니면서
장난밖에 모르는 철부지 장난꾸러기

그날도 이렇듯 명랑한 가을날
밖에서 싫도록 놀다가 집에 돌아오니
붉은 금기 한쪽 벽에 걸려있었다
아버지와 삼촌의 렬사증과 함께

《야 멋지다. 이걸 날 줘!》
신기한 장난감이라도 만난듯
나는 대뜸 금기를 채가지고
밖으로 뛰어나갔다

금실은실 실실이 드리운 기폭
나는 금기를 기발처럼 흔들며
흠뻑 묻은 아이들을 불러모았다
《봐라, 어때? 멋있지?》
나는 우쭐해서 금기를 흔들어대고
마을아이들은 성수가 나서
목이 터질듯 소리를 쳤었다

밖에서 실컷 놀다가 집에 돌아오니
이제 웬일인가 집안콰이 웅성웅성

벽에는 검은테사진 두장 걸려있고
할머닌 얼굴을 싸쥐고 울고계셨다
《할매 우지 마! 할매 우지 마!》

나는 할머니의 옷자락 부여잡고
울음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영문도 까닭도 모르는 나였건만
그저 할머니가 불쌍해서...
그러자 할머닌 울음을 그치고
나를 한품에 껴안아주시였었다

《오냐, 오냐! 울지 않으마!》
그때 할머닌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하나 눈물은 비오듯
눈물을 폭포처럼 쏟으시였다

2

해마다 봄이 오면 오는 봄이면
앞내가 버들방천에선
철따라 버들개지 움텄다
할머닌의 눈물 스며있는 버들개지
할머닌의 한숨 서려있는 버들개지
내가 사랑하는 버들개지-

하건만 그땐 나 역시 버들개지
버들개지처럼 가냘픈 몸이었었다
바람이 불면 날려라도 갈듯이
갈대처럼 바싹 여윈 몸
매일같이 꿀꿀하는 이 손자뻘에
할머닌 밤낮으로 기도를 드렸었다
어느해 겨울
눈보라치는 날
이내 몸이 죽음을 향해 달릴제
할머닌 이 한목숨 건져주시려고
오밤중 먼먼 길 떠나시였다

말만 들어도 소름끼치는
무시무시한 할라산 넘어
60 리 먼먼 길 떠나시였다

별도 보이지 않는 울창한 숲
승냥이 울고 호랑이 우는 깊은 산
할머니 혼자서 눈길 헤치면서
약 구하러 먼먼 길 떠나시였다

이튿날 아침 돌아오신 할머니
약 한봉지 들고 오시였으나
얼굴은 가시에 찢기고
발은 얼어 동태가 되어있었다

아, 할머니시여 할머니
나의 고마운 할머니 못잇을 할머니여
할머니의 그 뜨거운 손길
끝끝내 이 손자를 살려주었었다

그 이듬해 봄
앞내가 버들방천에 버들개지 움틀 때
할머니의 뜨거운 품속에서
이 손자도 다시 눈을 떴다
할머니는 안도의 한숨과 함께
환한 웃음을 띠우셨건만
이 손자는 목메여 흐느끼었다

3

할머닌 여덟살에 민머느리 되시고
서당글 엿듣다가 봉변을 당했다지만
나는 여덟살에 책가방 둘러메고
배움의 터전에서 푸른 꿈 키웠다

허나 내 어느날 뜻밖의 일에
학교운동장 잔디밭에 못박히고말았다
춘하추동 길없는 산고개에서
나무짐에 눌러 내려오시는 할머니를 보았다

그날도 할머니는 나무하러 산에 가셨다가
나무짐 진채 산판에 쓰러졌었다

하여 나는 울면서 할머니에게 사정하였다
《할매, 다신 나무하러 가지 마!
래일부턴 내가 나무하러 갈래》
나는 할머니의 품에 머리를 파묻고
설움에 복받쳐 울고울었다

허나 할머니는 가벼운 미소를 지어보이며
떨리는 손으로 나의 책을 쥐여주었다
《공부에 명심하지 않는 애는
할매의 손자가 아니다!》
채찍인양 나의 몸에 자리내는
서리같이 엄한 그 목소리
나는 그때 할머니 하신 말씀
눈물과 함께 가슴속에 묻어놓았다

4

이제금 할머닌 늙으시였다
세월의 풍상에 파파 늙으시였다
좋은 세상 보게 되시니
인젠 병상에 누운 몸이 되셨다

하건만 오늘도 할머니는 근심걱정
증손자가 숙제를 했는가고 근심걱정
할머니의 창백한 얼굴앞에서
내 무엇이랴 하랴, 눈물만 앞설뿐

아버지의 추도회 그날은
어느덧 아득한 추억으로 되었고
지난날 무시무시하던 산판에도
오늘은 대통로 쪽쪽 뻗어가고
집집마다 가스로 밥을 짓게 되었건만
흘러간 옛일은
세월이 흐를수록 또렷해져라-

그렇다
할머니의 피줄에 뛰고있는 그것이 바로
공화국의 찬연한 아침노을 아니였던가!
선렬들의 붉은피 초연속에 굳어지며
공화국의 빛나는 서광 맞이했었다!

사랑의 열차 타고 천리

(중국) 고신일

한밤을 달려온 평양행 특별열차는 동해의 해돋이에 깨어나는 해안을 누비며 질주한다. 환호하듯 달려오는 동해의 맑은 물결도 흘러가는 마을과 산야도 우리를 반기며 노을자락을 흔든다. 푸른 소나무 손을 잡자고 달려오고 록음 우거진 높고낮은 산발들이 차창안으로 열썩둥 뛰어들어온다.

동해에 끌리는 우리, 동해를 당기는 우리, 우리는 동해와 함께 달린다.

전날밤 이 특별열차에 올랐을 때의 흥분을 그대로 안고있는 우리는 이 아침 또 하나의 감동덩이를 안고 차창에 고드름처럼 매여달려 감격을 쌓으며 땀젖은 손을 뿌리고 물젖은 얼굴을 씻는다.

산 좋고 물 맑은 나라! 정 깊고 웃음 밝은 나라! 산도 물도 사람도 정을 안고 반기는 나라! 우리들의 눈에는 이슬이 맺히었다. 동해의 황홀한 선경때문만이 아니었다. 부모들이 외우고외우던 밤나무 감나무를 본때문만이 아니었다.

마당에서, 행길에서, 발머리에서, 바다가에서 우뚝우뚝 걸음을 멈추고 우리를 반기며 기뻐처럼 손을 흔들며 밝은 웃음을 보내주는 차창밖의 정 어린 모습-저 얼굴, 저 웃음, 저 정때문이었다. 해외동포인 우리를 혈육의 정으로 맞아주고 포옹해주는 저 뜨거운 불같은 마음들때문이었다. 우리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라고 가다 서고 오다 멈춰 이렇듯 뜨거운 정을 저 얼굴 저 손에 담아 보내주는 건가! 가난에 쫓기고 일제에게 쫓겨 고향을 떠나 낯설고 물설은 이국땅에 가 피나리보짐을 풀고 살아가던 우리를 이렇듯 큰 사랑으로 뜨겁게 안아주는건가, 우리가 무슨 큰 손님이라고 특별열차에 태워 오는 차를 비켜세워놓고 가는 차를 멈춰세워 놓고 우리가 탄 이 열차만 급행으로 달리게 하는건가!

우리는 저마다 뜨거운것을 삼켰다. 저 문화주택 마당에 선 귀염둥이들의 고사리같은 조막손과 책가방 멘 소년단원들이 손저으며 부르는 육성때문만이 아니었다. 농장원들과 노동자, 사무원들이 보내는 정젖은 웃음과 인민군전사의 거룩한 거수경례때문만이 아니었다.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 주석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의 뜨거운 사랑때문이었다.

어제저녁 우리 백오십여명의 재중교포참관성원들은 남양과 회령에서 특별열차에 올라 평양행 천리길에 올랐었다. 이 사랑의 천리길을 누가 생각이나 했던가! 이 사랑의 천리길을!

《...새로 나온 이 객차는 어버이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의 세심한 가르치심과 크나큰 배려로 우리 나라 로동계급이 자체의 힘, 자체의 기술로 만들어 첫 손님으로 재중동포들을 모셨습니다.》

열차원처녀의 정젖은 감동깊은 말은 흥분에 부푼 우리의 마음에 감격과 눈물을 돋혀주었다. 우리 언제 이렇듯 큰 정에 물렸던가! 우리 언제 이렇듯 큰 사랑을 안았던가!

아담한 새 차, 폭신한 침대, 라크냄새 향긋한 차벽, 진동없는 차체... 우리는 감격에 떨리는 손으로 연신 차벽과 침대를 어루쓸었다.

축전에 오는 손님을 위해 객차를 최상의 수준에서 질적으로 만들라고 여러차례 가르치심을 주시고 객차들이 새로 나온후 몸소 돌아보시며 아주 잘 만들었다고 높이 치하하시였다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의 그 사랑에 우리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특별열차는 감격으로 설레고있는 우리들을 싣고 별빛이 쏟아지는 산야를 달렸다. 밤이 깊어가는 침대에 누웠으나 좀처럼 잠을 이룰수 없었다. 마음을 깨끗이 닦지 못한채 마음을 정히 여미지 못한채 총총히 달려온 우리들을 이렇듯 크나큰 사랑으로 안아주실줄이야! 나의 가슴은 가장 순결한 흰빛을 안고 높뛰며 설레이었다.

떨거덕떨거덕! 레루짚을 지나는 열차바퀴의 룰동은 무엇인가 끝없는 말을 나에게 속삭이는것 같았다. 나는 문득 그 속삭임속에서 분명 발걸음 소리를 들었다. 순간 나의 눈에는 세차게 돌아가는 열차바퀴의 비살처럼 옮겨가는 발걸음이 겹쳐왔다. 《아! 배움의 천리길!》

나는 벌떡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다.

어린 열두살나이로 팔도구를 떠나 만경대고향집을 향해 배움의 천리길을 걸으신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 주석의 영상이 선히 안겨왔다. 주석께서는 그 어려운 배움의 천리길, 광복의 천리길을 걸으시고도 오늘 우리가 오른 이 축전의 천리길에는 이렇듯 호화롭고 포근한 새로 만든 객차를 보내주시다니!

순간 나에게에는 전에 전설처럼 들어왔던 수많은 이야기들이 불쑥불쑥 생각키웠다.

십여명의 산골학생들을 위해 통학열차를 보내주시였하던 이야기, 바다얼음위에 뜬 한 처녀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온 나라가 동원되었다는 이야기, 잠든 농장원들을 깨울가봐 마을밖에서 차를 세우고 걸어가셨다는 어버이수령님의 사랑의

이야기... 사람을 제일 귀중히 여기는 조선.
위대한 수령 **김일성** 주석의 사랑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의 배려가 인민들의 마음속에
봄비로 내리고 햇빛과 별빛으로 쏟아지는 조선!
나는 밤새 감격을 겪다가 동해에 솟는 불은 태양
을 맞이했었다.

사랑의 특별열차는 천리길을 줄이며 달린다.
점점 평양이 가까와올수록 나의 마음은 환희와

영광으로 세차게 뛰었다. 밝게 웃으며 끝없이 흔
들어주는 뜨거운 손들이 우리를 평양으로 안내한
다. 저 웃음, 저 마음으로 조선은 더 아름답고 은
혜로운 태양의 사랑으로 인민은 더 아름다운 조
선! 강산도 사람도 세월도 아름다운 조선! 조선
의 심장-아, 평양이 보인다. 평양이 손을 들어 우
리를 반긴다, 태양을 향해 가는 우리를 반긴다.

우리는 손님이 아니다

(중국) 문창남

예가 바로
오매에도 그림던 고국산천이던가

바라보고 또 보아도
눈길을 건우기 아쉬워라
쳐다보면 온몸이 푸르게 부푸는 하늘
들여다보면 마음이 하얗게 씻기는 강물
꽃이 피어 울음을 모르는 조선이여

명승의 수도만이 아닌
외진 구석부터 삶의 그늘 가지여주고
따사로운 어머니 손길인양
끝고루 쓰다듬어주는 한집안, 한혈육이여

먼길 떠난 자식 남몰래 생각하며
언젠가는 꼭 세상기쁨 다 안겨주시려
삼킨 설음, 애쓴 보람 그 얼마랴
피로 겪어온 고생은 왜 한마디 없이
시름없는 웃음만 지어주느냐
조선아, 조선아

어머니 정은
어머니 품을 떠나봐야 안다지만
어머니 품이
이렇듯 말없이 말없이 따사로울줄이야

이 따사로움을 안겨주시려
눈덮인 망망광야
비오는 첩첩수림을 종횡무진하시며
조선을 구해주신 **김일성** 장군님!
장백밀림 가랑잎 깔고
쪽잠드신 밤은 그 얼마이시랴
맑은 아침의 나라-
예로부터 불려오던 그 이름
정녕 조선을 빛내여가시는 **김정일** 선생님!
강보에 싸여서부터 백두설령 눈보라
헤쳐헤쳐오신
주체의 길 몇만리이시랴

바위마져 불타던 조선
인민과 더불어 허리띠 졸라매고
한흙의 미시가루마저 전사에게 넘겨주시며

세워주신 락원의 요람이여
세워주신 주체의 조선이여

바라보기도 눈부신 저 거창한 창조물들
콩크리트 째마다 스민 땀방울은 그 얼마?
답례의 손 흔들기도 힘겨운데
세상에 더없을 밝은 레절
온 사회적인 인정의 꽃으로 핀것은
전통뿐이던가?
무엇인지 채 느껴보기도 전인데
신비한 예술의 극치로 번개같이 움직이는 집단!
슬기와 고요로 하늘땅 수놓으며
력사를 주름잡는 선녀선남들이여
창조형 힘의 샘물로 자란 꼬마신동들이여
조선의 피줄이여, 기백이여, 싱싱한 미래여

씩씩하고 장한 모습을 걸쳐
부드럽고 정겨운 마음을 걸쳐
하나의 맥박으로 움직이는 청춘활무대를 걸쳐
참으로 주체의 힘을 보았노라
참으로 조선의 위용을 보았노라
웃음속에도 그늘이 비끼던
외롭던 해외동포들아
그 언제 오늘 이때처럼
조선사람된 긍지를 느껴보았던가
우리는 손님이 아니다
분에 넘친 혜택받고 울기만 할 손님이 아니다
벽돌 한장 못올리고 미안만해할 손님이 아니다
현해탄 건너 비내리는 부두가에서
매맞아도 울음소리 못내던 그 자손들아
그 옛날 두만강 건너 눈바람찬 산야에서
죽어서도 제상 하나 못받던 그 자손들아

우린 결코 손님이 아니다!
우리모두 일어서자, 손을 잡자!
야수같은 원썩 미제 몰아내고
삼천리 지맥을 다시 이을 때까지
형제들이여
옥계수마냥 티없는 마음으로
천지의 슬기로운 기백으로
힘과 지혜 다 바쳐가자

시창작에서 산문화의 경향을 극복하고 운률을 더 잘 살리자

김경희

1

우리는 시의 산문화를 극복하고 운률을 살리는 문제를 두고 논할 때 먼저 시적 정서를 옹계 탐구하고 체험하는 문제에 대하여부터 관심하여야 한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시에 운률이 없으면 정서도 없게 된다.》

시가 산문화되고 운률적으로 흐르지 못하는 것은 말그대로 시가 산문으로 되고있기때문인것이다.

시는 시형상의 중심에 서있는 서정적 주인공이 보고들은 생활이나 인간 그자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러한 생활과 인간에 대한 주정을 터쳐놓아야 하는것만큼 그 구절구절이 그대로 독자들의 마음속 금선을 울려줄수 있도록 노래의 박자나 선률과 같은 운률이 있게 씌여져야 하는것이다. 운률이 아름답고 순란하게 흐르는 시들을 보면 서정이 풍만하고 아름다운 시이며 운률이 없는 시는 내용자체가 산문적인것으로 채워진 시이다.

고요히 내리던 흰눈우에
그날에 울리던 자장가소리
저 어느 숲에 깃들었느냐
붉은 기발의 펄럭임소리를 들으며
그날에 오르던 그 발자욱
저 어느 이끼오른 바위우에 새겨졌느냐

백두산야에 흐르던
깊은 포연속에 간직하신 높은 뜻
저 마루에 머물러있고
조국산천을 굽어보시며 키우신 그날의 의지
천만년바위로 여기에 뿌리내렸거니
해와 달이 여기서 빛뿌리고
별들이 여기서 돌아올라라
(박세욱, 《조선문학》 1989. 5 호)

이것은 서정시 《정일봉》의 두개련이다.
위대한분의 존함을 지녀 《천만산악이 흐르는

구름속에 묻히여도 이 세상의 머리인듯 구름우에
우뚝 솟은 봉우리》 정일봉을 우러르는 우리 인민의 뜨거운 마음을 담은 시전편은 이 두개의 련과 같이 절절하게 독자들의 심금을 파고든다.

정일봉의 장엄한 위용을 우러르던 서정적 주인공의 심정은 거기에 깃든 위대한 뜻을 새기는 과정에 《한줄기 바람을 잡아 허공중에 쥐어뿌리면 눈덮인 천리수해가 격랑을 일으킬듯》싶은 신화적인 환상의 세계에 들어서며 그것은 위대한분을 모신 우리 인민의 행복을 자각하는 속에서 《여기에 섰던 불타는 심장은 꺼질줄 모르》리라는 확신으로 불타오른다.

시의 서정이 이렇게 순결하고 절절하게 흘러넘치니 그것은 벌써 산문이 아니라 운률적인 아름다운 시문장을 낳게 된것이다. 서정적 주인공의 가슴가득히 고여 흘러넘치는 감격과 송축의 서정은 그의 심장의 박동과 호흡에 새로운 주기, 새로운 진폭을 주었으며 그것은 시로 옮겨져 류창하고도 아름답게 울리는 운률을 가져왔다.

시의 운률은 바로 이렇게 시적 정서에 의하여 벌써 스스로 태어나는것이다. 이것은 물론 정서만 있으면 운률은 손달 여지가 없이 저절로 해결된다는것을 말하는것은 아니다.

서정의 풍부성이 아름다운 운률의 전제로 되면서 규정적인 의의를 가진다는것은 리석의 시 《달 밝은 창가에서》(《조선문학》 1988 년 10 호)를 두고서도 말할수 있을것이다.

이 시에서 시인은 서정세계의 탐구에서 새로운 높이에 올라서기 시작한 자기의 창작적 면모를 보여주고있다. 지난 시기 이 시인의 시에서는 간혹 서정화되지 못한 생활적인 사건과 사실 그자체를 소개하는 산문적인 요소들이 나타났으며 그로 하여 독자들의 기대에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시조 《인간들의 화원에서》는 우리 시대의 인간들과 그들의 생활을 한가슴에 안고 사랑과 량심과 지성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그들의 마음을 더 아름답고 깨끗하게 가꾸며 사는 당일군, 시대의 탐스러운 꽃, 충성스러운 인간들의 화원을 만발하게 피워가는 당일군의 고결한 정신세계를 맑은 울림과 선명한 색조로 감명깊게

노래하고있다.

그 별은
그대가 바라는 별이여라
그 별은
그대가 사랑하는 별이여라

그 별은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래일도
그대 어디서나 만나는
우리 당의 뜻을 안고사는
그 무수한 사람들의 눈빛이 아닌가
그 사람들의 량심의 빛발이 아닌가

얼마나 자연스럽게, 그리고 순탄하게 읽히우는 시구절인가. 시는 처음부터 깊은 서정적 울림으로 독자들의 심금을 파고들며 갈수록 커가는 진폭으로 그들의 가슴을 흔들어주고있다.

앞의 련에서 3음절로 된 1행과 3행은 밝게 빛나는 별에 대한 표상을 선명하게 새겨주면서 2행과 4행을 자연스럽게 이끌어내고있다. 비록 3음절밖에 안되는 시행이지만 그것이 제시하는 대상의 의미정서적 무게로 하여 이 시행은 사색적인 여운과 침묵을 동반하면서 훨씬 많은 음절수를 가진 2행, 4행과 조화롭게 대응하고있으며 유정하고 은근한 음조로 울리고있다. 거기에서 1, 2행과 3, 4행의 대구적인 시문장조직은 룰동적인 울림의 반복으로 서정의 폭과 깊이를 더 크게 해주고있다.

다음련에 가서 시인은 2행씩 짝을 이루게 하고 그 길이를 절충적으로 길게 잡아주었다. 이렇게 하여 짝을 이루는 시행들의 대응으로 룰조를 조성하고 련안에서는 호흡의 점차적인 증가로써 품만하게 설레이는 선률적 흐름을 불러오고있다.

시인이 탐구하고 리용한 이러한 운률조성수법으로 하여 시전반은 매우 아름답고 조화로운 운률로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하며 그들과 함께 생활을 창조하고 즐기는 당일군의 정신세계를 사색깊고 서정깊게 펼쳐보이고있다.

이 시의 경우에도 우리가 찾을수 있는 결론은 시인의 정서적 체험이 깊고 그가 발견한 서정세계가 새로운것일 때 그것은 새롭고 아름다운 운률창조의 확고한 담보로 된다는것이다. 시에 담으려고 하는 내용자체가 시적인것으로 되여야 거기에서 음악적인 울림이 일어나고 그것이 운률적인 언어문장으로 구현되는것이지 그 반대의 경우란 있을수 없는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시인들속에서는 생활을 정서적으로 파고들어 체험하지 않고 새로운 시의 세계를 발견하여 서정의 불길로 태움이 없이 이른바 《운률》을 만들어내려는 경향이 사라지지 않고있다. 말하자면 산문적인 내용에 운률적인 외피를 씌우려고 애를 씀으로 하여 어쩔수 없이 산문적인 서술에 빠져들어가는 경향이 계속 나타나고있다.

이러한 현상에서 무엇보다먼저 지적할수 있는 것은 기록적인 설명에 흐르는 작품을 만들어내는 경향이다.

시는 다른 문학형태와 마찬가지로 인간과 그의 생활을 반영한다. 그런것만큼 인간들의 성격과 그들의 호상관계, 사건, 사실 등이 시의 세계에 들어올수 있다. 그런데 시에서는 그것이 객관적인 사건이나 사실 그자체로 담겨지는것이 아니라 서정적 주인공의 내면세계에 일으킨 정서적 체험의 형태로 반영된다. 시에서 독자들이 얻으려고 하는것은 정서이지 사건이나 사실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 시들에는 기록적인 설명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것들이 적지 않다. 정황과 사건, 인물의 경력과 행동에 대한 소개는 해설과 설명을 가져오며 그것은 결국 운률적인 시문장이 아니라 산문적인 문장에 담겨져 음악적인 룰조와 선률을 머금지 못한 시 아닌 《시》로 내놓이게 된다.

이런 경우에도 시인은 시행도 만들고 시련도 만들지 않을수 없으니만큼 산문적인 문장을 토막쳐 나누어놓고 거기에 시맛이 나는 토들을 달아놓는다. 그러나 그것은 내용적으로 시가 아니기 때문에 쪽 련결시키면 재빨리 소설이나 기행문의 한 단락으로 되고마는것이다.

최근에 창작되고있는 일부 대건설주제 시들이 그러한 결함을 가지고있다. 그러한 시들에서 시인들은 우리 인민앞에 휘황하게 펼쳐진 전망과 그것을 그려보는 다함없는 궁지와 량만을 노래하려고 하면서도 그것을 신문과 방송에 날마다 소개되는 대건설대상지들과 그 전망적인 생산물들의 이름을 렬거하는것으로 해결하려 하고있다. 자동화, 로봇트화, 련포벨, 광복거리, 비날론, 카리비료... 이러한 수많은 대상들의 렬거는 복잡한 표상들의 교체로서 독자들의 머리를 어지럽게 할뿐 아무런 정서도 불러일으키지 못하고있다. 소개식의 화폭전개에 더하여 극히 시화되지 못한 산문적인 단어들이나 토들이 여기저기 섞여있음으로 하여 시련들은 말그대로 지루한 산문으로 되고있다. 그러니 이런 시들에 무슨 운률이 있겠는가, 감정의 출렁거림이 없는 시에 박자와 선률

이 없으리라는것은 너무나도 명백한 일이다.

산문적인 내용으로 하여 운율이 생겨나지 않게 되는 다른 경우는 생활을 정서적으로 파고들어 감성적인 체험을 펼치는것이 아니라 그 본질을 분석하면서 논리적으로 도해하고 일반화하는것이다.

논리적인 사색과 정서적인 체험은 다같이 인간의 내면세계에서 벌어지는 심리운동이면서도 그 방향과 과정이 근본적으로 다른바 그것이 글로 옮겨질 때에는 완전히 구별되는 형태를 가지게 된다.

논리적인 분석과 추리는 과학적 사고과정으로서 과학저술에서 힘있는 무기로 된다. 시창작에는 순수 논리적 일반화가 필요없으며 그것은 풍만한 정서적 체험과 토로의 기초로 자리잡고있을 때에만 의의를 가진다. 그런데 우리의 일부 시인들은 사건과 사실들을 시행과 시련들에서 레증자료처럼 켜고하고 그것들에 내재한 사회적 본질을 일반화하여 결론을 도출해내는 시 또는 어떤 논제를 내걸고 이른바 《철학》적 분석과 일반화를 전개해나가는 시들을 적지 않게 내놓고있다. 이러한 시들에는 레외없이 앙상한 논리가 전면에 드러나있으며 독자들의 가슴을 정서적으로 젖어 들게 하며 설레이게 하는 서정이 없다. 따라서 운율도 없게 된다. 이런 시들을 읽을 때 독자들은 정서세계에 잠겨들기에 앞서 추리와 논리의 계단을 더듬게 되며 뜨거운 호홉속에 감동하는것이 아니라 랭철한 리성으로 깨닫기만 하는것이다. 결국 이러한 작품은 예술작품으로서의 시인것이 아니라 내용과 언어문장에서 강연제강에 지나지 못하게 되는것이다.

귀납적 또는 연역적 추리의 도해우에서 언어문장을 엮어내고있는 시들을 보면 시인이 어떻게 하나 순수 논리와 추상의 세계에서 벗어나 서정의 물결을 일으키고 운율적인 파동이 생기게 하려고 무진 애를 쓴 흔적을 찾아볼수 있다.

자리바꿈법을 써서 뒤에 놓여야 할 술어를 앞에 내오며 체험적인 맛을 강조하기 위하여 《우리는 알았어라》, 《우리는 생각했어라》 《어찌 다 알았어라》 등과 같은 말로 시련을 시작하기도 하고 《진정》, 《정녕》, 《정말》 등의 부사들을 편발하기도 하는것이 그 실례이다. 그러나 이것은 운율조성에서 큰 역할을 하지 못하는 하나의 발림에 지나지 않는다.

산문화를 극복하고 운율을 살리는 문제는 결국 순수 형식을 이렇게 저렇게 꾸미는 문제인것이 아니라 그보다 먼저 정서적 체험을 깊이하여 새로운 시세계를 발견하며 서정적 내용을 풍만하게

가꾸는 문제이다.

시창작에서 산문화경향은 먼저 내용의 산문화에서 출발되고 마침내 산문적인 언어와 문장에 의하여 물질적인 실체로 고착되어 나타나는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산문화를 극복하고 운율을 살리기 위한 근본방도를 생활에 대한 정서적 체험의 적극 화, 시적 사색의 심화에서 찾아야 할것이다.

2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언어작업에서는 시어를 잘 골라내는것과 함께 음악적흐름에 맞는 시문장을 잘 짓는것이 중요하다. 시적인 어휘라고 해도 제자리에 놓이지 못하면 뜻을 제대로 나타내지 못한다.》

시인이 시에 사상감정의 정수를 담으려고 하는 경우에도 그것을 산문식으로 서술해놓으면 시형상이 이루어지지 못하며 따라서 정서도 없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시인들은 시적 어휘의 탐구와 함께 그것을 시적인 문장으로 엮어놓는 문제에 깊은 관 심을 돌려야 한다.

근래에 와서 우리 시인들은 조선시가 운율조성의 특성과 현대 자유시 운율조성수법에 대한 보다 깊은 인식을 가지고 시창작에서 새로운 성과를 거두고있다.

특히 시창작에서 운율단위들의 의미정서적 대응, 문장구조적 대응을 활발히 조성함으로써 서정성이 풍부하고 운율이 아름다운 시들을 많이 창작해내고있다.

운율은 반복률인것만큼 그것은 시행과 시련에서 일정한 단위들이 서로 조화롭게 마주치며 대응하는 현상이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지난날에는 흔히 음절수량의 반복, 음절들의 수자적 반복, 시어 소리의 반복 등을 강조하여왔다. 그러나 지금은 그와 함께 문장구조적 대칭을 탐색하는데 힘을 기울임으로써 운율조성의 다양하고 무제한한 가능성을 옹계 리용하고있다.

낮익은 트랙이다
글읽는 소리가 들려온다
음악실 창너머 흘러나오는 노래
이 모든것
지나간 나날이 간직한
소중한 삶

꽃들이 한창

여름을 무르익힌다
 옛 교정에
 잊지 못할 위대한 자옥을 빗내이며
 한번 피는 계절을
 천만년 세월의 향기로 수놓으며...
 (홍현양 시초 《헤어져 살아도 남이 아니다》
 《조선문학》 1988년 10호)

여기서는 눈앞에 펼쳐진 오늘에 대한 감각과 거기에 깃든 어제의 성스러운 의미를 새기는 사색적 체험이 시로 어울려 말 못할 감격과 흥분에 싸여있는 서정적 주인공의 서정세계가 짧은 주기의 탄력성있는 물조로 부드럽게 울려나오고있다.

시인은 주어진 성음조건을 충분히 타산하고있을 뿐아니라 시문장조직에서 시구들의 대칭을 구체적으로 짜고들고있다.

앞의 편에서 전반부 3개행은 3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져있는바 다같이 옛교정에서 시인의 눈에 보이고 귀에 들려오는것들을 소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면서 문장구조적으로 두개형은 같은 형태를 짓고 세번째것은 명명문형식을 가지였다. 따라서 매우 부드럽고 선명한 음조적 흐름이 산생되었으며 유정한 정서가 여운있게 감돌고있다.

시행안에서는 운각들의 부딪침으로써 음악적 울림이 일어난다.

후반부에서 4행과 6행 《이 모든것》, 《소중한 삶》은 본래성음에 있어서 4음절에 불과한 2운각 시행이다. 그러나 여러 음절조들을 가진 다른 시행들과 얼마든지 대응할수 있도록 그 의미정서적 무게가 크다. 따라서 그것은 다른 시행들에 융해되어버리지 않고 당당한 성음단위로서의 자격을 갖추고있으며 랑송자에게 호흡과 발성의 큰 폭과 길이를 담보해주고있는것이다.

두번째 편에서도 시인은 시행조직과 문장조직에서 대칭현상을 일으키지 못하는 외토리성분이나 균형을 담보하지 못하는 허약한 성음단위들을 허용하지 않고있다. 그렇기때문에 비록 시련을 이루고있는 시행과 시문장이 과격적인 감이 있지만 운물성음의 견지에서 볼 때 균형적이고 대칭적인 조화를 이루고있는것이다.

성음단위들의 대칭적인 조화를 달성하면서도 시인들은 그것을 단순화하지 않고 시련의 서정이 다양한 그만큼 다양한 형태로 조성하기 위하여 힘쓰고있다.

...
 더 밝게 빛나라
 전자, 자동화의 수억만 불빛이여
 더 굽이쳐 흐르라

직기바다우에 꽃비단물결이여
 보다 크고
 보다 위대하고
 보다 장엄한 나날로 하여
 파도처럼 설레이는 우리의 가슴이여
 (《새해 진군길에서 부른 노래》
 김만영 《문학신문》 1989. 1. 20)

운물조성을 위한 노력의 일단을 찾아볼수 있는 시련들이다.

여기에서 보면 앞편에서는 자리바꿈법과 대구적인 문장구조가 구사되면서 대칭을 이루고있으며 그로 하여 폭넓게 설레이는 음악적 물동감이 조성되고있다. 먼저 1, 2행에서는 서로 매우 밀접히 련결되어있던 문장성분들의 자리를 인위적으로 변동시켜놓음으로써 산문적인 흐름을 시적, 운물적 흐름으로 바꾸어주고있다. 결과 1행과 2행, 3행과 4행이 의미정서적으로나 문장구구조적으로 통속관계로부터 대칭관계로 넘어갔으며 힘있게 마주치며 조화되는 성음상 물조가 생기였다.

그런가 하면 1, 2행과 3, 4행은 대구적인 반복을 이루면서 운물적 울림의 폭을 넓히고 단순한 울림이 아니라 힘있게 설레이는 울림현상이 생겨나게 되었다.

두번째 편에서는 이와 달리 감정을 힘있게 고조시키고 상승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운물을 조성하고있다. 여기서는 《보다》라는 어휘를 일방으로 하면서 의미상 정도로 보나 성음상으로 보나 강해지고 증가되는 방향에서 다른 일방을 련속적으로 맞세워나감으로써 단순한 음조의 반복적 울림이 아니라 보다 높이 솟구쳐오르며 거세여지는 시음악적 물동과 선물이 생겨나게 하고있는것이다.

근래에 와서 시운물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운물조성방도에 대한 연구가 심화되어 시창작에서 많은 전진이 있었지만 아직도 우리의 서정시들에서는 산문적인 서술들이 적지 않게 나타나고있다.

네거리에 단정히 선
 교통안전원처녀의
 춤추듯 절도있는 동작에서도
 생기가 풍기고

표식등 번쩍이는 건늬길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와 같이
 정연히 건느는 모습에서도

새 아침의 즐거움이 넘쳐라

그 바쁜길에서도

기울어진 길가의 꽃도 바로세워주고

길 건너는 어린 학생 손목도 잡아주는

그 미쁜 마음들이

명절처럼 흥성거리는 거리!

(리영복 《새날의 첫걸음》 《조선문학》

1986년 4호)

이 시는 꼭 붙여읽으면 여불없는 산문이다. 여기서 2련의 마감에 놓인 《넘쳐라》를 《넘친다》로, 세번째 련의 마감 《거리》를 《거리이다》로 고치면 완전한 산문으로 되고만다. 시에 새 아침을 맞는 서정적 주인공의 희망찬 서정이 없는것은 말 할것도 없고 운률을 일으키는 조화로운 시문장조직의 흔적도 보이지 않는다.

이 시가 이처럼 산문적인 문장으로 된것은 주로 시전반이 운률을 말아먹는 서술식 구조로 이루어져있기때문이다. 서술식 문장구조는 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분배치가 산문적인 위치 그대로이며 그것들이 련속 종속의 형태로 이어져간다. 결국 시구들과 시행들이 운률단위로 맺히지 못하고 그냥 줄줄 미끄러져내리며 그러다나니 어느 대목에서도, 어떤 형태로도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는것이다.

운률이 없는 산문적인 서술은 형태상 대응구조를 이루고있으면서도 실제상으로는 시어들과 시구들이 의미정서적으로 대응하는 짝을 이루지 못하고있는 경우에도 나타나고있다.

산기슭 잔디라면 그 흔한 잔딘데

기계공장 구내라면 그 흔한 잔딘데

세멘트공장의 잔디야 예서뿐

처음 보는 푸르른 잔디밭

(조빈 《구내의 푸른 잔디》

《조선문학》 1989년 2호)

얼핏 보면 음수률상으로 3041304, 4041303 으로 되어있고 반복법문장도 있어 운률이 있는것 같지만 실제로는 운률이 제대로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시인이 순수 형식적인 조화에 매달리면서 의미적인 리해와 조화가 이루어지게 시문장을 만들지 못하고있기때문이다.

운률을 파괴하여 서정성을 떨구는 산문적인 서술은 시화되지 못한 시어들, 정서를 머금지 못하고 뜻이 명백치 않은 시어와 문장들을 마구 섞어 놓고있는데서도 나타나고있다.

가슴속에

그 어떤 변화가 일어날 때에도

먼저 철산봉에 올라 기대를 잡고

당에서 그 어떤 구상을 펼칠 때에도

남먼저 말없이

기대부터 정비한 사람

(김홍권 《영웅은 말이 없다》 《조선문학》

1989년 2호)

시련을 읽으면 앞 세행과 뒤 세행이 대구를 이루면서 음조의 대칭에서 오는 톨조가 느끼지는듯 싶다. 그러나 반복하여 읽으면 그것이 순수 형식에서 오는 속이 빈 느낌일뿐이라는것이 점점 뚜렷해진다. 이 시련에서 2행과 4행이 순수 산문적인 서술로 되어있기때문에 대구를 이루는 쌍방의 내적, 정서적 공명이 없어서 대구적인 시문장 조직에서 고유한 음조의 꺼울림현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있는것이다.

시에서 운률을 살리지 못하는 현상은 이밖에 호흡률에 상응하게 시어들의 음절수, 응절조수, 운음 등을 잘 조화시키지 않고 시행과 시련, 시문장을 마구 만들어내는데서도 많이 나타나고있다. 이에 대하여서는 이미 많이 논의하였기때문에 여기서는 반복하지 않으려고 한다.

제반 사실은 우리 시인들이 운률조성에 관한 작시법적 리해를 더욱 깊이 가지며 창작실천에 그것을 구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있다.

시론을 연구하는 리론가, 평론가들은 운률에 대한 연구를 더욱 심화하여 시인들의 창작사업에 더 큰 도움을 주도록 하여야 할것이다.

처녀와 잉어

고구려 명주 (강원도 강릉지방)땅에 한 처녀가 살고있었다.

그 처녀의 집은 뒤로 산을 등지고 앞으로 큰 늪을 낀 산골짜기에 자리잡고있었다. 산에는 꽃들의 향기가 그윽하게 풍기고 골짜기마다 구슬같은 맑은 물이 소리쳐 흘러내려 그 아름다움이란 이를데 없었다.

명주땅의 경치가 아름다와서인지 처녀의 마음도 또한 곱고 얼굴도 아름다웠다. 그는 언제나 산에서 꽃을 즐기고 버드나무 휘늘어진 늪가에서는 고기들과 희롱하면서 자랐다. 처녀는 산경치도 즐겼지만 고기들에 대한 정성이 또한 지극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언제나 물가에서 고기와 놀기를 좋아하였으며 아침저녁 고기들에게 먹이를 주면서 정히 길렀다. 그런것만큼 고기들은 어느사이에 처녀에게 정이 들어 그의 발자국소리만 나면 그 어디서나 알고 발아래로 모여들었다.

늪가에는 수양버들이 늘어서고 주위의 산들에는 숲이 깊어 처녀가 사는 골짜기는 한없이 고요하였다

어느 봄날 저녁 그 늪가에 한 젊은이가 나타났다.

그는 평양에서 이곳에 휴양차로 내려왔던 사람으로 그날 화창한 봄날의 한때를 즐기거저 소풍하러 온것이다.

젊은이는 늪가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서 우연히 한 아름다운 처녀를 만나게 되었다. 그는 늪가에 사는 고기를 기르는 처녀였다.

처녀는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와 같이 그 지없이 아름다웠다.

젊은이는 문득 발걸음을 멈추고 처녀에게 눈길이 쏠렸다. 그런데 처녀는 늪가에 살며시 앉더니 한편에 낀 싸리바구니에서 고기먹이를 던져주는 것이었다.

늪가에는 저물녘의 적막이 고요히 내려앉고있었다.

젊은이는 한참동안 뒤모양을 바라보고나서야 비로서 그 처녀가 무엇을 하고있는가를 깨닫게 되었다. 이윽고 처녀는 고기들에게 밥을 다 주고나서 자리를 털고 일어섰을 때 뜻밖에 젊은이와 눈길이 마주쳤다. 그는 문득 놀란 빛을 띠우고는 이어서 머리를 푹 수그린채 돌아서서 총총히 걸어갔다.

젊은이는 한참동안 그자리에서 발을 떼지 못하고 처녀의 뒤모습만 멍하니 바라보고있었다.

그는 처녀를 처음 만난 날 밤 깊이깊이 생각하던 끝에 마침내 시한수를 지어서 자기 마음을 호소하기로 작정하였다.

다음날 젊은이는 시를 쓴 편지를 처녀와 만났던 곳에다 떨어뜨리고 근처의 버드나무뒤에 숨어서 살피고있었다.

얼마후 역시 처녀가 싸리바구니를 들고나오다가 뜻밖에 편지를 발견하였다.

젊은이는 그 순간 마음을 조이며 처녀의 행동에서 눈길을 떼지 않았다.

시를 읽고난 처녀는 당황하여 얼굴을 살짝 붉히었다. 처녀는 사방을 한번 살핀 다음 다시한번 그것을 들여다보고는 살며시 가슴속에 간직하는 것이었다. 순간 입가에 빙긋이 웃음을 띠우는 젊은이의 가슴은 후련한 기대와 희망으로 설레었다. 역시 처녀에 대한 사랑을 한가슴속에 뜨겁게 느끼었다.

그 이튿날이었다. 젊은이는 마침내 처녀를 만나 자기의 마음을 한번 하소연하리라고 결심하였다. 그는 그이상 더는 참을수가 없었던것이다.

늪가에는 역시 황혼이 깃들어 한결 고요하였다.

처녀는 어느때와 다름없이 늪가에 나와 고기들에게 먹이를 던져주었다. 순식간에 늪의 돌우에는 물살이 주름잡혀 번져갔고 고기들이 어느새 모여들어 처녀를 반겨주듯 물위로 솟구치군하였다.

이윽고 처녀가 몸을 일으켜 돌아설 때 또다시 젊은이가 처녀앞에 나타났다.

그는 처녀앞으로 다가서면서 매우 흥분된 어조로 말하였다.

《저는 평양에서 이곳에 휴양하러 내려온 사람이요. 며칠전 늪가를 지나다 그대의 아름다운 모습에 탄복하여 저의 숨길수 없는 마음을 한편의 시에 담아본것이온데 아마 지금 그의 품에 가있으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순간 처녀는 당황하였고 가슴은 방망이질을 하였다. 처녀는 말없이 곧 옆으로 몸을 돌리며 머리를 수그렸다. 젊은이의 안타까운 마음은 어찌 할수가 없어 다시 한결을 다가서며 처녀에게 재촉하였다. 그러나 처녀는 여전히 대답은 없었고 옆에 낀 싸리바구니만 만지작거렸다.

처녀의 태도에 젊은이는 더 다른 말을 찾지 못하고 한참동안 침묵만 지키다 어찌할수 없이 헤어졌다.

다시 그 이튿날이었다.

젊은이는 또다시 늑가에서 처녀를 만났다. 그리고 역시 사랑을 하소연하였다.

처녀는 여전히 고개를 소곳이 숙인채 대답이 없었다. 그러나 젊은이는 단념하지 않았다.

그는 처녀가 그후로도 한결같이 늑가에 나타나는데 은근한 희망을 가졌다.

처녀에게로 보내는 시와 하소연이 꾸준히 계속되는 가운데 며칠이 지나갔다.

어느날 처녀는 비로소 고기먹이를 주고 돌아가는 길에 주위를 살펴 젊은이를 찾는 눈치이더니 편지 한장을 떨어뜨리고 그대로 총총히 사라져버렸다. 이어 버드나무뒤에 숨어있던 젊은이는 뛰어나와 그 편지를 뜯었다.

흥분된 마음으로 편지를 다 읽고난 순간 그는 일찌기 겪어보지 못한 다시없는 행복을 느꼈다.

이튿날, 젊은이는 짙막한 작별의 편지를 남기고 곧 집을 꾸리자 다시 평양으로 떠났다. 하루빨리 처녀의 부탁대로 학업에 전념하여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였다. 그 역시 뜻이 깊은 순진한 총각이었다.

젊은이가 평양으로 떠난 다음이었다.

처녀는 여전히 아침저녁이면 물가에 나와 고기들에게 먹이를 주고 이따금 산에 오르면 꽃을 벗삼아 한때를 보내곤하였다. 처녀 역시 젊은이를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고있었다. 그리하여 처녀는 늑가에 앉으면 그의 모습을 그리며 시름없이 생각도 하며 이따금 그가 즐기며 몸을 숨기고 자기를 기다리곤하던 늑가의 바로 그 버드나무에 의지하여 한때 그의 모습을 그리기도 하였다.

그런데 그후 이러한 딸의 사정을 모르는 그의 부모는 사위를 맞으려고 서둘렀다. 처녀는 이미 아버지, 어머니가 웅당 그런 일을 걱정할 나이가 되었던것이다. 게다가 잔치날까지 정하여놓았으니 처녀의 안타까움은 무엇으로 말할수 있으랴. 그렇다고 하여 아버지, 어머니에게 감히 자기 가슴속 깊이 새겨둔 비밀을 말할수도 없었으며 또한 자식의 도리로써 응하지 않을수 없는 일이었다.

그 누구에게도 하소연할길 없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처녀는 아버지, 어머니의 눈길을 피해 눈물도 흘렸고 밤이 오면 애인에 대한 그리움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뿐아니다. 이제는 잔치날까지 가까와오니 처녀는 가슴이 터지는듯하였다. 그는 날아가는 기러기라도 붙들고 자기 심정을 전하여주고싶은 간절한 심정이였다.

이런 어느날 처녀는 애인에게 보내는 한장의 편지를 썼다.

《그리운 랑군님, 그지간 육체건강하시온지? 지금 어디에 홀로 계시는지 알길 없는 저의 안타까운 심정을 전하옵니다. 우리 둘이 늑가에서 맺은 백년언약을 알길 없는 저의 부모님은 지금 나

를 시집보내려고 사위를 택하여 잔치날까지 정하였으니 이 일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어디에 계시는지...》

처녀는 마음속 깊이에서 울려나온 대답한 생각으로 애인에게 보낼 편지는 써놓았으나 그가 있는 곳을 알수가 없어 보낼길이 막연하였다.

그날 저녁도 역시 늑가에 나가 고기들에게 한 번 먹이를 주고나서는 낮에 쓴 편지를 가슴속에서 살며시 꺼내어 여전히 희망없는 하소연을 입속말로 속삭였다.

《만일 편지를 보낼수 있다면...》

그러나 그의 희망은 온갖 허망한 꿈에 지나지 않았다. 처녀는 자기의 희망을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것이 너무 야속하여 원망스러운 말소리로 고기들을 향하여 하소하였다.

《이 무심한 고기들이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단말이나, 그리운 님에게 편지를 썼으나 보낼길이 막연하구나. 너희들이 아무리 말 못하는 미물이라 할지라도 어찌 애라는 주인의 마음을 그렇게 몰라주느냐.》

그의 눈에는 어느사이엔지 눈물이 괴였다.

그러나 고기들이 무슨 대답이 있으랴.

처녀는 마침내 애라는 마음을 진정하지 못한채 편지를 늑에다 던졌다. 그이상 편지는 그의 마음만 애달프게 할뿐 한갓 필요없는 종이에 불과하였다.

그런데 편지가 물위에 닿는 순간 신기한 일이 나타났다. 그것은 늑에 있는 수많은 고기들이 편지를 향하여 쏜살같이 모여들더니 제마금 서로 물러고 다투다가 그중에서 가장 큰 잉어 한놈이 편지를 물고 단번에 삼켜버리는것이였다.

그리고는 어데인가 물밑으로 사라져버렸다. 이 광경을 바라보고있던 처녀는 마음이 괴로운중에서도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X

한편 평양으로 올라간 젊은이는 그날부터 매일 같이 글공부에 전념하였다. 처녀와의 약속대로 하루빨리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였다. 그도 역시 처녀에 대한 생각을 그 어느 한때도 잊지 않았다.

그 어느날 저녁이였다.

그의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여앉아 밥상을 받았을 때였다. 그의 어머니가 편지 한장을 내어보이면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였다.

《참 이상한 일도 있지. 오늘 장마당에서 잉어 한마리를 사다가 배를 가르니 그 배속에서 이런 편지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게 어느 녀인이 누구한테 보내는것인지. 사연인즉 정말 애처롭구나. 받을 사람을 우리가 알아서 전해주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리고 어머니는 몹시 섭섭해하였다.
편지는 백지에 단정하게 쓴것인데 그것은 누가 보아도 그런 생각이 드는 애달픈 사연이었다.
식구들은 모두 긴장한 얼굴이었다.

젊은이가 그 편지를 대할 때다. 그는 한참동안 편지를 뜯어지게 들여다보고나서

《이것은 틀림없이 그 처녀가 나에게 부친것이다.》

이렇게 혼자 중얼거리며 사뭇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그것은 우선 글씨부터 그러하거니와 사연도 능히 있음직한 일이었다. 물론 그도 처녀와의 약속을 굳게 믿어왔지만 그동안에 처녀에게 그러한 일이 전혀 없지 않으리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

이튿날 일찍 젊은이는 명주땅을 향하여 떠나기 앞서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비로소 명주처녀와 맺은 사랑을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그가 오늘까지 그 사연을 숨긴 자기의 잘못을 사죄하였다.

그러나 부모는 그를 탓하지 않았을뿐더러 그 편지에 대한 신기한 매력과 함께 오히려 처녀의 아름다운 소행을 칭찬하였다.

젊은이가 부랴부랴 명주땅에 다달았을 때 그날은 바로 늑가 처녀의 집에서는 잔치가 있는 날이었다. 게다가 새 사위될 사람이 색시네 집에 막 들어설무렵이었다. 잉어의 배속에서 나온 편지는 역시 헛된 소식이 아니었다.

젊은이는 집안에 들어서기가 바쁘게 처녀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인사를 드리고 숨가쁜 목소리로 그와 처녀와의 굳은 약속으로부터 시작하여 잉어가 전해준 편지매력을 이야기하고 자기의 심정을 하소연하였다.

처녀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 사연을 듣고서 감격어린 어조로 말하였다.

《그렇다면 그것도 너희들의 맺은 약속과 지성이 하늘에 통한것을 말하는것이니 어찌 우리가 제뜻만 고집하고 그것을 막을수 있겠느냐.》

이렇게 그들은 두사람의 사이를 허락하고 그자리에서 새로 정한 신랑을 물리고 그날로 젊은이와 딸의 잔치를 치르었다. 그것은 한때만 늦었던들 영원히 찾을수 없었을 위태로운 순간에 이루어진 사랑이었다.

사람들은 누구나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신비롭게 여기였고 그들의 굳은 마음에 매우 감동되었다.

명주는 때마침 가을이었다.

높은 산 바위틈에는 단풍이 물들어 꽃을 대신하고 늑우에는 이미 찬 기운이 깃들어 물은 거울과 같이 맑고 고요하였다. 늑가운데는 고기들이 여전히었다.

젊은이는 그후 남보다 훌륭한 사람이 되었고 그들은 소원대로 다시 없는 정다운 부부가 되었던것이다.

한시

구룡폭포

곽종석(19 세기말~20 세기초)

멀리서 보니 구름끝에
비단필이 달려있는듯
깊은 산골에 달려와서
흐뭇하게 바라보노라

간사한 무리 꾸짖어 내모는듯
우뢰소리 끝안을 흔들고
무더운 여름 소리쳐 쫓는듯
눈발이 누리에 쏟아지네

부끄러워라 선비의 옷차림으로
거세찬 자연과 맞선것이
석벽에 새긴 큰 글씨
교룡이 그냥 꿈틀거리누나

열해동안 내 가슴속에
서려있던 울분을 뿜어
푸른 공중 향해 통쾌하게
한번 소리쳐 웃어보노라

참대순

김원석

나의 직종

198X년 10월 21일

내 일생의 첫 직종은 오늘로써 결정되었다. 이제부터 나는 여기 화력발전소 설비보수과 지도원이다. 설비보수과! 보수지도원! 보수! 보수!...

어찌보면 보수계통은 이미 오래전부터 나와 뗄 수 없는 인연을 맺고있었던 것 같기도 하다. 나의 아버지가 과거에 여기 열보수직장에서 일했던 것이다. 그러다가 다른 발전소건설장에 옮겨간 후 신병으로 돌아가신 것은 췌 후의 일이지만...

어머니는 나에게 여기 와서 아버지의 이름만 부르면 반가와할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했다. 그러나 정작 와보니 그렇지 않았다. 배치를 기다리는 이들동안 오래 있었다는 몇 사람에게 조용히 물어봤으나 아버지를 잘 모른다고 했다. 서운하면서도 놀라웠다. 아무리 이름없는 보수공이라도 한곳에서 20년 가까이 일해왔는데 여기를 뜬 지 오래 되었다고 이렇게 가뭇없이 잊을 수가 있는가. 아니면 나의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는 예서 오래동안 일해왔지만 오늘날엔 그 누구의 아리송한 추억속에도 남지 못할 그렇게도 하찮은 사람이었던 말인가.

아니, 나는 비록 아버지가 평범한 노동자로 한생을 조용히 살아왔지만 때묻지 않은 량심과 성실성만은 절대로 의심치 않는다. 나 역시 아버지처럼 청렴결백하게 살 것이다.

첫 인사

198X년 10월 22일

아침에 나를 데리러 부서에서 온 지도원은 자기를 이렇게 소개했다.

《반갑습니다. 제가 보수과에서 제일 막내인 안린경입니다.》

서른여덟 나보이는 그는 생각보다 췌 젊은 사람이었다. 키는 그리 크지 않은 편이나 몸매는 날과람있게 췌 빠졌다. 친근하게 웃을 때 드러나는 가쁜한 흰이와 영민하게 빛나는 큰 눈이 인상적이었다.

인사를 나누고보니 같은 대학출신으로서 바로 내가 다닌 열공학과를 10여년전에 졸업한 선배였다. 이게 무엇보다 반가웠다. 낯선 배치지에서 대번에 모교선배를 만난다는 게 그리 쉬운 일인가.

한결 마음이 놓였다. 이런 사연으로 우리는 첫 대면부터 친숙해졌다. 안지도원도 나를 맞은 것이 무등 기쁜지 부서로 올라가는 동안에도 되도록

많은 것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려고 애썼다.

《...발전소에서 우리 보수과는 사실 중요하오. 순간도 끊지 않고 전력을 내자면 보수계통이 믿음직해야 하니까. 그래 어떤 의미에선 운영보다 보수편을 더 중시하기도 한대오. 기술력량도 강하고...》

우리 부서 지도원들은 대체로 발전소에서 일하면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오. 난 보이래에서 10년이나 현장기사로 있다가 보수과에 올라온지 그리 오래지 않소. 그런데 범철동문 단번에 참모부서 지도원으로 배치됐으니 이건 상당한 비약이란 말이오. 하하. 아무튼 좋소. 잘만하면 발전이 빠를거요.》

우리는 부서로 올라가는 길에 안린경의 제의로 회계과에 들리기로 했다. 오늘이 바로 생활비를 주는 날인데 부서에선 그 일을 제가 맡아한다는 것이었다. 인젠 막내이의 소임을 인계하는 의미에서도 같이 가자고 했다. 나는 기꺼이 응했다.

청사안으로 들어서던 우리는 체격이 장대한 사람과 만났다. 안린경이 나를 소개하는 것이었다.

《이 동무가 새로 온 강범철동무입니다. 범철동무, 바로 우리 부기사장동지요.》 나는 허리굽혀 인사를 했다.

《아버지도 옛날엔 우리 열보수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름이 강... 뭐라든지...》

별로 반가와하는 기색이 없이 건성으로 손을 내밀던 부기사장이 나를 다시 한번 힐끗 훑어보았다. 나는 민망스러워 얼굴을 숙였다. 뿔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아버지의 이야기를 꺼내는가. 나의 배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나는 사실 이제부터 그 누구에게도 아버지에게 대해 묻지 않으리라 결심한 터였다. 그런데...

다행히도 안지도원에게 부기사장은 불췌 다른 것을 물었다.

《어제 갔던 유리솜로는 어떻게 됐소?》

《예, 아직... 이제 올라가서 보고하겠습니다.》

《빨리 올라오오.》

그는 회계과에서 기다리는 사이에도 이야기를 그치지 않았다.

《우리 보수과는 설비보수부기사장이 파장을 겸하오. 이름은 장두억이오. 체격도 불만하지만 성함부터 요란하지. 하하.》

부기사장넌 그런 형제가 넷인데 그가 막내라오. 〈두〉자를 돌림으로 장두백, 장두천 이렇게 억까지 췌 나갔다는 거요. 원래 산골태생인데 아버지부터가 돌망췌췌지를 입에 물고 트락을 세바퀴

나 도는 장사였다고. 그래서인지 부기사장은 사람평가에서 외형부터 작으면 아예 질색하는 폐단이 있소. 산이 커야 그림자가 크다는 격이지. 이제보면 알겠지만 우리 부서 지도원들은 모두 크고 꼴꼴하오. 나도 처음엔 부기사장의 눈에 차지 않아서 어지간히 애를 먹었소. 알이 작다는거요. 하하. 그런데 동문 나보다도 작으니…»

그는 웃음이 사물거리는 눈으로 나를 미심쩍게 바라보았다.

《일없소. 장두억부기사장은 걸보기엔 딱하지만 대상해보면 별로 어렵지 않소. 뒤가 없고. 우단점은 누구에게나 있으니까. 내가 잘 말하면 되오. 제 자랑 같지만 이래봐도 부기사장에겐 점수가 있는편이요. 하하.》

어처구니없이 우스운 이야기였지만 별로 크지도 못한 내 주제가 은근히 걱정스럽기도 했다.

회계과에서의 일은 오래 걸리지 않았다.

그런데 생활비지불표를 유심히 들여다보던 안린경이 갑자기 작은 창구를 두드리며 소리쳤다.

《나한테 왜 제회수행상금이 안붙었습니까?》

미닫이창구가 열리며 녀회회원의 깔끔한 얼굴이 보였다. 《동무만이 아니라 보수계통은 전부 지불되지 않았어요.》

《응?... 이거 정말 그렇구만. 차, 이런... 아니 그럼 우리 보수는 기업소계획수행에 이바지한게 없단말이요? 무슨 판인지 모르겠구만.》

안린경의 눈은 노기를 담고 디굴거렸다. 나는 사뭇 긴장해졌다. 이때 코허리에 돋보기를 건 대머리가 창구에 나타났다.

《음, 린경기산가? 왜 아침부터 야단인가? 동무네 보수에서 자재를 초과소비한건 생각안하나? 그대 자극을 받으라는거야.》

《그래요?...》 안린경은 그제야 납득이 가는듯 손을 뒤더수기에 가져갔다. 그러더니 멧적은 웃음속에 호기를 담아 말했다.

《과장아바이, 이거 안됐습니다. 그런데 대보수가 한창인 때 이거야 너무하지 않습니까? 상금이 욕심나서보다 사람들의 사기문제지요.》

《그야 그렇지. 허나 행정간부회의에서 결정한걸 우린 집행했을뿐이야. 자네네 부기사장도 잘 알타이니 가서 물어보게.》

미닫이창구가 드르륵 닫졌다.

안린경은 나를 보며 어쭙게 웃었다.

《가지요. 이쯤하면 됐소. 줄렬한것 같지만 나서서 까불건 까봐야 한다오. 사람들의 물질적 관심성을 무시하면 되오? 빨리 갑시다. 모두 기다릴게요.》

나는 계단을 오르며 방금전 안린경의 행동을 되새겨보았다. 많은것이 공감되면서도 무언가 꼭 조화되지 않는 부자연스러움이 있었던것 같았다.

사무실에는 대여섯명의 사람들이 우리를 기다

리고있었다. 나는 자기 소개를 하며 부서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기 시작했다. 정말 일군의 기쁨이 잡힌 장두억부기사장을 비롯하여 모두가 몸집이 크고 나이가 지숙한 사람들이었다. 내가 마지막 사람과 인사를 나누는데 누군가 등뒤에서 문득 《거 이름이 커서 좋구만》 하고 웃으며 말했다. 그 소리에 모두가 가볍게 웃었다. 나는 대번에 얼굴이 확 붉어졌다. 내 이름을 두고 진정으로 한 이야기였겠지만 어쨌든 나의 체소한 체구를 빗대여 하는 소리로도 들렸던것이다. 순간적으로 기분이 상했다.

《작아도 고추알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옆에서 안린경지도원이 한마디 했다. 불쾌해할수 있는 나를 위해 제때에 해준 말이었으나 그것으로 먼저 이야기의 진의가 더 강조된것 같아 기분은 더욱 흐렸다. 그러나 내색은 안했다. 내편의 아량을 가지고 너그러게 삭였다. 내가 나이에 비해 작고 어려보이는탓에 얼마든지 그럴수 있는것이라.

내가 온것으로 하여 아침모임은 좀 늦어졌다. 모임은 부기사장 장두억이 주관했다. 오십이 넘어보이는 그는 거동에서도 무게가 느껴지는 사람이었다. 모임을 하면서도 별반 말이 없고 머리를 짓수긋한채 눈길은 사업노트에만 박고있었다. 얼굴은 농민형의 둥글고 유한편이나 표정은 실무에 굳어진듯 변화가 없었다. 이야기를 하거나 들을 때에도 대체로 상대방을 보지 않았다. 얼핏 보면 좌중전체를 무시하는듯했다. 그러나 이따금 대방을 일별하는 눈길에선 사람을 무척 쳐다보기 저어하는 소심성같은것도 엿보였다. 대신 수긋한 자세에서는 눈보다도 온몸의 감각으로 대상의 구체적인 세부까지 놓치지 않고 파악하려는 진지한 태도가 느껴졌다. 지도원들도 그를 대하는 품이 조심스러운것 같았다. 안린경만이 그앞에서 활기를 잃지 않고 화력건설사업소에 갔다온 이야기를 했었는데 무슨 전동기소리가 나오면서 부기사장이 무섭게 얼굴을 이그러뜨리는통에 그도 인차 말머리를 다른데로 돌리고 말았다. 그러나 그때부터 부기사장의 기색은 더더욱 침울해졌다.

나는 부기사장의 이러한 움직임에 호기심이 돌아 긴장하게 살폈지만 모임이 끝날 때까지 나에겐 아무런 관심도 표시하지 않았다. 지도원들이 모두 현장으로 나가고 맨 나중에 사무실을 나서던 그는 그제야 피뚝 내 존재를 상기한듯 문앞에서 멈춰섰다. 방안엔 오늘 부서직일을 담당한 지도원과 그리고 안린경, 나밖에 없었다.

《거 부서직능과 문건들이랑 두루 꺼내서 보게 하지.》

등을 돌린채 방바닥을 보면서 하는 말이어서 누구에게 이르는것인지 가늠이 가지 않았다. 내 쪽은 끝내 쳐다보지 않은채 나가버렸다.

불쾌할 정도로 파묵한 사람이었다. 버림이나 받은것처럼 속이 허전했다. 그러나 부기사장이 마지못해 내뱉듯이 내린 그 지시대로 저녁까지 앞으로 사업에 필요한 문건들을 구체적으로 학습했다.

저녁사업총화때에도 부기사장은 나에 대해선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서운했지만 할수 없었다. 정말 부기사장은 나를 처음부터 탐탁치 않게 보는지...

역빠르게 내 기분을 알아차린 안린경이 사무실을 나서며 손을 지그시 잡아주었다.

《일없소. 그럴수록 더욱 땀히게 굴어야 하오. 부기사장은 곰상곰상하면서도 오돌찬걸 좋아하오.》

그렇다. 사람의 용모가 본질은 아닌것이다.

나는 결코 첫 인상으로 누구의 호감을 사려고는 생각지도 않는다. 첫 인상이란 말그대로 첫 인상이며 짐작과 기대뿐이다. 사람의 됃됨은 반드시 과정을 통해 결과에서 보게 된다.

유리솜로

198X년 10월 24일

부기사장의 분격은 오늘아침 출근하자바람으로 폭발되었다. 그가 자리에 앉기도전에 어디서 전화를 걸어왔다. 저쪽에서 무슨 청을 하는지 아니면 항의를 하는지 청소를 하면서 듣자니 수화구에서 유리솜에 대한 말이 자주 새어나왔다.

부기사장은 참을성있게 듣고만 있더니 《아침부터 소란스레 굴지 마오. 더 급한건 나요. 여기서도 대책을 세우고있소.》 하고는 전화를 놓았다. 그런데 기사장방에서 또 전화가 왔다. 역시 같은 문제인것 같았다. 처음엔 부기사장이 몇마디 설명을 했으나 그후엔 잠자코 듣기만하더니 맥없이 전화를 놓았다. 기분이 몹시 언짢다는게 옆에서도 알렸다.

이때 안린경지도원이 들어섰다. 기다리고있는듯 부기사장은 출근하는참인 안린경에게 다짜고짜로 따졌다.

《그래 화력건설에선 계속 그렇게 원장을 치겠다는거요?!》

상대방을 찢 갈겨본 부기사장의 눈길은 어느새 책상모서리에 머물렀다.

《글쎄말입니다. 그곳 부기사장은 당장 유리솜로를 대보수한다고 말하는데 가만 케를 보니 그런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래 우리가 보수를 해서라도 쓰겠다니까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고 살살 웃으면서 말하는 꼴이...》

《그 사람 수법이 언제봐야 그렇단말이요! 그런데 동문 뿔때문에 거기다 대고 보수를 해주겠다는 따위의 추한 소릴 하오.》

언성은 높지 않았으나 마디마디엔 격앙된 분노가 한껏 서려있어 안지도원은 출근차림 그대로

문앞에 굳어진듯 서있었다. 그 서슬에 나도 책상뒀던 손을 무춤 멈추었다.

한참이나 창밖을 내다보던 부기사장은 이윽고 진정이 된듯 나직하게 말했다.

《아침부터 안됐소. 안동무.》

여전히 말투는 침울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유리솜때문에 진통이요. 아무래도 안동무가 전적으로 맡아서 뛰어야겠소.》

《알겠습니다.》

부기사장의 말에서는 부탁조의 절절한것이 풍겼으나 안린경은 싱긋 웃으며 흔연히 대답한다. 나도 다시 걸레질을 시작했다.

나는 오늘 안린경지도원으로부터 문제의 그 유리솜로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구체적으로 들었다.

유리솜이란 증기도관들에서 열손실을 막기 위해 두툼하게 입히는 보온재인데 유리솜로를 가지고있는 화력건설사업소와 사이가 좋았던 얼마전까지만도 흔한 물건이었다고 한다. 화력건설은 우리 발전소의 건설을 맡아했고 그때부터 코를 맞대고 사는 바로 《앞집》이다. 그런 연고로 우리 발전소는 지금까지 그 화력건설사업소의 유리솜로에서 생산한 보온재를 국가자재공급체계에 물려가지고 필요하면 아무때나 손쉽게 받아다 써왔다. 그만큼 두 기업소사이의 관계는 깊고 친밀하였는데 우리 발전소건설이 끝난후 울타리를 두를 때 마치 두 기업소의 친선의 상징인양 우뚝 솟은 유리솜로가 있는곳만은 그냥 지나쳤다는 사실만으로도 과거의 원만한 관계는 더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것이였다.

그런데 흐르는 세월은 많은것을 변화시켰다. 터전을 잡을 때만도 3 급기업소로 발족되어 화력건설의 손탁에서 걸음마를 떼기 시작한 우리 발전소가 몇차례에 걸쳐 통트립을 하면서 크게 확장되자 인젠 화력건설쪽은 허쪽 웃으며 굽어보는 위력한 기업소로 되었다. 이쯤까지는 아무일 없었다. 그런데 살아가느라 형제끼리도 의를 덧칠 때가 있으려니 큰 체통과 관록을 서로 자랑하는 두 기업소가 이마를 마주하고 상종해오는 나날엔 좋은 일도 많았지만 상서롭지 못한 일도 두루 생기곤했다는것이다. 설비제작이나 수리를 의뢰한것이 제때에 안된다든가 자재를 먼저 돌려쓰고 미처 넣어주지 못한다든가 등등... 별찮은 일들이였지만 이런 계기들은 기업소호상간에 금을 그어놓곤했다. 기업소를 운영하는것이 사람들이라 할 때 기업소호상관계는 인간관계였고 사람들사이의 불신의 감정이란 일단 금이 가기 시작하면 걷잡지 못하는것이다.

이런 일에는 대체로 보수계통을 틀어쥐고 설비자재를 많이 다루는 우리 장두억부기사와 생긴 것부터가 양바틈하다는 화력건설의 부기사가

맞서군했다. 그런데 문제는 그전엔 우리 발전소를 일떠세운 화력건설이 이번엔 반대로 발전소의 신체를 지는 일이 빈번해졌 것이었다. 부모의 슬하에서 자란 아들이 인젠 뼈가 굵어져 부모를 공양하는 것과 흡사해졌다. 허나 아들의 손에서 부양을 받아도 부모는 의연 부모였으니 화력건설은 신체를 입으면서도 옛버릇대로 여봐라하는 투였다. 이게 바로 말은 얼마 없지만 자존심이 여간 아닌 우리 부기사장의 심사를 은근히 꼬이게 하던 차에 그쪽에서 우리의 인발판을 먼저 갖다쓰고 제때에 돌려주지 않아 보이라보수에서 지장을 받은 일이 생겼었다. 그러자 화력건설에서 의뢰한 전동기수리를 질질 끈것으로 촉발된 불화가 그동안 서리고 엉키어 오늘날엔 반대로 화력건설에서 로를 보수한다면서 보온재생산을 한정없이 뒤로 미루는대까지 이르렀다. 산도 그림자도 다 큰 우리 부기사장은 원래 생김새 작달막한 화력건설 부기사장의 저렬한 처사엔 뜨끔도 안했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사정은 우리쪽에서 급해졌다. 그동안 벌려놓았던 설비들의 대보수는 거의 끝나가는데 증기도판들은 유리숨이 없어 별거벗은채였던 것이다. 이 상태가 조금만 더 지속되면 그 별참은 유리숨때문에 여러대의 발전기를 못돌린다는 문제가 설 것이다. 그래 그동안 안린경이 나서서 화력건설과 두루 신축성있는 교섭을 해보았으나 자기네 일만 바쁘다면서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한다.

홀려들으면 우스울수도 있는 이야기였으나 거기엔 내가 앞으로 겪어야 할 생활과 그 복잡성의 일면이 비껴있는듯하여 생각이 많아졌다. 지금껏 무심히 여겨온 주위의 모든것들이 새삼스레 돌이켜졌다. 아침에 성이 났던 부기사장의 심정도 이해되었다. 우리 발전소에 이렇게 심중한 문제를 초래케 한 화력건설 부기사장의 얼굴을 상해보았으나 잘되지 않았다.

첫 과업

198X년 10월 25일

지금 시각은 새벽 1시 15분이다. 정확한 의미에서는 새날이다. 그러나 잠이 오지 않는다.

흥분으로 설레는 가슴을 잡으며 지금까지 유리숨로에 대한 참고서들을 읽었다.

나는 오늘 유리숨로를 설계할데 대한 임무를 받았다. 아니, 자진해맡았다고 하는것이 정확할 것이다. 나는 지금도 그 일을 어떻게 선뜻 말아나섰는지 알수 없다. 그리고 나를 처음부터 빼놓아버린 장두억부기사장이 무슨 심산으로 이 과업을 맡겼는지 아직 모른다. 허나 이런건 중요치 않다. 문제는 내가 분명히 중요한 과업을 받았다는 것이며 원만하고 훌륭하게 수행하는것뿐이다. 정말 현장경험도 없는 나에게 얼마나 긴급하고 중대한 과업이 떨어졌는가...

어제오늘사이엔 유리숨문제가 더욱 첨예화되어서 인젠 기업소적인 문제로 되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엔 퇴근시간이 지난후에도 협의회가 계속되었었다. 부기사장의 《특사》로 그동안 화력건설과 교섭을 해온 안린경의 최종보고는 우리에게 절망적이었고 더는 거기에 매달릴수 없음을 말해주었다. 《문제는 더욱 어렵게 되었습니다. 고 껌직한 부기사장이 유리숨로의 〈염통〉인 송풍전동기를 떼다가 다른데 설치하는데까지 이르렀습니다. 말은 유리숨로를 보수하는 기간만이라지만 우리가 자기네 전동기수리를 늦잡는데 대한 도전이지요. 우리쪽이 바쁜목이라는걸 아니까요.》

의견들이 분분했다. 유휴자재를 찾아보자는 소리도 나왔고 이제라도 남포에 차를 보내어 실어오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당장 발동에 불이 떨어진 지금에는 어느것도 묘책이 못되었었다. 나중엔 증기도판들에서 낡은 유리숨을 공연히 몽땅 벗겼다는 후회투의 객적은 소리도 들리더니 한참후엔 모두가 덤덤히 앉아있었다. 방법은 결국 하나였으니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가 어떻게 구슬리고 보상을 하든 화력건설을 설복시키는 것이었다. 허나 부기사장이 남에게 함부로 빌붙지 않는것을 부서의 기능으로 여기고있음을 알고있는터여서 누구도 이 말만은 입밖에 내지 않았다. 참으로 고양이목에 방울달기처럼 막연하고 무리한 공론이였다.

이때였다. 안린경지도원이 자리를 차고 벌떡 일어났다. 《출로는 유리숨로를 우리 힘으로 새로 건설하는것뿐입니다.》

마른 하늘의 벼락같은 소리였다.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 입을 딱 벌린채 다물지 못했다. 웬간해선 사람을 정면으로 쳐다보지 않는 부기사장도 이번만은 예외였다. 그러나 안린경은 눈섭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단호한 빛이 어려 더욱 갱짖해보이는 얼굴에선 부리부리한 눈만이 번쩍였다.

《계획에 물리면 시간도 걸리고 복잡할수 있기 때문에 아예 우리 보수과 자체의 혁신과제로 박아놓고 자력갱생하자는것입니다. 이달말까지 시간이 좀 빠듯하긴 하지만 짜고들어 전투를 벌리면 능히 될수 있다고 봅니다.》

순간적인 기분으로 제기한 문제가 아니라는걸 강조하듯 애써 낮은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느새 계산을 해보았는지 그는 수첩을 펼쳐들고 자기 주장의 가능성을 론증하는 시간과 로력, 자재량들을 렬거했다. 역시 안린경지도원은 머리가 꺾꺾 돌고 체질손이 있는 사람이였다. 그의 모든 말과 동작은 미리 연습해둔것처럼 절도있고 거침이 없었다.

안지도원의 제의는 충격이 컸다.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놀라운 발기가 결코 객기가 아니며 심분 해볼만하다는 의견들을 피력했

다.

방안엔 삽시에 화기가 돌았다. 그때까지 잔뜩 긴장하게 앉아서 사태를 주시하던 나는 안린경을 선망이런 눈으로 바라보았다. 군인처럼 행동이 민첩하면서도 친절하단 그, 언제나 요진통에 어깨를 들이미는것으로써 부서에서 위치가 뚜렷하고 부기사장의 신망도 높이 사고있는 안지도원이 부러웠다. 그리고 고마웠다. 부서에 닥친 난관의 돌파구를 패기있게 열어제끼는 그에게 감사를 드리 고싶었다. 나도 것처럼 무엇인가 해보고싶은 열망이 끓어올라 진정키 어려웠다.

부기사장만이 아무런 의사표시도 없이 머리를 숙이고있었다. 무슨 일이든 서두르지 않는 그였다.

이윽하여 천천히 얼굴을 드는데 저으기 만족한 표정이다. 《기사장동무와 토론해봅시다. 한쪽으론 며칠내로 설계를 완성하여 심의를 하고 자재들도 확보합시다. 가만, 그러자면... 안동무 혼자선 힘들텐데...》 이렇게 말하며 좌중을 둘러보는 부기사장의 눈길에 내 얼굴도 언뜻 스치였다. 스쳤다가 보다 머무른듯 여겨졌다. 거기서 묻는듯한, 아쉬운듯한, 떠보는듯한 그 무엇을 본것만 같았다. 그것은 나의 자각과 의무감을 짜릿하게 자극시켰고 끓고있는 사업의욕을 팽배시켰다.

《...어찌겠소. 대보수가 긴장하여 사람을 떼지 못하겠구만. 부자가 좀 크긴 하지만 안동무가 혼자서 수풀 해주오.》

부기사장의 이 말은 나의 자존심을 야릇하게 건드렸다. 난 썬에도 넣지 않는단말인가. 문득 안린경과 눈이 마주쳤다. 무엇을 재촉하는 빛이 번뜩했다.

불식간에 후닥닥 일어섰다. 《제가 있습니다... 같이 합시다.》

창황중이라 말이 왕창같이 나갔다. 얼굴에 번지는 피빛을 스스로 감축했으나 일어난게 후회되진 않았다.

《강동무와 같이 하겠습니다.》 안린경의 말이였다.

부기사장은 나를 힐끔 쳐다보고는 알릴듯말듯 고개를 끄덕였다. 유리섬로건설을 책임진 안린경의 제의로 설계는 내가 담당했다. 몇사람이 나의 실무를 두고 우려도 했지만 안지도원이 루루이 설명하며 우기는통에 그대로 락착되고 말았다. 모임이 끝난후 안린경은 내 어깨를 두드리며 고무해주었다.

《범철동무! 아주 잘했소. 난 응당 그럴줄 알았소. 사회생활에선 사실 이런 모퉁이에 나서지 못하면 모든게 랑패요. 기회란 언제나 오지 않으니 까. 알겠지?》

나는 어깨가 무거움을 느끼며 시무룩이 웃었다.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까운가

198X년 10월 26일

이것은 정말 뜻밖의 사실이었다. 아니, 벌써 알았어야 할 일이었다. 지금까지 화력건설의 유리섬로는 두 기업소의 보온재를 얼마든지 충당시키고도 남았는데 무엇때문에 또 하나의 로를 건설해야 하는가. 이거야말로 완전히 비경제적이고 무의미한 투자가 아닌가.

이 생각은 오늘 유리섬로현장에 나가보고 그 생산량을 따져보는 과정에 소리없이, 그러나 섬광처럼 뇌리를 쳤다. 뒤이어 끼쳐든 전철은 온몸을 사늘하게 식히며 신경을 곤두세웠다. 그렇다, 우리 발전소에 유리섬로를 건설하는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유리섬로설계는 취소되어야 한다. 애초부터 명백했던 문제를 내가 왜 이제야 깨달았는가. 그 리치가 사색할 여지없이 단순하면 왕왕 이렇게 되는가. 아니면 덤볐는가. 그랬다. 나는 엿저녁 제풀에 들떠서 모든걸 침착하게 련관적으로 따져보지 못했다. 사태의 긴박성에 포로되고 안린경지도원의 발기에 흥분하여 기사답지 않은 실수를 범했다. 그럼 안린경은? 그 역시 이걸 놓쳤을수 있다. 어떻게든 보온재문제를 풀어야겠다는 한가지 생각에만 몰몰했을 그가 아닌가.

마음이 급해났다. 우선 안린경을 만나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나는 그가 있음직한곳을 찾아 뛰여다니다가 자재창고앞에서 만났다. 그바람으로 물퍼내듯 좌르르 이야기를 쏟아냈다. 유리섬로를 건설할 필요가 없다고, 이견 의의없는 일이며 목돈을 그냥 버리는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간단하면서도 알기쉽게, 다급한 어조로 말했다. 이런걸 진작 생각 못한 나의 잘못도 함께 빌었다.

무슨 일에서든 생각이 막히지 않던 안린경이였지만 이때만은 심중했다. 애써 찾아낸 보온재해결책과 준비사업을 다 뒤집어야 했으니 어찌 안그러랴.

더구나 그가 발기했고 주도하는 일을.

이윽고 깊은 생각에 잠겼던 안린경이 얼굴을 들었다. 의외로 미소를 머금은듯 평온한 표정이다.

《동문 역시... 명석하구만. 좋은 측면이지...》

때아닌 칭찬에 부끄럽다기보다 놀라웠다.

《그럼 지도원동문 이미 알고있었습니까?》

안린경은 나를 넋지지 바라보며 야릇이 웃었다.

《글쎄... 안다모른다 할게 있소? 불보듯 뻔한 일인데.》

하긴 그랬다. 여기엔 생각을 곱씹어야 깨달을수 있는것이란 아무것도 없었다.

《범철동무, 동무생각이 옳을수도 있지만 들고다니며 떠들지는 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동문 그제 말은 설계를 끝내서 넘기기만 하면 되오.》

《예? 전혀 무익한 일인데두요?》

《하, 고집이구만. 왜 무익하겠소. 유리솜로야 우리 발전소에도 필요한 세간인데. 큰 기업소가 체면없이 향차 남의것만 얻어쓰겠소? 그러구 또… 부기사장이 보온재때문에 얼마나 꼴탕을 먹었는지 동무도 잘 알지 않소. 아마 이번 기회에 어떻게나 로를 하나 갖추자고 할거요. 다소 비경제적이라도… 남의것이 제 주머니것만은 못하니까.》

《장두억 부기사장도 그럼 이 사정을 알고있습니까?》

《그건 나두 딱힌 모르겠소. 그러나 취지만은 틀림이 없소.》

《…》

《강동무, 너무 복잡하게 생각지 마오. 물론 사업에서 원칙을 놓치지 않는것이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옷사람들의 의도와 균형을 못맞추면 그뎨 사실… 실패요. 내 사회생활을 갓 시작한 동무더러 바람따라 돛달라고 말하는건 아니지만 이런 경우엔 심중한게 좋소. 더구나 이번 일이야 동무가 자진하지 않았소. 그런데 무슨 어린애라고 어제는 하겠다, 오늘은 못하겠다 하겠소? 그건 동무자신을 생각할 때도 리롭지 못하거든. 아닌게 아니라 오늘아침 부기사장이 동무의 설계수준을 두고 미타해하는걸 내가 내대고 장담했소. 걱정 말라고말이요. 너무 심각해하지 마오. 내 속이 다 서늘해 지오. 바로 이런 경우를 두고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고 말하는거요. 동문 유리솜로에 드는 자재비때문에 그러는것 같은데 그제 정 큰 돈은 아니요.》

《운영비와 건설로력비도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요. 우리 기업소에 그췌한 예비는 얼마든지 있소. 딴 생각 말구 빨리 가서 서두르오.》

나는 그가 억지로 떠미는대로 터벌터벌 사무실로 올라왔다. 책상을 마주하고 앉았으나 안린경의 말과 나의 생각이 굴뚝처럼 도면지에 얼른거렸다.

내가 잘못 생각했던 말인가? 아니, 유리솜로를 건설하는게 국가적 견지에서 손해라는건 엄연한 사실이다. 그런데 안린경은 왜 나를 애써 설복하며 녹차히려는가. 그의 말대로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기때문인가, 주먹은 누구인가, 부기사장인가,

아니면… 기업소의 리익인가.

발전소가 국가소유라는 원칙이 하나이면 법도 주먹도 웅당 꼭같은 거리에 있어야 하지 않는가, 만약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면 내가 설 위치는 요령부득의것이 아닌가.

갈피를 잡을수가 없었다. 나를 설복하던 안린

경을 생각하며 연필을 쥐었으나 무슨 속임을 당한것 같은 서글픔이 앞서 아무것도 할수가 없었다.

명애동무에게

198X년 10월 27일

동무에게 보내지도 않을 편지를 쓰오. 지척이라면 달려가서 현재의 복잡한 내 생각을 터놓고 싶은 심정을 쏟을데 없어 쓰는것임을 리해해주오.

명애동무, 오늘밤엔 웬일인지 내가 여기로 떠나오던 날 밤 역사앞의 현란한 가로등밑에서 동무가 나에게 한 말이 지긋게 떠오르오. 그때 동무는 현실생활에 대한 동경과 우려를 안고 착잡한 심정에 싸여있던 나에게 이렇게 속삭였지.

《무슨 일을 하든 자기를 잃지 마세요. 난 믿어요.》

사실 그때 난 대수롭지 않게 들어넘겼댔소. 그런데 내 운명의 예언과도, 어쩌면 계시와도 같은 그 말마디가 어제 오늘사이엔 잠재의식속에서 불현듯 살아올랐소. 지금 이 시각엔 그 말을 뇌이던 동무의 표정과 눈빛, 숨결까지도 망막에 찍힌듯 선하오.

명애, 난 지금 마다할수 없는, 아니, 하지 말아야 할 하나의 설계과제를 안고 모대기고있소. 설계를 하면 나와 우리 부서와 기업소에는 얼마간 《리익》이지만 나아가서는 수천원의 국가돈이 허궁 달아나게 되오. 물론 수천원이란 우리 기업소와 나라살림사이에 비해볼 때 자리도 나지 않을 액수요. 또 후날이라도 문제가 서면 지시대로 했을뿐인 나혼자만 책임질 일은 아니요. 그러나 동무로선 놀랍겠지만 난 지금 갈팡질팡하며 아무런 결심도 못가지고있음을 솔직히 고백하오.

명애동무, 난 어쩌면 좋겠소. 난 벌써 경멸적으로 쏘아보는 동무의 얼굴을 보고있소. 뻔뻔하게 따지고 드는 목소리를 듣고있소. 《동무가 어쩔 그럴수 있어요? 거기에 무슨 논의의 가치가 있어요? 알수 없군요. 동무가, 우리가 그런 때 주저하며 망설이는 법을 언제 어디서 배우기나 했어요?》

웁소. 그렇소. 조용한 대학연구원에서 자신의 능력과 정열에 따라 결과가 나타나는 독자적인 연구사업을 하고있는 동무의 항변이기에 리해되오.

그러나 현실은 다르오. 난 지금까지 누구보다 정의감이 특출하다고 여겨본적은 없소. 누구의 비위를 맞추거나 아부할 생각은 더욱 없었소. 허나 동무가 당부하며 잃지 말라던 나-법철은 다름 아닌 부서의, 사람들 관계속의 자기임을 어제 오늘사이에 깨달았소. 이런 동요를 알고있는 우리 부서의 어느 지도원은 오늘저녁에도 설계여부에 대해 까근히 물었소.

《아직… 끝내지 못했습니다.》

《뭐라구? 어찌자구 그러오? 동무 혹시?…》

가슴이 싸늘했소. 그래 서둘러 변명했소.

《오늘밤이면… 다 됩니다.》

거짓말이었소. 이것으로 나는 일절 자기를 잃었소. 사실 나에게 부여된 이틀을 고민과 번뇌로 보냈던거요. 무거운 짐을 안고있는 현시점에서의 나는 아직 너무 어리고 무력함을 용서해주오. 모든게 두렵고 자신이 안생기오. 차라리 대학 시절로 되돌아가고싶소. 모두가 너나들이로 삶과 생활을 두고 그 가치와 목적과 방식을 둘러싸고 한치의 사심도 없이 열렬하고 다감하게 논쟁하고 일깨워주던 유보도의 푸르른 잔디밭과 기숙사의 불밝은 창문들이 그림소. 정의와 진리중에서도 가장 투철한것들만이 선택되고 즐겨 활용되던 그때가 그림소.

명애동무, 시간이 많이 갔소. 불행을 안은 밤은 느리게 간다지만 벌써 새날이요. 이만 쓰겠소. 이제부터 난 일을 해야 하오. 무슨 일?

그건 나도 아직 모르겠소.

범철로부터

내가 바라던것

198X년 10월 28일

출근길에 화력건설의 유리솜로에 들려보았다. 꼭 다시 보아야 할 리유는 없었지만 발길이 그쪽으로 향하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내키지 않은 설계심의를 서둘러 가고싶지 않는 속발은 도피의식의 표현임을 알면서도.

요래전에 숨죽인채 전동기까지 떼여내어 더욱 시꺼멓게 보이는 유리솜로의 전경은 을스산하였다. 거기서 공연히 서성거리다나니 출근이 좀 늦어졌다. 뜨직한 걸음으로 청사앞에 이르니 안린경이 합숙쪽을 바라보며 안절부절 못하고있었다. 내가 반대쪽에서 나타나자 일순 놀라면서도 무척 반가와했다.

《밤늦도록 수고한 모양이구만, 눈에 피발이 선걸 보니… 그래도 오늘같은 날엔 일찍 나와야지. 기사장동지랑 아까부터 기다리는데 인사가 뻘컘? 난 혹시 못끝냈는가 해서 합숙에 가려던 참이었소. 아무튼 다행이요. 빨리 올라갑시다.》

그는 내 기분엔 아랑곳없이 제잡담 계단을 치달아오르더니 부서사무실앞에 멈춰서서는 나직이 주의를 주었다.

《옷매무시를 바로잡소. 그리구 덤비지 마오.》

설계심의라야 장두억부기사장과 안린경, 기사장이 참가인원의 전부였다. 들어서논찬으로 안린경이 소개했다.

《바로 이 동무입니다. 강범철이라고.》

나는 서글서글한 인상을 주는 기사장과 간단한 인사를 나누고나서 머리를 수그리고 앉은 장두억부기사장을 띠여보았다. 왜서인지 안색이 좋지 못했다.

《왜 그러고있소? 빨리 도면을 꺼내오.》

안린경이 못박힌듯 서있는 나에게 하는 말이였다.

《어데 있소? 서류함에 있소?》

안지도원의 두번째 독촉은 벌써 불안과 놀라움이 끼인 목소리였다. 부기사장은 거기서 그 무엇을 느낀듯 내 몸을 힐끗 내리훑었다. 바재이는 마음은 조를 비비듯했다. 잣혔던 가슴이 느닷없이 뛰기 시작했다. 때는 오고야 만것이다.

《도면은…전… 설계를 하지 않았습시다. 아니, 할수가 없었습니다.》

이 말은 온 방안을 싸늘하게 얼궜버렸다. 스스로 한 말이였지만 자신에게 중형을 선고한듯 내 얼굴에도 옅은 소름이 쭉 돋았다. 잔등으로 흘러내리며 온몸을 오싹하게 만든다. 갑자기 눈두덩이 부은것처럼 시야가 좁아지며 앞이 잘 안보였다. 나에게 쏠린 각이한 눈길들은 몸으로 느꼈을 뿐이다.

《설계를… 할수가 없었다니 ? 어찌된 일이요? 무슨 일이 있었소?》

짐짓 놀란듯한 목소리와 함께 옆으로 돌려진 기사장의 시선은 《옆으로 전달》 구령처럼 부기사장을 통해 안린경에게서 뺏겼다. 그는 절망적으로 얼굴을 떨구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제야 내가 용케도 침착성을 되찾았다는것을 알았다.

《하려고 했으나… 그건 안됩니다. 일종의 죄악이었습시다.》

이야기의 첫 시작이 헛갈려 더듬거린것을 알았으나 그다음부터는 무슨 말을 했는지 자자구구 기억되지 않는다. 다만 내 결심을 그대로 서슴없이 이야기했음은 분명하다…

한동안 무거운 침묵이 방안을 눌렀다. 속이 편안치 않은듯 장두억부기사장은 거울진 몸을 몇번이나 움직이며 앉음새를 고쳤다.

이윽하여 기사장은 전후사연을 짐작한듯 몸을 일으켰다.

《뻘컘! 알겠소… 이 문젠 논의할 여지도 없소.》

이렇게 말한 기사장은 무거운 걸음으로 문턱을 넘어서었다.

장두억부기사장은 몸을 웅크린채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컴컴한 빛이 도는 이마전에서는 쥐가 벌떡벌떡 뛰고있었다.

안린경이 벌떡 일어섰다.

《동문… 말끝마다 돈돈 하는게 꼭 회계과사람 같소. 아니면 경제분석실에 갈걸 그랬는지…》

나의 자존심을 모질게 허벼대는 조롱이였다.

그러나 나는 개의치 않고 담담한 어조로 말했다.

《나라살림살이에선 누구나가 경영기사, 회계

일군이 되어야 합니다.》

《흥! 그럴테지.

그러나 자기의 초당성으로 남을 희생시키는것은 떼뻗치 못한 행위인줄 아오.

그래, 동문 우리 보수과사람이 아니요?

부기사장동지의 립장에 대해 생각이나 해봤소? 경거망동을 해도 분수가 있지... 내 알아보니 동무 아버지도 그렇게 속이 깨끗한 어른이었다고 합데.》

순간 나는 모욕과 분노로 온몸이 부르르 떨렸다.

피가 꺼꾸로 치솟는것 같았다.

뿔때문에 이 세상에 없는 아버지까지 건드린단 말인가.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황! 하고 내앞의 책상이 튀었다. 뒤이어 벽력같은 소리가 방안을 쩍- 울렸다.

《그 사람 아버지는 거들지 마오!》

목소리의 입자는 뜻밖에도 부기사장이었다.

안린경의 눈은 대번에 커졌다.

더욱 놀란것은 나였다.

부기사장이 우리 아버지를 알고있단말인가? 어떻게 되어?... 그럼 왜 아직까지는?...

이런 생각을 하는 사이에 부기사는 복도로 썰 하니 나가버렸다.

안린경도 서둘러 모자를 찾아 쓰더니 입가에 비죽이 웃음을 담고 말했다.

《하긴 동무로선 그렇게 하는것이 현명한 처사인지도 모르지, 후에 무슨 시비가 생겨도 도면에 남긴 설계자의 수표는 문제로 될수도 있을테니까.》

《??...》

나는 비로소 그가 왜 그토록 애써 나에게 설계를 맡겼는가를 똑똑히 알게 되는것 같았다. 그가 저토록 비렬한 인간이었던말인가. 지금까지 그의 입을 통해 사람들에게 알려진 화력건설사업소와의 알뜰관계도 자기의 소충명을 시위하기 위해 어느 정도 과장되고 변형되었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가 혐오스럽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했다. 분명 새 세대에 속하는 저 사람에게도 언젠가는 참과 정의의 귀중히 여기며 그것을 지향하여 사는 걸 금지로 느끼던 때가 있었으리라. 그런데 이제 와선 인간의 양심과 공민적 의무마저 저버린 정신적 빈곤자, 시대의 락오자로 되어버린것이다. 가장 값높고 성실한 지향과 깨끗한 자세로 살아야 할 청년지식인이 저처럼 줄타기를 하며 값죽게 살아간다면 시대의 정신적 수준은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거나말거나 마지막까지 내 발치에 비난을 뿌려던진 안린경은 히 나가버렸다.

헛헛그레한 방안엔 버림받은듯 나혼자만이 남았다. 그러나 마음은 이상스레 침착해졌다. 빼근

한 고뇌를 겪고난 뒤에는 오히려 이런 평온이 찾아드는지...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문밖을 나섰다. 지금 상황에서 내가 할바가 무엇인가는 명백하였다.

곧바로 화력건설사업소의 부기사장방을 찾아들어갔다.

조용히 들레이는 가슴을 찾히며 입을 열었다.

우리 발전소의 현재 형편에 대해, 그리고 우리 일군들의 주인다운 립장과 자세에 대하여 될수록 나직하게 이야기하려 했었다. 나의 생각과 진정을 그대로 털어놓으려 했다. 침착하고 절절한 호소로 양심의 흉벽을 두드리자고 했었다...

그런데 그렇게 조용하게는 되지 않았다.

처음엔 노란테 안경알속으로 나를 마뜩지 않게 쳐다보던 화력건설 부기사가 어느새 깊은 생각에 잠겨있는것을 발견하고야 나는 자신이 너무 격조높이, 열렬하게 웨치고있음을 깨달았다.

미안하고 죄스러웠다. 저만이 옳은것처럼 떠들어댄것이 부끄러웠다.

사죄삼아 작별삼아 인사를 하고 문가로 걸어나와 출입문을 열었다.

아! 그런데 문밖에 바로 우리 발전소 장두억부기사가 서있는게 아닌가.

못할짓을 하다가 들킨것처럼 몸이 움츠러들었다. 고개를 떨구었다.

부기사의 목직한 손이 내 어깨에 와닿았다.

《다 들었소. 지도원동무, 동문 아주 옳은걸 주장했고 바르게 행동했소. 수많은 우리들을 깨우쳤소. 고맙소. 동무의 아버지도 그렇게 대가 끝은 사람이었소.》

나는 굳어진듯 그앞에 서있었다. 다음순간 눈물이 쿵 솟았다. 입을 앓다물었다. 입술을 놓아주면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릴것만 같아 더욱 아프게 깨물었다.

이렇게 되어 우리 발전소의 유리솜로건설계획은 취소되었다. 동시에 화력건설유리솜로에는 오랜만에 불이 지펴졌다. 그동안 한적했던 유리솜로의 《공동구역》은 두 기업소사람들로 붐비었다. 저녁녘에는 로에서 흰눈같은 유리솜이 뭉게뭉게 피어 나왔다. 모두의 얼굴이 거기에 비치여 환해졌다.

저쪽에서 화력건설부기사가 우리쪽에 대고 새된 소리를 질렀다.

《보수부기사장! 그래 고추알같은 지도원을 시켜 내 뺨을 갈겼으니 속이 후련하겠구만. 흐흐...》

장두억부기사는 곱지 않은 눈길로 저쪽을 쫓아갈려더니 돌아서며 픽 웃었다. 거기에 모여섰던 사람들 모두가 폭소를 터뜨렸다. 다만 안린경만이 화락한 그 분위기에 섞이지 못하고 저 발치에서 홀로 서성거렸다.